



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심화교재



발 간 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에 발간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교재 기본편'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본편은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심화편'은 기본편의 철학과 가치를 한층 더 확장하며, 더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심화편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논점을 분석하고, 상호 협력과 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 심화된 토론 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교재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중심에 두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장을 바꿔보는 것을 넘어,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AI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감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조화롭게 이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심화편 교재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지도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교재 발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4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목 차

I.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위한 기본 자료 >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6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이해 13
-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 교육, 논쟁 수업’ 20

II. 중학교용 토론수업 자료 >

- 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24
-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42
-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59
-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69
- 학교급식은 개인의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79
-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88

III. 고등학교용 토론수업 자료 >

- 글쓰기 교육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하는가? 100
- 시로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까? 112
- 동물 가죽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121
-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133
-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146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은 중동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157
-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167
- 경쟁은 필요한가? 189

IV. [부록] 역사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활용 주제와 쟁점 예 >

1.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이 존재하는가?	204
2. 예술 작품에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을까?	205
3.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206
4. 70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법제화해야 하는가?	207
5.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을 해도 되는가?	208
6.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는 옳은가?	209
7.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210
8. 사람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괜찮은가?	211
9.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보다 확대 보장되어야 하는가?	212
10.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군복무 형태가 더 정의로운가?	213
11.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214
12. 동물 가죽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215
13.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216
14.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217
15.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은 중동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218
16. 정당한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219
17. 시민불복종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221



A | 시 | 대

역

지

사

지



공

존



형

토



론

수

I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위한 기본 자료

어



- 심화교재 -

I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위한 기본 자료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중심 내용 한눈에 보기

1.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에서 정보탐색 및 분석이 중요한 이유
2. 정보탐색 및 정보 분석하기 과정
 - 1단계: 정보원 범위 알려주기
 - 2단계: 정보탐색 확장 및 축소
 - 2-1. 용어 간 관계 활용하기
 - 2-2. 불리언 연산자 활용 검색
 - 2-3. 학술지 등재 정보 활용하기
 - 3단계: 정보 분석하기
 - 3-1. 정보 분석하기(개인)
 - 3-2. 정보 분석하기(모둠)
3. 참고문헌

1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에서 정보탐색 및 분석이 중요한 이유

정보탐색과 정보분석은 토론의 핵심 과정입니다. 논제를 선정할 때부터 교사는 ‘학생들이 탐구할 만한 자료가 풍부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정보 탐색 과정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은 찬성과 반대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숙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정보와 논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매체의 발달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내는 기회는 많아졌으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활용교육과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 소개한 정보탐색 및 정보분석 과정은 사서교사의 도서관 교육 활동 중 일부입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는 학생들과 정보를 찾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에 맞추어 필요한 단계와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해도 좋습니다. 정보 활용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보다 나은 합의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정보탐색 및 정보 분석하기 과정

1단계: 정보원 범위 알려주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찾으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는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 보고서, 정부 발간자료, 사전, 신문 등의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1>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참고 사이트를 포함한 참고정보원 목록입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무료로 이용하거나 유료 구독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여부는 사서교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1> 역사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참고정보원

분류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참고 사이트	정보원 유형	이용 방법
도서관	학교 도서관, 지역 내 공공도서관	단행본, 정기간행물, 신문, 학술지 및 게재 논문 등	
	서울시교육청전자도서관 https://e-lib.sen.go.kr	전자책, 전자잡지	회원가입 (인증)
국가 전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전자책, 학위논문 등	기관 협약 후, 이용 가능한 열람 범위 안에서 무료 이용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전자책, 학위논문 등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https://www.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운영, 학위논문, 학술지 및 게재 논문 등	학위논문 제외, 유료 이용
	SCIENCE ON https://scienceon.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운영, 과학기술정보 관련 국내외논문, 특허정보, 국가 R&D보고서 등	일부 국내학술지 제외, 국내논문 대부분 무료 이용
전문 서비스 (자료 원문 제공)	한국학술정보 KISS https://kiss.kstudy.com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	유료 이용
	DBpia https://www.dbpia.co.kr	학술지 및 게재 논문, 전문 잡지	유료 이용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뉴스 수집 및 분석	회원 가입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	학술단체가 원문의 무상 공개에 동의한 경우, 무료 이용

정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현행법령, 자치법규 등	
	통계청 https://kostat.go.kr	인구·가구, 고용·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보도 자료 및 정책 자료를 통한 통계 정보 제공, 통계 용어 해석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모든 국가승인통계 수록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	e-나라지표, 국가발전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저출생 통계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포함한 6종의 지표체계 제공	
어학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기본 단어, 인접 어휘 제공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상위어, 하위어, 본말/준말, 참고 어휘 제공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유의어, 반의어, 예문, 맞춤법·표기법 안내	
검색 엔진	구글 학술검색 https://scholar.google.com	학위논문, 학술지 및 게재 논문 등, 학술논문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링크 정보 제공	
	네이버 학술정보 https://academic.naver.com	학술논문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링크 정보 제공	

2단계. 정보탐색 확장 및 축소

먼저,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탐색 방법을 교육합니다.

2-1. 용어 간 관계 활용하기

검색창에 문장으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탐색할 때 기본은 '키워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제에도 여러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고 관련된 키워드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찾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용어 간 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상위어/하위어/관련어/동의어 등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면서 기존의 키워드를 보다 적합한 형태의 검색어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용어 범주는 <자료1>의 어학사전을 참고합니다. 다음을 어학사전을 활용한 용어 간 관계 활용 예입니다.

탐색 주제	비행기 조종사
상위어	항공인
하위어	기장, 전투기 조종사
관련어	공군, 승무원, 조종사
동의어	비행가, 비행사

〈어학사전을 활용한 용어 간 관계 활용 예시〉

2-2. 불리언 연산자 활용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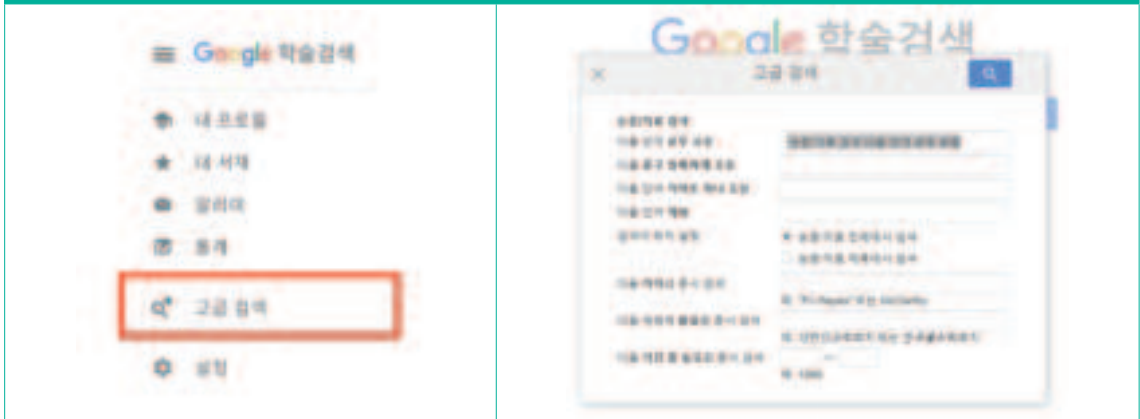
학생들이 검색 엔진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 키워드를 입력할 때 〈기본 검색〉을 활용하여 한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입력한 단어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주제와 관련이 있어도 검색되지 않은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색 엔진마다 여러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고급 검색〉 또는 〈상세 검색〉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개 불리언 연산자 활용 검색을 포함합니다. 불리언 연산자를 활용하면 검색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검색 엔진마다 고급 검색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교사가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검색 엔진의 고급 검색 기능(〈자료2〉와 〈자료3〉)을 참고하여 미리 습득해 놓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료 2〉 불리언 연산자 활용 검색과 예¹⁾

검색 범위	검색 연산자	설명	예
검색 범위 축소	AND, +	두 개의 검색어(식)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서울+맛집, 서울 AND 맛집
검색 범위 확장	OR,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즐기세포OR면역, 즐기세포 면역
검색 범위 축소 (부적절한 결과 제거)	NOT, -	검색 결과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검색	재규어 속도NOT자동차 재규어 속도-자동차

1) 이종욱·김수정, 정보학의 이해, 청람, 2022. pp. 164-165

〈자료 3〉 고급 검색 기능 예-구글 학술검색



2-3. 학술지 등재 정보 활용하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학술지를 출판하고 금전적 이익만 원하는 가짜 학술 단체와 이러한 단체에서 출판하는 학술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²⁾ 질적 수준을 확보한 학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우 KCI 등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³⁾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논문 간의 인용 관계 분석 시스템으로, 다양한 인용지수를 사용하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합니다. KCI 등재 표기가 된 논문은 국내에서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으로, 정보탐색을 할 때 KCI 등재 논문을 우선으로 참고하는 게 효과적입니다.〈자료4〉 참고) 이외에도 KCI는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이 리스트를 통하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 논문을 알 수 있고 정보탐색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 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학술지 상세 검색-등재 여부 확인 영역



2) 연구윤리지원센터,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 한국연구재단, 2022.

3) 해외 학술지는 SCIE(과학기술), SSCI(사회과학), A&HCI(예술 및 인문학), Scopus(인문, 사회과학, 예술, 과학, 기술, 의학분야 등)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다.(이종욱·김수정, 정보학의 이해, 청람, 2022. p.115.)



3단계. 정보 분석하기

3-1. 정보 분석하기(개인)

텍스트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교사는 구조화한 활동지(〈자료5〉 활용)를 제공하여 학생의 정보분석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인용에 필요한 서지사항 기록, KWL 독서 전략을 확대 활용한⁴⁾ 정보 요약 및 분석, 정보 활용 방안 기록 등을 활동 과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는 토론 및 합의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료 5〉 정보 분석지(개인)				
정보원 서지사항	<input type="checkbox"/> 단행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잡지/학술지 <input type="checkbox"/> 신문 <input type="checkbox"/> 연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영상자료			
	■ 저자명: ■ 서명(제목):	■ 발행연도: ■ 발행기관명:	■ 추출한 페이지:	
정보와 관련된 쟁점				
정보 요약 및 분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궁금한 것, 알아야 할 것	알게 된 것 <input type="checkbox"/> 조사 및 연구 결과 <input type="checkbox"/> 통계 <input type="checkbox"/> 사례 <input type="checkbox"/> 전문가의 의견	추가하기
	글을 읽기 전, 읽을 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읽을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 알아야 할 내용	글을 읽으며, 읽은 후 자신이 알게 된 새로운 지식	글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 (새로운 논점, 해결방안 등)
토론, 합의 활용 방안	<input type="checkbox"/> 찬성 측 근거 <input type="checkbox"/> 반대 측 근거 <input type="checkbox"/> 합의를 위한 대안 개발			

3-2. 정보 분석하기(모둠)

개인별 정보분석의 결과를 모둠원과 공유하고 토론과 합의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추가 탐색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 구조화한 활동지를 제시합니다.(〈자료 6〉 활용) 이때 유의할 점은 첫째, 출처를 확인하고 저자와 발행기관의 공신력과 정보의 최신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둘째, 찾은 정보가 쟁점에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쟁점 1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추출한 정보가 쟁점 2 또는 쟁점 3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개인이 추출한 정보의 이용 적합성 여부를 모둠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면, 어떤 쟁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지 논의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은 토론 개요서와 토론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4) 이성영·신권식·이봉운, KWL 모형의 확대 적용 방안 개발 및 그 효과 검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5집, 2007.

〈자료 6〉 정보 분석지(모듬)

핵심 정보	<input type="checkbox"/> 조사 및 연구 결과 <input type="checkbox"/> 통계 <input type="checkbox"/> 사례 <input type="checkbox"/> 전문가의 의견				
출처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이력, 전공, 작성자가 쓴 다른 자료 확인하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발행기관의 권위, 주제와 관련된 기관인지 확인하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발행 연도의 최신성 확인하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관련성	평가 기준	* 쟁점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쟁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토론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 쟁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토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 척도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적합성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일부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판단 이유:				
토론, 합의 활용 방안					

3

참고문헌

- 국제도서관연맹(IFLA), How To Fake News.
<https://www.ifla.org/publications/node/11174>
- 연구윤리지원센터,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 한국연구재단, 2022.
- 이성영·신권식·이봉윤, KWL 모형의 확대 적용 방안 개발 및 그 효과 검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5집, 2007.
- 이병기, 정보활용교육론(제3판), 태일사, 2020.
- 이종욱·김수정, 정보학의 이해, 청람, 2022.
- 이춘명·김태경, 교사가 성장하는 도서관 협력수업, 학교도서관저널, 2023.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이해

중심 내용 한눈에 보기

1. 논쟁 수업에서 교사 역할 유형
 - 가. 배타적 중립형
 - 나. 배타적 편파형
 - 다. 중립적 공정형
 - 라. 신념을 가진 공정형
2. 논쟁 수업의 논제 설정 조건
3.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특징과 유형
 - 가. 모둠형
 - 나. 코너 학습형
 - 다. 순차적 자료 분석형
4.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도
5.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학생 자기 성찰지

1

논쟁 수업에서 교사 역할 유형

사회교육학자 T.E. 켈리는 교실 내 논쟁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교사의 역할을 네 가지로 나눈다. 배타적 중립형, 배타적 편파형, 중립적 공정형, 신념을 가진 공정형으로 켈리는 이 중 '신념을 가진 공정형' 교사의 지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가. 배타적 중립형 :

교실 내에서 논쟁 문제 자체를 교수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는 학교에서 논쟁 문제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나. 배타적 편파형 :

교사가 한쪽 입장만 가르치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는 것이다. 배타적 중립형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 논쟁 중인 현안에 대해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다. 중립적 공정형 :

교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분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입장을 취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신념을 가진 공정형 :

교사가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찬반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루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2 논쟁 수업의 논제 설정 조건

가. 토론의 큰 주제 영역을 정하고 찬반 의견 대립을 보이는 지점을 찾는다.

예) 생명 존중, 환경, 정치, 경제 등

나. 주제 영역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현안’을 정한다.

예) ‘생명 존중’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동물권’으로 선정

다. 논제는 현재의 제도나 상황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한다.

예) ‘동물권’의 경우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해도 되는가?”

라. 하나의 논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사회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여러 교과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 ‘동물권’의 경우 “동물 실험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가?”(과학, 도덕),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국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사회, 실과) 등 관련 하위 논제를 다룬 후에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해도 되는가?”를 다루는 것이 적절함.

3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특징과 유형

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특징

토론 전 풍부한 자료를 통해 해당 현안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파악한다.

토론 중 개인의 의견에 근거하지 않고 무작위로 1차 토론의 찬성/반대 입장을 정한다.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과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이로써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하고 역지사지를 실천한다.

토론 후 토론의 목적으로 ‘시민적 합의’를 중시한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아니라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의견과 근거를 존중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적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경청과 대화를 실천한 부분을 충분히 격려한다.

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유형별 특징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	특징
모듬형	- 자료 분석부터 토론 활동까지 모든 수업을 모듬으로 진행하는 기본형 - 토론 주제의 논쟁성이 낮아서 사회 현안 문제를 학생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코너 학습형	-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의 학습 코너를 정하여 두 팀으로 나누는 후, 각 팀이 찬성 및 반대 자료를 모두 분석한 다음 토론하는 방식 - 토론 주제의 논쟁성이 보통 정도이고, 사회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진 리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사용
순차적 자료 분석형	- 모든 학생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한 모형 - 토론 주제의 논쟁성이 높아서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

모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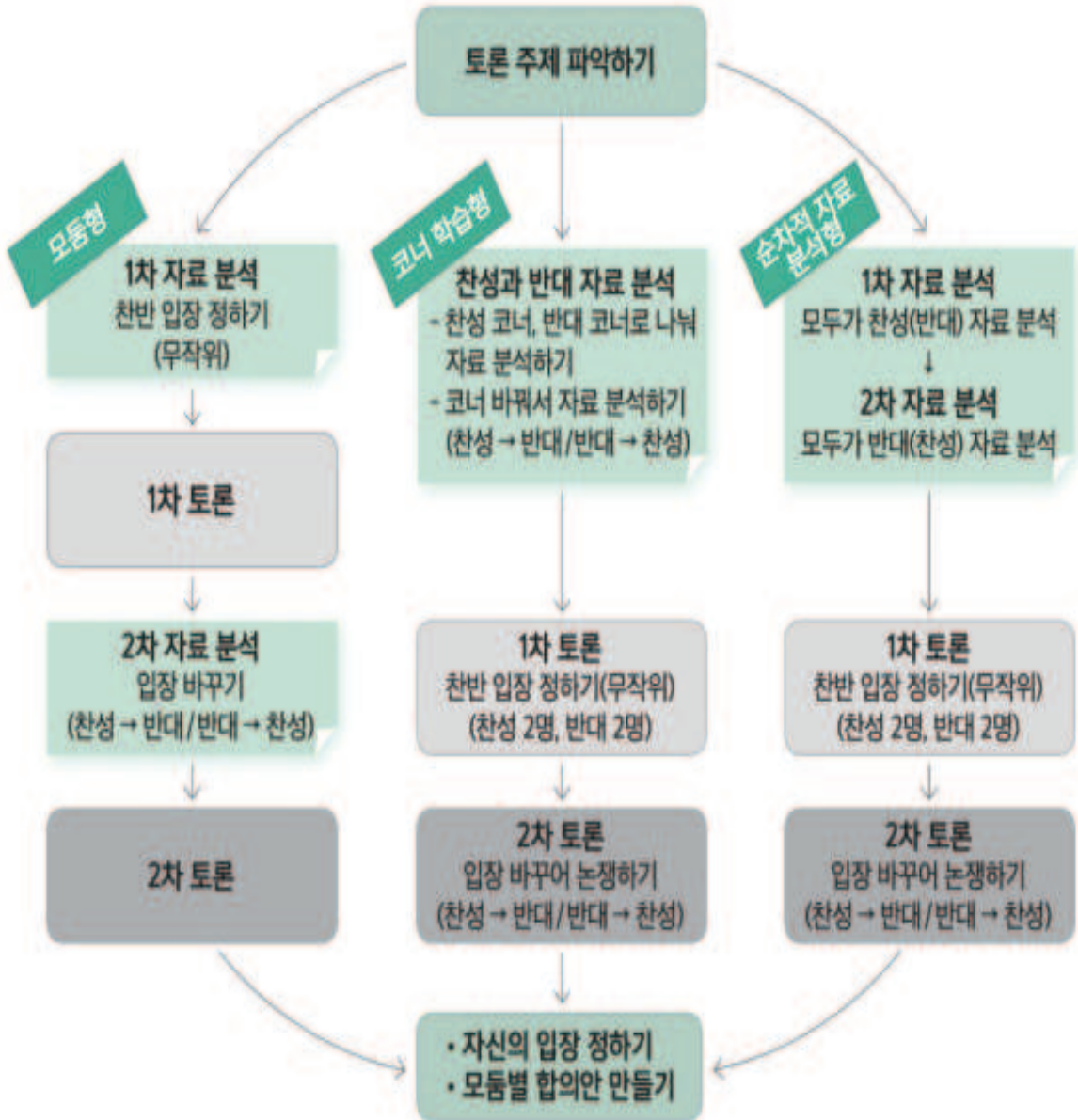
단계	주요 활동	세부 활동	유의점
1	토론 주제 파악하기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기 - 주어진 토론 주제 상황 읽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2	1차 자료 분석: 교사가 제시하는 쟁점 자료 분석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2명씩 나누기 - 찬성 측과 반대 측별로 2명이 서로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할 내용과 상대 팀을 반박할 내용 정리하기	- 준비됨기 등 무작위로 찬성 측과 반대 측 나누기
3	1차 토론: 찬반 논쟁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의견 제시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상대 의견 반박 질문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자신의 주장 답변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4	2차 자료 분석: 학생이 쟁점 자료를 추가로 찾아 분석하기	- 찬성(반대) 측은 반대(찬성) 측 주장을 하기 위한 추가 의견 조사하기 - 1차 토론 때와 다른 입장의 주장을 하기 위해 조사 및 수집한 자료 정리하기	- 2차 토론 활동 때에는 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 토론한다는 것을 안내하기
5	2차 토론: 입장 바꾸어 논쟁하기	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 2차 토론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의견 제시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상대 의견 반박 질문하고 답변하기	- 2차 토론 대신 다음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1) 1차 토론에서 상대방 측에서 놓친 주장과 반박을 상호 제시하기 2) 1차 토론에서 자기 팀 주장의 문제점 상호 제시하기
6	모둠별 합의안 만들기	- 토론 주제에 대해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 모둠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시도하기 - 수업 활동 정리하기(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천 방안 나누기/ 합의가 안 된 경우 합의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성찰하고 발표하기)	-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성숙한 시민적 토론이라고 격려해주고 합의가 된 경우는 이를 위해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코너 학습형

단계	주요 활동	세부 활동	유의점
1	토론 주제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토론 주제 상황 읽기 - 토론 주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2	찬성과 반대 자료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공간(코너)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찬성 및 반대 관련 자료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 학생들 중 절반은 찬성(반대) 코너에서 관련 자료를 공부하기 -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코너로 이동하여 찬성(반대) 관련 자료를 공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학생들 중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자 각각 1명을 정하여 교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이 토론 주제에 대해 같이 공부할 수도 있음
3	1차 토론: 찬반 논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기 - 모둠 내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2명씩 나누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의견 제시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상대 의견 반박 질문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자신의 주장 답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뽑기 등 무작위로 찬성 측과 반대 측 나누기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4	2차 토론: 입장 바꾸어 논쟁하기	<p>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 2차 토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의견 제시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상대 의견 반박 질문하고 답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토론 대신 다음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1) 1차 토론에서 상대방 측에서 놓친 주장과 반박을 상호 제시하기 2) 1차 토론에서 자기 팀 주장의 문제점 상호 제시하기
5	모둠별 합의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에 대해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 모둠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시도하기 - 수업 활동 정리하기(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천 방안 나누기/ 합의가 안 된 경우 합의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성찰하고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성숙한 시민적 토론이라고 격려해주고 합의가 된 경우는 이를 위해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순차적 자료 분석형

단계	주요 활동	세부 활동	유의점
1	토론 주제 파악하기	- 주어진 토론 주제 상황 읽기 - 토론 주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2	1차 자료 분석: 찬성 자료	-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입장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읽고 요약하면서 분석하기	- 모둠별로 자료를 공부하거나 교사가 질문하면서 해당 입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도둑
3	2차 자료 분석: 반대 자료	-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읽고 요약하면서 분석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자료 분석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해도 됨
4	1차 토론: 찬반 논쟁하기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기 - 모둠 내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2명씩 나누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의견 제시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상대 의견 반박 질문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자신의 주장 답변하기	- 준비됐기 등 무작위로 찬성 측과 반대 측 나누기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5	2차 토론: 입장 바꾸어 논쟁하기	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 2차 토론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의견 제시하기 -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상대 의견 반박 질문하고 답변하기	- 2차 토론 대신 다음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1) 1차 토론에서 상대방 측에서 놓친 주장과 반박을 상호 제시하기 2) 1차 토론에서 자기 팀 주장의 문제점 상호 제시하기
6	모둠별 합의안 만들기	- 토론 주제에 대해 모둠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 모둠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시도하기 - 수업 활동 정리하기(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천 방안 나누기/ 합의가 안 된 경우 합의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성찰하고 발표하기)	-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성숙한 시민적 토론이라고 격려해주고 합의가 된 경우는 이를 위해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배움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아래 질문을 고려하세요.	
배움	토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었는가?
	이주노동자의 동일한 노동 권리 보장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측 주요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였는가?
	토론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가?
협력	이주노동자의 동일한 노동 권리 보장 관련 자료를 읽거나 조사할 때 팀원과 적절하게 협력하였는가?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상대 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는가?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구성원의 의견도 빠지지 않게 고려하면서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참여	찬성과 반대 자료를 읽거나 조사하면서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토론하였는가?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실천 계획(프로젝트안)을 적절하게 작성하였는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내가 얻게 된 것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역량, 자세 또는 스스로 변화된 점
토론 과정에서 아쉬운 것	토론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개선할 점, 고치고 싶은 점
함께 토론해서 좋았던 것	토론 시 상대방의 주장이나 토론 참여 태도 등을 통해 배운 점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 교육, 논쟁 수업'

중심 내용 한눈에 보기

1. 보이텔스바흐 합의 과정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3. 왜 지금 '보이텔스바흐 합의'인가?
4.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의 주제 구성에서 고려할 기준
5.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6.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 사례

1

보이텔스바흐 합의 과정

가. 과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독일이 저지른 잘못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 제시

나. 반성

히틀러의 집권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데는 유권자이기도 한 시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전후 독일 지식인들이 주목한 것은 제도를 갖추는 것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다. 과정

-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하여 무릎을 꿇음.
-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들 앞에서 사과함.
- 1976년 보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지식인들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민교육 3원칙'을 합의함.(보이텔스바흐에 모여 합의하여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불림.)

2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가.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학생에게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되며 학생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한다.

나. 논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학문적, 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 학생 자신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사회적 논쟁이 학생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입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왜 지금 '보이텔스바흐 합의'인가?

지금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민교육으로서 '토론 교육'을 지향하고(시민대학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며(정치적 주체로서의 인식),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기 등을 유도할 수 있어야(통합적 사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적 조정과 합의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움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입장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안정적인 논의 방법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교육을 통해 민주적 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 공동체의 성장분만 아니라 민주시민사회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올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4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의 주제 구성에서 고려할 기준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논쟁 수업의 중요성과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함을 안내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 수업을 설계하고 구성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다음 질문들을 참고하여 기준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사회적으로 살펴볼 중요한 문제(현안)인가?

나.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이해관계 관련) 문제인가?

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발달에 적합한 것인가?

라. 학생들이 탐구할만한 관련 자료가 풍부한가?

5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논쟁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제시하는 정보나 논쟁 수업의 방향이 교사의 주관과 연계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를 안내할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논쟁 수업에서 교사의 철학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중립적 위치에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논쟁의 중립자

- 특정 이념이나 가치, 특정 사실이나 증거를 강조하지 않기
- 여러 가지 주장이 담긴 정보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드러내지 않기
- 얼굴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등을 통해 호·불호를 암시하지 않기

나. 논쟁의 촉진자

- 학생이 거론하지 않는 쟁점을 제시하기
- 토론 미참여 학생의 발언을 유도하며 논쟁성을 유지하기

다. 논쟁의 조정자

- 논쟁 참여 학생이 타인에 대해 보이는 공격성을 지도하며 진행하기

6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 사례

주제: 아동노동 수업의 규제에 관한 토론

주제 설정 이유: 아동 노동의 국제적 실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토론 방식: 의회식 토론 토론

주제: 선거권 연령 확대 확대 논쟁

주제 설정 이유: 사회적 정서에 대한 논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고안한다.

토론 방식: 무동명 논쟁 수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모든 찬성 및 반대</td><td>- 논쟁주제 안내 및 찬반 의견 환성 - 의회식 토론 순서 안내</td></tr> <tr><td>모둠별 토론준비</td><td>- 역할 나누기(의견,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 자료조사 및 질문 만들기 / 핵심질문 준비하기</td></tr> <tr><td>결의안 제언 설명</td><td>- 국회의장이 정부 아동노동 결의안에 대한 제언 설명</td></tr> <tr><td>여당 측 모두연설</td><td>-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td></tr> <tr><td>야당 측 모두연설</td><td>-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td></tr> <tr><td>여당 측 반박연설</td><td>- 여당 측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 - 의사결정할만한 신빙 가능</td></tr> <tr><td>야당 측 반박연설</td><td>- 야당 측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 - 의사결정할만한 신빙 가능</td></tr> <tr><td>의결 안 자유토론</td><td>- 여당, 야당대표가 상대편을 지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설득하고 대립하는 과정 반복 - 의견 정리 → 반박 → 재설득 → 재반박(여의지 허용)</td></tr> <tr><td>여당 측 마무리 연설</td><td>- 여당 측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위한 - 모호시간 의사결정할만한 허용 안 됨</td></tr> <tr><td>야당 측 마무리 연설</td><td>- 야당 측의 결의안 거부 여부를 위한 - 모호시간 의사결정할만한 허용 안 됨</td></tr> <tr><td>결의안 채택</td><td>- 결의안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 - 당일 회의 - 정회를 통해 여당, 야당에 의견 청취-결의안 합의 여부 회의(의결회의 부결 시 투표 실시) - 결의안 채택 및 회의 종료</td></tr> </table>	모든 찬성 및 반대	- 논쟁주제 안내 및 찬반 의견 환성 - 의회식 토론 순서 안내	모둠별 토론준비	- 역할 나누기(의견,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 자료조사 및 질문 만들기 / 핵심질문 준비하기	결의안 제언 설명	- 국회의장이 정부 아동노동 결의안에 대한 제언 설명	여당 측 모두연설	-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	야당 측 모두연설	-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여당 측 반박연설	- 여당 측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 - 의사결정할만한 신빙 가능	야당 측 반박연설	- 야당 측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 - 의사결정할만한 신빙 가능	의결 안 자유토론	- 여당, 야당대표가 상대편을 지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설득하고 대립하는 과정 반복 - 의견 정리 → 반박 → 재설득 → 재반박(여의지 허용)	여당 측 마무리 연설	- 여당 측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위한 - 모호시간 의사결정할만한 허용 안 됨	야당 측 마무리 연설	- 야당 측의 결의안 거부 여부를 위한 - 모호시간 의사결정할만한 허용 안 됨	결의안 채택	- 결의안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 - 당일 회의 - 정회를 통해 여당, 야당에 의견 청취-결의안 합의 여부 회의(의결회의 부결 시 투표 실시) - 결의안 채택 및 회의 종료	<p style="text-align: center;">사례 II</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모든 찬성 및 반대</td><td>- 찬반 주제를 선정한 집단을 다시 각각 세 모둠 환성</td></tr> <tr><td>소주제 모둠별 논쟁</td><td>- 논쟁 주제에 따라 찬반으로 연설 - 교실 자리 배치(모든 3주제 논쟁 대결) - 논쟁 수업 진행 안내</td></tr> <tr><td>의사 채택시</td><td>- 3개의 모둠별 논쟁 주제 설정 및 논쟁(교사)</td></tr> <tr><td>대표 집론</td><td>- 해당 견해를 1인칭 대명사로 제시 - 찬성 측 집론, 반대 측 집론 - 숙의</td></tr> <tr><td>반론</td><td>- 반대 측 반론, 찬성 측 반론 - 숙의</td></tr> <tr><td>재반론</td><td>- 찬성 측 재반론, 반대 측 재반론</td></tr> <tr><td>합의결과</td><td>- 최종 찬성 → 최종 반대 → 최종 찬성 → 최종 반대</td></tr> <tr><td>최종연론</td><td>- 반대 측 최종 연론, 찬성 측 최종 연론</td></tr> <tr><td>수업 정리 및 종료</td><td>- 교사의 일괄 입장 정리 후 종료</td></tr> <tr><td>찬반이견 확인 및 의견 변동 결과 발표</td><td>- 수업 전 조사는 학생의견 발표와 수업 직후 조사 자료 비교</td></tr> <tr><td>소감발표</td><td>- 준비 및 논쟁 과정의 소감 발표</td></tr> </table>	모든 찬성 및 반대	- 찬반 주제를 선정한 집단을 다시 각각 세 모둠 환성	소주제 모둠별 논쟁	- 논쟁 주제에 따라 찬반으로 연설 - 교실 자리 배치(모든 3주제 논쟁 대결) - 논쟁 수업 진행 안내	의사 채택시	- 3개의 모둠별 논쟁 주제 설정 및 논쟁(교사)	대표 집론	- 해당 견해를 1인칭 대명사로 제시 - 찬성 측 집론, 반대 측 집론 - 숙의	반론	- 반대 측 반론, 찬성 측 반론 - 숙의	재반론	- 찬성 측 재반론, 반대 측 재반론	합의결과	- 최종 찬성 → 최종 반대 → 최종 찬성 → 최종 반대	최종연론	- 반대 측 최종 연론, 찬성 측 최종 연론	수업 정리 및 종료	- 교사의 일괄 입장 정리 후 종료	찬반이견 확인 및 의견 변동 결과 발표	- 수업 전 조사는 학생의견 발표와 수업 직후 조사 자료 비교	소감발표	- 준비 및 논쟁 과정의 소감 발표
모든 찬성 및 반대	- 논쟁주제 안내 및 찬반 의견 환성 - 의회식 토론 순서 안내																																												
모둠별 토론준비	- 역할 나누기(의견,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 자료조사 및 질문 만들기 / 핵심질문 준비하기																																												
결의안 제언 설명	- 국회의장이 정부 아동노동 결의안에 대한 제언 설명																																												
여당 측 모두연설	-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																																												
야당 측 모두연설	-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여당 측 반박연설	- 여당 측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 - 의사결정할만한 신빙 가능																																												
야당 측 반박연설	- 야당 측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 - 의사결정할만한 신빙 가능																																												
의결 안 자유토론	- 여당, 야당대표가 상대편을 지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설득하고 대립하는 과정 반복 - 의견 정리 → 반박 → 재설득 → 재반박(여의지 허용)																																												
여당 측 마무리 연설	- 여당 측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위한 - 모호시간 의사결정할만한 허용 안 됨																																												
야당 측 마무리 연설	- 야당 측의 결의안 거부 여부를 위한 - 모호시간 의사결정할만한 허용 안 됨																																												
결의안 채택	- 결의안 채택에 관한 의사결정 - 당일 회의 - 정회를 통해 여당, 야당에 의견 청취-결의안 합의 여부 회의(의결회의 부결 시 투표 실시) - 결의안 채택 및 회의 종료																																												
모든 찬성 및 반대	- 찬반 주제를 선정한 집단을 다시 각각 세 모둠 환성																																												
소주제 모둠별 논쟁	- 논쟁 주제에 따라 찬반으로 연설 - 교실 자리 배치(모든 3주제 논쟁 대결) - 논쟁 수업 진행 안내																																												
의사 채택시	- 3개의 모둠별 논쟁 주제 설정 및 논쟁(교사)																																												
대표 집론	- 해당 견해를 1인칭 대명사로 제시 - 찬성 측 집론, 반대 측 집론 - 숙의																																												
반론	- 반대 측 반론, 찬성 측 반론 - 숙의																																												
재반론	- 찬성 측 재반론, 반대 측 재반론																																												
합의결과	- 최종 찬성 → 최종 반대 → 최종 찬성 → 최종 반대																																												
최종연론	- 반대 측 최종 연론, 찬성 측 최종 연론																																												
수업 정리 및 종료	- 교사의 일괄 입장 정리 후 종료																																												
찬반이견 확인 및 의견 변동 결과 발표	- 수업 전 조사는 학생의견 발표와 수업 직후 조사 자료 비교																																												
소감발표	- 준비 및 논쟁 과정의 소감 발표																																												

기대효과

- 1. 사회적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2.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 향상이 목적이임을 이해한다.

기대효과

- 1. 선거권 연령 확대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는지 탐구한다.
- 2. 논쟁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연습을 한다.
- 3. 사회적 정서를 이성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능력을 기른다.

A | 시 대

역 | 지 사 지

공 | 존 | 형

토 | 로

수 | 어



II

중학교용
토론수업
자료



- 심화교재 -

II 중학교용 토론수업 자료

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 공존형 토론수업_생성형 시와 미술로 쟁점 탐구하기1 -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가 미술대회에서 1위를 하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입력으로 이미지와 영상이 자동 생성되는 오늘날, 매체의 발전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손에서 손의 복제, 기술의 복제에서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에서 생성형 정보 생산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예술의 철학과 실험은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시대 AI의 활용은 창작자, 창작, 해설자, 감상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사고 과정에 또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상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

AI시대에 학생들은 학습에서 인공지능 시각문화의 생태를 올바른 자료로 읽어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의 경험을 통해 매체로서의 기술을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물음, 창작과 창작자, 해설자, 감상자의 역할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의/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매체의 변화, 예술의 변화를 경험하고,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학습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 생각할 줄 알며, 자신의 주장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대상	미술, 중학교 2학년
논제	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주요 쟁점	1. 시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 중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2. 시가 생성한 이미지의 생산은 시와 인간 중 누구의 창작이라 볼 수 있는가? 3. 시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시와 인간 중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학습 목표	- 생성형 AI의 생성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예술 활동의 경계에 대한 쟁점을 구체화한다. - 다양한 관점으로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며, 작품 창작 활동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
교과 역량	창의·융합 역량, 시각적 소통 역량, 정체성 역량
성취 기준	[9미01-02] 시각 문화의 의미와 역할을 알고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9미02-03]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방법,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9미03-01]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미03-02]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업모형	탐구 및 실습-개별활동/토론-모둠 활동(4~6명)
에듀테크	디지털 붓(태블릿PC), 구글 플랫폼(클래스룸, 프레젠테이션, 공유 드라이브), MS 생성형 AI 플랫폼(이미지 크리에이터)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문헌(읽기 활동 발췌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애 외,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아트, 길벗 캠퍼스, 2023. - 장병탁 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 기타 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AI와 예술①] AI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AIT타임즈, 2024.10.28.)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808 - [현실에 없는 인물 사진 만드는 인공지능 웹사이트 등장 (IT조선, 2019.10.2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21801066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K] 미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논란 일파만파 (KBS 2022.09.07.) https://youtu.be/6alFjze_LVc?feature=shared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 이미지 크리에이터(코파일럿) 사용 방법 - 스마트폰 코파일럿 이용방법_인공지능을 1도 몰라도 누구나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_copilot 앱 설치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https://youtu.be/sd_HV3Wjn4E?feature=shared
참고 용어	GAN/멀티모달 기술/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AI윤리/AI저작권/AI창의성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총 6차시, 1차시 45분 수업, 블록 타임 수업 진행)





차시	학습 주제	주요 학습 활동	학습과정	디지털 도구
1~2 (90분)	나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생성형 AI 살펴보기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생성형 AI 적용된 이슈/사례 살펴보기(긍정,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드저니 생성형 AI 예술 1위 등 ■ 생성형 AI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N, 프롬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개인정보, 저작권, 창의성 이슈 탐구 	사례 살펴보기	구글 클래스룸, 구글 검색도구,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생성형 AI 이해하기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와 예술의 맥락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의 변화에 따른 미술의 맥락 - 작품, 작가, 해설자, 감상자 역할변화 	읽고 탐구하기 / 정리하기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3~4 (90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아이디어 계획하기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아이디어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역지사지 토의하기 	생성하기 (결과물 : 아이디어 계획서 / 이미지 생성하기)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노트 앱, 이미지 크리에이터 (생성형AI서비스)
	이미지 생성 및 설명하기(생성노트) [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활용 이해 ■ 생성 의도 및 설명(작업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롬프트 기록 및 설명 		
5~6 (90분)	학교 미술시간, 생성형 AI로 생성된 나의 과제(이미지)는 '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토론하기]	[생성 결과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논제 및 쟁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논제 및 쟁점 확인 - 논제에 쟁점 살피기/가치판단 ■ 토론 개요서 작성(숙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개요서 작성 - 주장에 따른 근거 제시하기 - 참고 자료 점검하기 ■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에 따라 찬반 토론하기 ■ 쟁점 분석하기(숙의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입장 주장내용 살펴보고 이해하기 ■ 가치/관점 정리하기(준중하기)(숙의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토론 주장 가치 이해 및 정리 - 평가 및 피드백 ■ 성장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배운 점, 느낀 점, 보완할 점) 	논제 및 쟁점 분석/ 토론하기/ 숙의과정/ 정리하기	이미지 크리에이터(MS), 구글 공유드라이브, 구글 프레젠테이션



활동 주제	[토론하기] 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차시	5-6 (9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의 생성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예술 활동의 경계에 대한 쟁점을 구체화한다. - 다양한 관점으로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며, 작품 창작 활동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내용	자료(㉔) 및 유의점(※)	
열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적용 사례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예술의 맥락 변천 확인 -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 경험과 과정, 산출물 감상 - 매체 발전과 작품형식에 따른 창작자, 작품, 해설자, 감상자, 전시 공간의 변화 ● 학습 목표 확인 	※ 읽기 자료의 핵심 내용을 상기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매체 활용 과정을 기존 예술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와 비교하여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토론과정 펼치기 (7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p>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p> </div> <p>[안내 및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활동 안내 : 4-6인 1조, 모둠 활동으로 진행 ✓ 활동 과정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제/쟁점확인/토론 개요서 작성/토론하기/쟁점분석 및 숙의과정/가치판단과 관점 정리 ✓ 자료 활용 안내 (출처 밝히기) : 참고문헌 및 웹 자료 ✓ 과제 활용 에듀테크 안내 :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p>[활동1] : 토론 주제 및 쟁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 확인하기 - 토론 쟁점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 중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2. 시가 생성한 이미지의 생산은 시와 인간 중 누구의 창작이라 볼 수 있는가? 3. 시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시와 인간 중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div>	㉔준비물 - 태블릿 - 구글계정 (본인학번@학교.sen.ms.kr) - 구글 클래스룸 - 구글 프레젠테이션 (과제작성)	

<p>토론과정 펼치기 (70분)</p>	<p>[활동2] :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숙의①) - 쟁점에 따른 입장 설정하기 - 선택 입장에 타당한 주장과 근거 제시하기(인간VS기계) - 주장 근거자료(참고문헌, 웹 자료) 정리 및 확인하기 - 과제 작성 및 제출1(구글 프레젠테이션) 📄</p> <p>[활동3] : 토론하기 - 쟁점에 따른 주장 제시 및 상대측 주장 살피며 토론하기 - 주장 반박 및 설득하기</p> <p>[활동4] : 토론 쟁점 분석하기(숙의②) - 토론 내용 및 양측 주장 정리하기 - 공통점/차이점 분석하기 - 합의 가능한 점 혹은 공통점/차이점/존중할 점 살피기 - 과제 작성 및 제출2(구글 프레젠테이션) 📄</p> <p>[활동5] : 토론을 통한 가치판단과 관점 존중하기(숙의③) - 쟁점에 대한 가치판단과 관점 이해하기/존중하기 - 과제 작성 및 제출3(구글 프레젠테이션) 📄</p>	<p>※ 생성형 AI 활용 경험과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주장을 정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안내한다.</p>
<p>다지기 (10분)</p>	<p>● 토론 활동 정리 및 피드백 - 토론의 과정 평가와 피드백(구글 클래스룸 질문하기 활용)</p> <p>● 정리하기 -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 과제 작성 및 제출4(구글 프레젠테이션) 📄</p>	<p>※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갖춰 펼치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여 더 나은 방향의 결론을 도출하거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과정임을 안내한다.</p>
<p>성장 Tip</p>	<p>● 평가 준거 - 생성형 AI와 작품에 대한 쟁점에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는가? - 올바른 자료(검증된)를 활용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공존을 위한 가치판단으로 다양한 주장과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었는가?</p>	

가. 세부 학습 과정 안내

활동 안내 및 준비 사항	
모둠 활동	4-6인 1조, 모둠 활동으로 진행
활동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 및 쟁점 확인 - 입장 정하기/모둠 구성하기 - 토론 개요서 작성(숙의①) - 토론하기 - 쟁점 분석 및 숙의(숙의②) -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숙의③) -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자료 활용	참고문헌 및 웹 자료(출처 밝히기)
과제 활용 에듀테크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수업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은 긍정측/부정측 각각 인원수를 맞추어(2:2, 3:3)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모둠 활동으로 운영한다. 각 모둠은 논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한다. 또한 모둠은 입장에 따라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숙의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개요서 작성으로 주장과 근거가 정리되면 토론을 진행한다. 주장과 반박을 통해 근거를 갖추어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한다. 제한 시간 설정과 함께 토론이 끝나면 쟁점 분석을 통해 각각의 쟁점에 따른 의견들의 합의가 가능한지 모색하고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정리하는 숙의 과정 ②를 거친다. 이를 토대로 각자 다른 입장에 대한 가치판단과 함께 관점을 정리하는 숙의③ 과정을 거친다. 쟁점에 따른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토론을 마무리한다. 이후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토론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보완할 점을 기록하고 발표를 통해 성장을 나누도록 한다.

나. 현안 이해

- 학교 미술 시간에 디지털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산하면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창작 수업에서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 생성형 AI 이미지의 창작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일까?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을까?

텍스트의 입력으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버리는 '생성형 AI'가 학교 교육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대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험적인 상황들에 마주하고 있다. 학교 미술 시간에 디지털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산하게 되면 다양한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다. 주제에 대한 상상력과 작품 제작을 위한 깊이 있는 아이디어 발현을 위한 사고 과정 없이 텍스트만 입력해서 얻는 결과가 과연 나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작품으로 인정 및 존중받을 수 있을까? 생산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기계일까? 나일까?, 창작자는 나와 기계 중 누구라고 인정받아야 마땅할까? 또한 이것을 과연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여 산출한 이미지인데 저작권은 나와 기계 혹은 다른 누구에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등의 질문 등이 도출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논란 속에서 자신의 기준과 관점을 갖고 근거를 갖추어 자신의 주장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고, 다른 관점에서의 입장과 주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론을 위해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매체의 발전과 예술의 맥락의 변천을 함께 탐구하고, 시대의 이슈와 함께 오늘날 생성형 AI로 생산된 이미지들을 예술로 인정하거나, 할 수 없음에 대한 가치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매체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고,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 따른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미술 시간에 디지털 생성형 AI의 이해 및 생성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론 논제와 쟁점을 탐구하여, AI로 생산된 이미지가 과연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경험한다. 나와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토론 쟁점 파악 및 개요 작성 

가. 쟁점 파악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의 생성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예술 활동의 경계에 대한 쟁점을 구체화한다. ■ 다양한 관점으로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며, 작품 창작 활동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 	<p>차시</p>	<p>5-6 (블록타임)90분</p>
<p>토론 주제</p>	<p>AI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p>		
<p>토론 쟁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 중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2.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생산은 AI와 인간 중 누구의 창작이라 볼 수 있는가? 3.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AI와 인간 중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토론 주제를 확인하고, 1~4차시의 경험에 기반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다. 긍정측(3명), 부정측(3명)의 모둠으로 구성하고, 토론 주제에 따른 쟁점을 확인한다. 쟁점을 구체화하여 주장-이유-근거 등의 논증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게 하고 정리한다.

나. 토론 개요서 작성(숙의①)

토론 개요서	
<p>토론 주제</p>	<p>AI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p>
<p>토론 쟁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 중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2.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생산은 AI와 인간 중 누구의 창작이라 볼 수 있는가? 3.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AI와 인간 중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쟁점 구체화		긍정측	부정측
쟁점 1	주장 (이유)	시가 만든 이미지는 AI(기계)의 작품이다.	시가 만든 이미지는 나(인간)의 작품이다.
	근거	- 생성형AI 이미지는 시가 스스로가 이미지를 선택 및 변형 생산하기 때문 시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생성형AI 이미지의 생산을 유도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프롬프트 등 주제의 출발 자체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이다.
	참고 문헌	(읽기 자료) 이슈 읽기 : AI와 미술의 만남 '생성형 시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미술대회 1위를 차지하다.' (참고)	(읽기 자료) 생성형 AI의 활용 과정 : 글로 생성하는 AI(참고)
쟁점 2	주장 (이유)	시로 만든 이미지의 창작은 AI(기계)의 창작이다.	시로 만든 이미지의 창작은 나(인간)의 창작이다.
	근거	- 생성형 시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블랙박스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키워드와 입력어의 제시는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선택 제시된다. 따라서 생성형 시는 하나의 새로운 매체일뿐 창작 주체는 인간이다.
	참고 문헌	(읽기 자료) 새기술 : 생성형 AI와 이미지의 형식(참고)	(읽기 자료) 1. 기술과 예술의 역사 : 생성형 AI와 예술-매체에 따른 예술의 변화 2. 개념 읽기 :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참고)
쟁점 3	주장 (이유)	시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AI(기계)에게 있다.	시가 만든 이미지는 시를 활용한 나(인간)에게 있다.
	근거	- 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변형 조합해 스스로 생산 및 창작하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이미지는 AI 자체에 있다.	- 시의 빅데이터는 다수의 정보를 활용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고 과정의 출발은 인간이기에 저작권은 인간에게 있다.
	참고 문헌	(읽기 자료) AI 아트 논의 이슈 읽기 : 윤리, 저작권, 창의성(참고)	(읽기 자료) AI 아트 논의 이슈 읽기 : 윤리, 저작권, 창의성(참고)

토론 주제 '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를 통해 긍정측과 부정측의 입장으로 나누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며,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과 웹 자료 등의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은 경쟁과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장을 근거를 갖추어 설득하기 위함임을 안내한다.

다. 토론 쟁점 분석(숙의②)

토론 쟁점 분석		
토론 주제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토론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 중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2.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생산은 AI와 인간 중 누구의 창작이라 볼 수 있는가? 3.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AI와 인간 중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쟁점 1	공통점	이미지 생산에 있어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차이점	생성형 AI 이미지의 주체가 기계와 인간으로 대립된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인공지능 스스로 생산이기에 기계의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간의 창작 주체와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대립된다.
쟁점 2	공통점	두 관점 모두 AI의 이미지 생산은 창작이라고 본다.
	차이점	생성형 AI의 이미지는 기계 스스로 이미지의 선택, 변형, 조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창작이라고 보는 관점과 인간의 사고과정을 통한 도구로서의 활용의 입장에서 인간의 창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쟁점 3	공통점	AI가 만든 이미지라도 저작권은 존재해야 한다.
	차이점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AI 스스로가 생산했기 때문에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 인간이 주도하고 매체로서 AI를 활용하였기에 인간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된다.
정리	<p>AI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작품'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제작 주체를 기계와 인간으로 구분지어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p> <p>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하나의 창작이라고 보고, 기계와 인간 각각의 창작가라고 대립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p> <p>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의 주체를 기계와 인간 대립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p>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기반으로 쟁점을 분석하여 숙의②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여, 합의하거나 공통점, 다른 점 즉 차이점을 발견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존중과 포용의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숙의③)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하기	
토론 주제	시로 생성한 이미지를 '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토론 쟁점	1. 시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는 기계와 인간 중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2. 시가 생성한 이미지의 생산은 시와 인간 중 누구의 창작이라 볼 수 있는가? 3. 시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시와 인간 중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쟁점1	시대가 변하는 만큼 매체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생성형 시의 활용은 오늘날의 미디어를 새롭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창작의 매체이자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작품의 주체를 기계와 인간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쟁점2	생성형 시의 생산과정이 블랙박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을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과정도 있기에 창작의 주체를 시에게 두는 관점도 있는 반면, 인간의 사고과정과 프롬프트의 엔지니어링을 통한 주도성을 생각한다면 창작 주체가 인간이라는 관점이 주장됨을 인정해야 한다.
쟁점3	창작품에는 저작권이 있다.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부여되었던 법적 권리인 저작권이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감지하고, 입장에 따라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고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통찰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존중하기	처음에는 각각의 주장에 따라 찬반 의견에 대한 대립을 위해 살폈는데, 참고 자료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니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대가 지날수록 매체가 변할수록 관점이 입장에 따라 공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토론 논제와 쟁점에 따른 입장이 관점에 따라 다르기에 (숙의③)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치를 모두 이해하여 존중함으로써 공존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6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성장 확인하기	
배운 점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올바른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음을 알았고, 찬반에 대한 가치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관점에서의 주장이 모두 공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느낀 점	나의 주장만이 타당한 줄 알았는데 친구들의 주장과 근거를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나의 주장만이 옳다는 편견을 반성했다.
보완할 점	주장은 확실한데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살짝 부족했던 것 같다. 보다 올바른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배운 점, 느낀 점, 보완할 점을 정리하여 개인별 성장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성장 확인하기를 작성하면 발표를 통해 경험을 공유한다.



가. 이슈 읽기 : 시와 미술의 만남 ‘생성형 시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미술대회 1위를 차지하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Theatre D'opera Spatial〉
제이슨 M. 앨런



〈전기공 The Electrician〉
보리스 셸다크젠

2022년 9월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제이슨 M. 앨런이 AI 생성 모델인 미드저니를 이용해 제작하고 출품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SWPA(sSony World Photography Award)의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분에서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셸다크젠이 AI 모델로 제작하고 출품한 작품 〈전기공 The Electrician〉이 우수작으로 뽑혔으나 수상을 거부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이미지가 저명한 미술 및 사진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외, 생성형 시를 활용한 인공지능 아트, 길벗캠퍼스, 2023, p.17〉

[기획:시와 예술①] 시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AI)이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예술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예술 창작의 전통적 개념을 재정립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예술가와 평론가, 대중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 시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깊이 있는 철학적, 미학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예술 창작이란 인간의 감정, 경험, 창의성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여 작품을 만들어 낸다. 이 점에서 시가 창작하는 과정은 인간의 창의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시가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간과 협업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도 있다.

• AI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인정 범위

또한 AI가 생성한 작품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AI가 창작한 작품이 전시회나 경연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이는 AI 자체의 창의성보다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획력과 방향성이 주로 평가되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이슨 M. 앨런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을 AI 도구인 '미드저니'를 사용해 창작하고, 그 작품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작품이 예술로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AI 그림의 저작권 문제

AI가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 문제는 또 다른 복잡한 이슈다. 현재 많은 나라의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가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I 도구를 사용한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예술계에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예술적 영역 침범은 예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AI가 예술 창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현대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러나 예술의 정의와 그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논의는 AI 기술 발전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한다.

관련 참고기사(AI타임즈, 2024.10. 28.)

<https://www.aite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808>

관련 참고 영상 https://youtu.be/6alFjze_LVc?feature=shared

나. 개념 읽기 : GAN, 멀티모달 기술,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인공지능과 이미지

인공지능은 최근 생성형AI를 통해서 예술 분야에도 기여하고 있다. 딥러닝 모델의 일종인 컨볼루션 신경망(CNN)은 처음부터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전체 이미지가 입력되면 CNN은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이미지를 여러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CNN 구조는 입력 이미지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거나 분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감독 학습 방법으로 학습한다. 즉 입력에 주어진 영상이 무슨 물체인지 구별하도록 학습한다.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주면 이를 구별하는 것은 잘하나, 새로운 강아지 사진을 생성하지는 못한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은 새로운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강아지 사진, 즉 가짜 강아지 사진(그렇지만 진짜와 구별이 안 가는)도 합성해 낼 수 있다. ... 딥러닝 과정에서 생성기는 끊임없이 거짓 예제를 만들고, 판별기는 실제 데이터와 만들어진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와 같이 판별기를 속일

수 있도록 생성기를 훈련하는 방식을 적대적 학습이라고 한다. 딥러닝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며 학습함으로써, 생성모델은 점점 실제와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며, 그 반대는 더 실제와 가짜 데이터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생성기가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것을 생성하는 생성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이미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하나 주면 비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다. ...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의 제작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시작하는 장면과 끝 장면만 주어진다면 중간에 이어지는 나머지 장면들이 AI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 생성형 AI 모델의 또 다른 예는, 2차원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학습한 후 3차원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합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물체를 카메라로 돌아가면서 촬영한 후 이들의 2차원 사진들을 합성하여 3차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쓸 수 있다.

멀티모달 AI 기술은 하나의 모달리티를 넘어서 두 개나 그 이상의 모달리티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글자로 입력을 받아서 그림과 글로 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림을 입력하여 글을 생성할 수도 있고(이를 이미지 캡셔닝이라 한다) 반대로 글을 입력받아서 그림을 생성할 수도 있다(영상 합성에 해당한다)

현재 챗 GPT의 한 가지 한계는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환각 현상을 가지며, 따라서 진실이 아닌 문장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텍스트로만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장병탁 외 7인, AI, 예술의 미래를 본다, 시공아트, 2024, pp.32-39〉

• 이미지 생성 ;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은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I에게 제공하는 입력, 즉 “프롬프트”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문장이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GPT-3과 같은 언어 모델에게 “오늘의 날씨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의 프롬프트입니다. 또다른 예로, Text-to-Image AI에 “노을이 지는 바다를 그려봐.”라는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AI는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노을이 지는 바다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런 프롬프트는 시가 생성할 응답의 품질과 관련성을 크게 결정하는데, 때로는 동일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요청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AI에게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AI가 무엇을 생성할지, 어떤 스타일이나 톤으로 표현할지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후기인상파 스타일로 그린 분홍색 꽃잎이 있는 벚꽃 이미지”와 같이 명확한 지시, 스타일 지정, 제한사항 설정을 모두 활용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프롬프트는 AI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할 수 있어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프롬프트가 항상 완벽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AI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결과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에 없는 내용이나 스타일을 요구하는 프롬프트는 AI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영애 외,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아트, 길벗캠퍼스, 2023, pp.30-37〉

다. 생성형 AI의 활용 과정 : 글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 생성형 AI 서비스와 다양한 스타일 이미지 생산

다양한 조합의 프롬프트는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인 미드저니, 블로윌로우,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있고, 한글 입력이 가능한 AI 모델은 블루윌로우, Bing Image Creator 등이 있으며, 본인이 주로 사용할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미술 사조, 재료별,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양한 AI 모델은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식, 생성하는 방식, 범위를 벗어나는 값에 대한 오류 처리방식, 규정에 어긋난 내용을 포함한 프롬프트에 대한 처리방식 등의 세부 처리 과정이 각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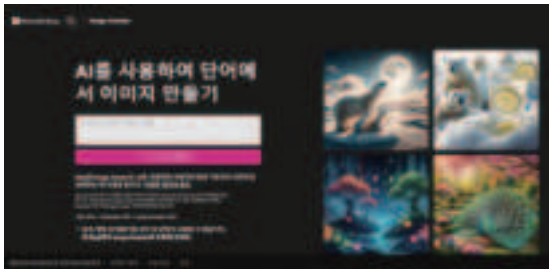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과정의 예시〉

빙 Image Creator(M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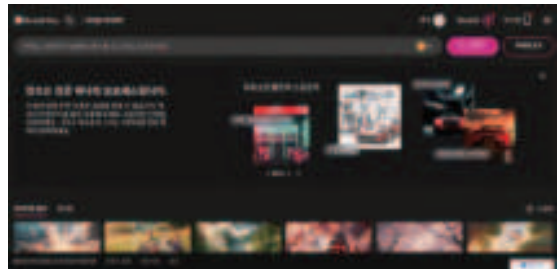
- ① 사이트 접속 옛지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http://bing.com/create' 입력하거나, 검색창에서 'image creator' 검색
- ② 프롬프트 입력 (한글가능) 공식적 권장형식 '형용사+명사+동사+스타일'

프롬프트 예) 귀여운 고양이가 거실에서 체스를 두고 있다, 디지털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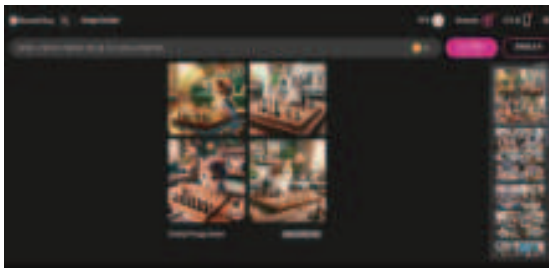
- 입력창에 프롬프트 입력 후 <만들기> 버튼 클릭
-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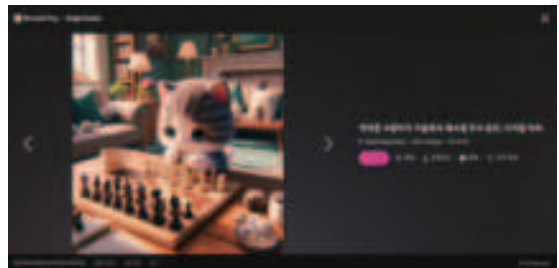
계정 로그인



프롬프트 입력/만들기



이미지 생성



선택 후 다운로드

〈김영애 외,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아트, 길벗캠퍼스, 2023, pp.30-37〉

라. 기술과 예술의 역사 : 생성형 AI와 예술-매체에 따른 예술의 변화

• 기술과 예술의 변증법

새로운 기술은 늘 예술을 변화시켜 왔다. 예를 들어, 피사체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움직임의 한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사진은 회화와는 전혀 다른 시간 이미지를 제공했고, 그 순간 이미지들의 연쇄에 기반한 영화는 유례없던 움직임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스틸 이미지, 무빙 이미지, 사운드와 텍스트 등 이전까지의 모든 매체를 자유롭게 조작,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동시에 예술작품의 존재 방식을 바꾸었다. 미술관이나 연주회장에 가지 않고도 어디서든 미술, 음악, 연극, 공연 등을 작품 창작의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기술이 이처럼 작품의 창작 방식은 물론, 작품의 존재 방식과 감상 방식까지 변화시키면서 이전까지 예술의 개념과 범주 자체를 혁신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의 예술 개념-예술의 재료, 예술가의 지위, 관객과 예술과의 관계, 작품의 지위와 양상 등 자체를 해체 시키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에 맞서 과거의 예술 규범을 옹호하려는 입장이 등장한다.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던 샤를 보들레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역사는 기술 혁신의 편에 서 있기에, 새로운 기술의 여파는 결국 이전까지 예술의 규범 및 개념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건 그 기술만이 제공하는 고유한 가능성들이다. 회화는 불가능했던 사진만의 가능성, 예를 들어 순간 포착, 글로즈업, 시점 등이, 영화 필름을 잘라 붙이는 편집 몽타주를 통해 놀라운 효과가 생겨난다는 사실이, TV 수신 장치를 조작하여 전송되는 신호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백남준 작가에 의해) 등이 발견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는 작품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고 수용되기에 그로부터 생겨나는 예술적, 미학적 이슈 또한 크게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예술적 현상과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정의와 규범, 가치, 곧 새로운 예술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기술이다. 숨 가쁜 속도로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많은 이들이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텍스트와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전까지의 예술 형식을 모방하는 이런 생산물들은 인공지능 기술과 우리시대 예술이 그 첫 번째 관계의 국면에 들어서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은 이전까지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급진적으로 (인간) 예술가의 지위, 작품의 생산 방식, 예술가와 작품, 관람자의 관계 등을 해체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은 예술을 창작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결국 지금까지 예술의 형식과 규범은 물론,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기술로 이전의 예술 형식을 모방하는 현재의 생산물들을 두고 예술이나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장치 예술의 개념 자체를 바꾸게 될 이 기술의 고유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무엇인가를 가능해 보는 것이다.

(장병탁 외 7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pp.105-108)

마. 새 기술 : 생성형 AI와 이미지의 형식

우리는 챗GPT, 달리, 미드저니, 이미지 크리에이터(빙) 등 출시된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그림, 사운드 텍스트, 영상 등의 결과물을 편의상 '인공지능 예술'이라 부른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의 이 생산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의 예술형식과 다르다.

첫째, 인공지능은 지표성(Indexicality)이 없는 리얼리즘적 이미지를 생성한다. (아날로그) 사진이 등장한 후 이미지는 실재하는 대상을 '찍은' 사진 이미지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그린' 비(非)사진적 이미지로 구분되어 왔다. 사진이미지가 회화나 드로잉 같은 비사진적 이미지와 구별되는 이유는, 사진에 찍힌 대상이 적어도 촬영되는 시점에 카메라 렌즈 앞에 '있었음'을 증거하는 지표Index라는 점이였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은 사진적 이미지와 비사진적 이미지의 구분을 해체시켰다.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사진적 (리얼리즘)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재하지 않으나 실재하는 것처럼 지각되는 이미지를 만드는 디지털 기술의 지각적 리얼리즘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극대화 된다.



<https://thispersondoesnotexist.com/>

컴퓨터 엔지니어 필립 왕(Philip Wang)이 적대적 신경망(GAN)을 활용해 2018년도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제작하였으며, 제목 그대로, 실재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보여준다.

관련 참고기사(IT조선, 2019.10. 28.)

현실에 없는 인물 사진 만드는 인공지능 웹사이트 등장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21801066>

둘째,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모든 시각 이미지의 형식을 재매개re-mediation 한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대상 받아 논란이 된 제이슨 알렌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2022)>나, 2023년 소니 사진전에 상을 받은 보리스 엘닥센의 <위기역: 전기 기술자(2023)> 등은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예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례들이다. 이 작품들이 그런 질문을 촉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회화나 사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시각 이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유화, 수채화, 드로잉, 만화,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 등 이전까지 등장한 거의 모든 시각 이미지의 매체/형식을 다시 매개한다. 그 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반 고흐나 렘브란트, 피카소 등 기존 유명 미술 작가들의 스타일까지도 재매개한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습, 활동을 통해 확립되던 시각 이미지의 형식이나 스타일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면, 이제 이미지를 창작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셋째, 생성 인공지능 틀은 서로 다른 매체들 사이의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에 기반해 작동한다. 미드저니나 달리, 이미지 크리에이터(빙) 등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틀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프롬프트)에 의거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텍스트에 의한 묘사를 시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시인들은 풍경이나 그림을 텍스트로 읊고,

화가들은 시나 소설, 아니면 음악을 그림으로 변환해 왔는데, 이는 지금까지 인간 예술활동의 주요한 방법이었다.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이처럼 서로 다른 매체 사이의 변환/번역이라는 상호매체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이 열린다.

근래에 선보이고 있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영상, 사운드 사이의 상호 변환도 가능하게 했다. ...상호매체적 실천은 인간의 예술적 상상력 확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데이터 처리방식의 혁신에 기반한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상호 매체성은 그러한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장병탁 외 7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pp.109-114〉

바. AI 아트 논의 이슈 읽기 ; 윤리, 저작권, 창의성

• AI 아트의 윤리

AI 아트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그 배후에는 다양한 윤리적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는 종종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 데이터는 종종 인터넷에서 수집되며,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모아 아트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불온한 이미지나 민감한 주제를 다룬 아트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AI를 개발한 사람인지, 아니면 AI를 이용한 사람인지, 혹은 AI 자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AI 아트의 저작권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일반적으로, 아트 작품의 저작권은 그 작품을 창작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이용해 아트를 생성하는 경우, '창작자'를 정의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AI를 개발한 개발자, AI를 학습시킨 개발자,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생성한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창작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 체계에서는 비인주체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잡합니다.

AI의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AI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종종 다른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서 추출됩니다. AI가 이러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에 제한을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AI는 DRM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AI 아트의 창의성

AI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 기반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창의성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AI는 학습한 패턴을 따르는 것이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반복적이며

예측가능합니다. 반면, 인간의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도출 해내는 능력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아트는 새로운 형태를 가질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인간이 만들어 낸 창의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AI에게 제공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므로, 그 창의성은 인간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창의성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며, 우리가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김영애 외,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아트, 길벗캠퍼스, 2023, pp.23-26〉

8

참고 자료

- 김영애 외,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아트, 길벗캠퍼스, 2023.
장병탁 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기획:AI와 예술①] AI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AI타임즈, 2024.10. 28.)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808>
- 현실에 없는 인물 사진 만드는 인공지능 웹사이트 등장 (IT조선, 2019.10. 2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21801066>
- [글로벌K] 미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논란 일파만파 (KBS 2022.09.07.)
https://youtu.be/6alFjze_LVc?feature=shared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부제: 표현의 자유와 침해 속 사진과 AI, 그리고 SNS)

- 공존형 토론수업_생성형 AI와 미술로 쟁점 탐구하기2 -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클릭 한 번으로 이미지가 단번에 생성되는 시대, 딥페이크 기술로 현실과 가상이 잘 구별되지 않는 시대, 멈추지 않는 시대의 변화 속 학생들은 생성형 AI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을까? 또한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생성형 AI에 대해 유희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본 수업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성형 AI로 인한 삶과 시각문화의 변화와 그 사회 이슈 사례들을 조사 및 탐구, 분석하고, 학생들의 삶 속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판단,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위한 토론 활동을 통해 AI 활용으로 만들어지는 예술과 유희, 그리고 폭력에 대한 예민한 경계에 대해 주도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미지와 AI 접근과 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다양한 관점의 이해와 존중으로 AI 윤리를 갖추어 자신을 삶을 성찰하고, 타인을 존중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이 가능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대상	미술, 중학교 2학년
논제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부제: 표현의 자유와 침해 속 사진과 AI, 그리고 SNS)
주요 쟁점	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내가 찍은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될까? 3.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학습 목표	토론을 통해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과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쟁점의 구체화와 분석하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교과 역량	시각적 소통 역량, 정체성 역량, 공동체 역량
성취 기준	<p>[9미01-02] 시각 문화의 의미와 역할을 알고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p> <p>[9미02-03]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방법,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9미03-02]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p> <p>[9미03-04] 미술의 다원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술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고 공동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p>
수업모형	탐구활동 및 토론활동-모둠 활동(4~6명), 실기활동-개별활동
에듀테크	디지털 붓(태블릿PC), 구글 플랫폼(클래스룸, 프레젠테이션, 공유 드라이브), MS 생성형 AI 플랫폼(이미지 크리에이터)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문헌(읽기 활동 발췌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탁 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 김진엽, 예술에 대한 여덟가지 답변의 역사, 우리학교, 2024 - 제리 카플란,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한스미디어, 2024 ● 기타 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어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상식사전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세계미술용어사전 - AI용어사전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 엄마 아빠, SNS 속 내 사진을 지워줘요! (EBS NEWS 2024.02.16.)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46355/N#none - 뉴스2) 친구 폰에 내 얼굴이 가득?...10초면 가능했다, 학교 '발각' (KBS 2024.07.12.) https://youtu.be/N5Oxap6IR-0?feature=shared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딥페이크의 어두운 면 부상...탐지기술 시급하지만 다원주의적 관점도 필요해 [글_한국정보보호학회 권태경 상임이사] 보안뉴스(www.boannews.com) (원문)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7035 원병철기자
참고 용어	초상권, 전송권, 몽타주,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총 4차시, 1차시 45분 수업, 블록 타임 수업 진행)

탐구	역지사지 토론하기				경험	실천
	토론 과정					
읽어내기	→ 논제 및 쟁점 확인 (숙의①)	→ 토론하기	→ 토론 쟁점 분석 (숙의②)	→ 존중하기 (숙의③)	→ 생산	→ 공유
생성형 AI의 긍정/부정 사례분석/ 탐구	쟁점 분석 및 토론 개요서 작성	찬반 토론	양측 입장 분석 / 상대 입장 이해	다양한 관점의 가치판단 정리하기	올바른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 생산	소통과 평가
사회 이슈 살피기	<쟁점 확인/개요서 작성>	<찬반 토론>	<쟁점 분석/숙의과정>	<가치판단/정리>	실습 경험	삶 속으로의 실천
	2(2)				1(3)	1(4)

3 차시별 학습 주제와 활동 안내

차시	학습 주제	주요 학습 활동	학습과정	디지털 도구
1~2 (90분)	생성형 AI 이미지 적용 사례 분석 및 탐구하기 [사회 이슈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생성형 AI 적용된 사례 탐구하기 (긍정,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예술작품/피해 사례 탐구하기 (사회/청소년 문화 등, 유희/지인능욕/ 합성/ 몽타주) ● 나의 생활 속 생성형 AI,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사진, 타인의 사진, 합성사진 활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나의 사진 생성형 AI 생산 후 SNS 업로드와 지켜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가? 	사례탐구 질문하기	구글 클래스룸, 구글 검색도구, 구글 프레젠테이션

	<p>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편집하여 SNS에 업로드해도 될까?</p> <p>[토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논제 및 쟁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논제 및 쟁점 확인 - 논제에 쟁점 살피기/가치판단 ● 토론 개요서 작성(숙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개요서 작성 - 주장에 따른 근거 제시하기 - 참고 자료 점검하기 ●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에 따라 찬반 토론하기 ● 쟁점 분석하기(숙의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입장 주장 내용 살펴보고 이해하기 ● 가치/관점 정리하기(존중하기)(숙의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토론 주장 가치 이해 및 정리 - 평가 및 피드백 ● 성장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배운 점, 느낀 점, 보완할 점) 	<p>토론하기 쟁점분석 가치판단 관점정리</p>	<p>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p>
<p>3~4 (90분)</p>	<p>올바른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캠페인 이미지 생성하기</p> <p>[생성 적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활용 아이디어 정리 ●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아이디어 계획하기 - 프롬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계획 - 아이디어 역지사지 토의하기 	<p>생성하기</p>	<p>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노트 앱</p>
	<p>이미지 생성 및 설명하기(생성노트)</p> <p>[발표 및 공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생성 의도 및 설명(작업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의도 설명 - 프롬프트 기록 및 과정 설명 ● 평가 및 피드백 	<p>평가 피드백</p>	
<p>연계활동</p>	<p>생활 속의 실천 (전시 및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 이미지 결과물 전시 및 게시 ● 캠페인 및 소통하기 		<p>코파일럿(MS), 구글 공유드라이브, 구글 프레젠테이션</p>





활동 주제	[토론하기]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차시	1-2 (90분)
학습 목표	토론을 통해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과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쟁점의 구체화와 분석하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내용	자료(㉔) 및 유의점(※)	
열기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의 생성형 AI 적용 사례와 청소년 유희로서의 AI활용사례 ● 학습 목표 확인 ● 생성형 AI 적용 사례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과 생성형 AI가 적용된 긍정/부정 사례 조사 및 탐구하기 - 생성형 AI의 긍정/부정 경계 살피기 ● 우리 생활 속 생성형 AI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사진, 타인의 사진, 합성사진 활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나의 사진 생성형 AI 생산 후 SNS 업로드와 지켜야 할 선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 	㉔(뉴스) 친구 폰에 내 얼굴이 가득?...10초면 가능했다, 학교 '발각' / KBS 2024.07.12. https://youtu.be/N5Oxap6IR-0?feature=shared	
토론과정 펼치기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p>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p> </div> <p>[안내 및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활동 안내 : 4-6인 1조, 모둠 활동으로 진행 ✓ 활동 과정 안내 : 논제/쟁점확인/토론 개요서 작성/토론하기/쟁점분석 및 숙의과정/가치판단과 관점 정리 ✓ 자료 활용 안내 (출처 밝히기) : 참고문헌 및 웹 자료 ✓ 과제 활용 에듀테크 안내 :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p>[활동1: 토론 주제 및 쟁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제 확인하기 - 토론 쟁점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내가 찍은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될까? 3.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div>	㉔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 - 구글계정 (본인학번@학교.sen.ms.kr) - 구글 클래스룸 - 구글 프레젠테이션 (과제작성) 	

<p>토론과정 펼치기 (50분)</p>	<p>[활동2: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숙의①)] - 쟁점에 따른 입장 설정하기 - 선택 입장에 타당한 주장과 근거 제시하기(인간VS기계) - 주장 근거자료(참고문헌, 웹 자료) 정리 및 확인하기 - 과제 작성 및 제출1(구글 프레젠테이션) 📄</p> <p>[활동3: 토론하기] - 쟁점에 따른 주장 제시 및 상대측 주장 살피며 토론하기 - 주장 반박 및 설득하기</p> <p>[활동4: 토론 쟁점 분석하기(숙의②)] - 토론 내용 및 양측 주장 정리하기 - 공통점/차이점 분석하기 - 합의 가능한 점 혹은 공통점/차이점/존중할 점 살피기 - 과제 작성 및 제출2(구글 프레젠테이션) 📄</p> <p>[활동5: 토론을 통한 가치판단과 관점 존중하기(숙의③)] - 쟁점에 대한 가치판단과 관점 이해하기/존중하기 - 과제 작성 및 제출3(구글 프레젠테이션) 📄</p>	<p>※ 자신의 타인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되,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숙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p>
<p>다지기 (20분)</p>	<p>• 모둠별 발표 및 피드백 - 모둠별 발표 시간 안내하기 - 모둠과 다른 주장 및 근거 경청 및 새로운 관점 이해하기 - 평가와 피드백하기(구글 클래스룸 질문하기 활용)</p> <p>• 정리 및 다음 수업 안내 -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 과제 작성 및 제출4(구글 프레젠테이션) 📄 - 다음 활동 안내 : 실기 연계 활동 안내(사진과 생성형AI 실습)</p>	<p>※ 피드백 📄 구글 클래스룸의 🗨️ 질문하기 활용 : 토론내용에 대한 격려와 칭찬 조언 등</p>
<p>성장 Tip</p>	<p>• 평가 준거 - 생성형 AI와 관련된 사례를 올바른 자료(검증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및 탐구하였는가? - 삶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토론 논제에 대해 올바른 자료(검증된)를 활용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공존을 위한 가치판단으로 다양한 주장과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었는가?</p>	



가. 세부 학습 과정 안내

활동 안내 및 준비 사항	
모둠 활동	4-6인 1조, 모둠 활동으로 진행
활동 과정	논제 및 쟁점 확인 - 입장 정하기/모둠 구성하기 토론 개요서 작성(숙의①) 토론하기 쟁점 분석 및 숙의(숙의②)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숙의③)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
자료 활용	참고문헌 및 웹 자료(출처밝히기)
과제 활용 에듀테크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프레젠테이션

수업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은 긍정측/부정측 각각 인원수를 맞추어(2:2, 3:3)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모둠 활동으로 운영한다. 모둠이 구성되면 각자의 입장에 따른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정리가 되면 토론을 진행한다. 각각의 쟁점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장과 반박을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한다. 토론이 끝나면 토론 쟁점 분석을 통해 각자 다른 입장에 대한 가치판단과 함께 관점을 정리하고, 나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토론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후 '개인별 성장 확인하기'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토론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보완할 점을 기록하고 발표를 통해 성장을 나누도록 한다.

나. 현안 이해

- 나의 스마트폰 나의 손으로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소유하고 있다. 과연 이사진은 '나의 것'일까?
-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AI 기술 등 각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편집해도 될까?
- 내가 찍고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업로드해도 될까?

나의 스마트폰 속 갤러리(사진첩)에 저장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의 셀카, 친구와 가족의 사진, 그 밖의 타인들, 풍경, 음식, 거리, 기타 자료 등등 수많은 것들이 셔터 한 번에 쉽게 저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사진을 통해 손쉬운 기록을 남기며 우리는 이런 사진들의 일부 혹은 전체를 하나의 유희로써 다양한 디지털 앱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편집하고, 저장하여, SNS에 기록하고, 혹은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

오늘날 제기되는 수많은 이슈들 중에는 누군가가 무심히 누른 셔터의 결과로 나타난다.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어 상처로 남기도 한다. 나의 셔터 속 사진이 자유와 소유의 입장과 함께 개인적 예술 활동인지 타인의 사생활 침해인지, 혹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과 배려를 위한 공동 책임 대해서 그 경계를 보다 깊게 살펴보기 위해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편집하여 SNS에 업로드해도 될까?”라는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토론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설정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쟁점을 정리해보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민한 경계를 알아야 한다. 꼬한 우리가 지켜야 할 예민한 공간과 선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존을 위한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5

토론 쟁점 파악 및 개요 작성



가. 쟁점 파악

학습 목표	토론을 통해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과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쟁점의 구체화와 분석하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1-2차시 (블록타임) 90분
토론 주제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토론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내가 찍은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될까? 3. 내가 찍고 시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수업 초반 살펴본 다양한 사례 탐구를 기반으로 토론 주제를 확인하고, 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다. 긍정측(3명), 부정측(3명)의 모둠으로 구성하고, 토론 주제에 따른 쟁점을 함께 확인하고,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한다.

나. 토론 개요서 작성(숙의①)

토론 개요서			
토론 주제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토론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내가 찍은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될까? 3. 내가 찍고 시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쟁점구체화	긍정측	부정측	
쟁점1	주장 (이유)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거	나의 매체와 나의 손으로 프레임을 잡아 사진을 찍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창작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저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의 매체와 나의 손으로 구도를 잡아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은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나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읽기 자료) 배경지식 활용하기2 : 표현매체의 발전(참고)	(읽기 자료) 개념 읽기 : 초상권, 전송권, 미술에서의 몽타주와 AI 딥페이크(참고)

토론 개요서

쟁점2	주장 (이유)	내가 찍은 사진은 '나의 것'으로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된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도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서는 안된다.
	근거	타인의 사진을 내가 촬영 및 소장하고 있다면 나의 것으로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편집 변형하는 것 또한 창작과정의 일환이며, 표현의 자유이므로 변형생산이 가능하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도 타인의 사진의 초상권은 타인에게 있기에 AI 기술 등 편집 및 변형은 의도 및 의도하지 않게 딥페이크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자유롭게 편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고 자료	(읽기 자료) 예술의 표현, 표현의 자유(참고)	(읽기 자료) 이슈 읽기 : 디지털 사진 속 초상권 그리고 생성형 AI의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참고)
쟁점3	주장 (이유)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다.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하면 안된다.
	근거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며, 대상은 타인이지만 창작 주체는 '나'이기에 소통 공간인 SNS에 업로드 하는 것은 개인 표현의 자유이다.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사진은 소유는 나에게 있더라도 타인에 대한 초상권, 전송권이 법적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읽기 자료) 예술의 표현, 표현의 자유(참고)	(참고 영상) SNS 속 내 사진을 지워줘요! (2024.02.16.) EBS NEWS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46355/N#none

토론 주제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편집하여 SNS에 업로드해도 될까?'를 통해 긍정과 부정의 입장으로 나누고,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며,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에는 참고문헌과 웹 자료 등의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은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장의 근거를 갖춰 상대를 설득해 보고, 공존을 위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함임을 안내한다.

다. 토론 쟁점 분석(속의②)

토론 쟁점 분석		
토론 주제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토론 쟁점	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내가 찍은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될까? 3.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쟁점1	공통점	내가 나의 매체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대상을 촬영 및 소장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의 자유이자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장이 가능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차이점	내가 나의 매체로 촬영한 대상이 '타인'이라면 나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존중 두가지로 의견이 대립된다. 대상이 '타인'이라도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입장(작가)과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할 수 없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쟁점2	공통점	내가 찍은 사진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하다.
	차이점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이 나의 소유이기에 자유롭게 AI 기술을 활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며 생산 및 편집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내가 찍었다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이 나의 소유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쟁점3	공통점	내가 찍고 편집한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된다.
	차이점	내가 찍고 편집한 '타인'의 사진의 경우에는 나의 소유이며, 나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SNS에 업로드 해도 된다는 입장과 내가 찍고 편집한 사진이라도 '타인'의 사진이라면 동의를 구해야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유롭게 SNS에 공유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주장된다.
정리	내가 찍고 편집한 사진은 나의 소유이며, SNS에 업로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모두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사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보호의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부정축은 '타인의 동의'를 구한다면 소유, 편집, SNS 업로드 등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기반으로 쟁점을 분석하여 속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여, 합의가능하거나 공통점, 다른 점 즉 차이점을 발견하여 쟁점을 분석 및 정리하도록 한다.

라. 존중과 포용의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하기(속의③)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하기	
토론 주제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편집해서 SNS에 올려도 될까?
토론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타인의 사진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내가 찍은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AI 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해도 될까? 3. 내가 찍고 AI로 편집한 타인의 사진을 자유롭게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까?
쟁점1	나의 스마트폰 속 내가 찍은 사진은 '나의 것'이지만, 타인의 사진의 경우에는 타인을 보호 입장에 따라 소유의 관점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쟁점2	내가 찍은 사진을 AI기술을 활용해 자유롭게 변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타인의 사진을 활용 및 편집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타인의 생활 침해로 인한 범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다.
쟁점3	내가 찍고 편집한 사진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SNS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역시나 타인의 사진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유 침해 및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존중하기	내가 나의 매체를 활용하여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나의 디지털 앨범에 소유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도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함과 예민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고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활용하며, 나의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타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토론 논제와 쟁점에 따른 입장이 관점에 따라 다르기에 가치판단과 관점 정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치를 모두 이해하여 존중함으로써 공존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성장 확인하기	
배운 점	'나의 것', '나의 소유'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즉, 타인이 연결된 경우, 꼭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먼저야 공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배웠다.
느낀 점	창작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무엇이 먼저 보호되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창작 및 소유에 대한 주장을 위해서는 목적과 의도, 타인의 사진의 경우에는 협업으로서의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완할 점	초상권, 전송권,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존중 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고, 자유에는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진을 찍고 일기처럼 자유롭게 SNS에 업로드하고 재미있게 친구들의 사진을 편집하고 SNS에 전송하고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조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토론 활동을 통해서 학생 개별이 경험한 배운 점, 느낀 점, 보완할 점을 정리하도록 하여 개인별 성장을 기록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 확인하기가 작성되면 발표를 통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가. 개념 읽기 : 초상권, 전송권, 미술에서의 몽타주와 AI 딥페이크

• 초상권(시사상식사전)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시사상식사전)

• 전송권(한경 경제용어사전)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Send)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Upload)할 권리(한경 경제용어사전)

• 몽타주(세계미술용어사전)

기존의 이미지들을 선택하여 그 일부를 잘라내 한 화면 위에 붙여 합성하는 회화 기법. 본래 몽타주는 영화에서 비롯된 기법인데, 영화에서는 개별적으로 촬영한 필름의 단편들을 시퀀스에 끼워 넣거나 편집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작품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몇 장의 사진을 따로따로 짜맞추어 잔상 효과나 환기력에 의해 통일된 인상을 주는 방법을 가리키기도 하며, 최근에는 합성사진이나 짜맞추기 사진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

미술에서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소재나 이미지들을 잘라내어 맞추고 재구성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하는 기법을 몽타주라고 한다. 영화에서는 몽타주를 시간순으로 배열되지만 그림에서는 잘라낸 부분들을 한 화면 안에

병치시켜야 한다. 몽타주를 가장 선호하였던 것은 독일의 다다이스트들이었으며, 그들은 특히 사진을 소재로 한 포토몽타주를 고안해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잘라내어 한 화면에 결합한 포토몽타주는 러시아의 영화감독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의 몽타주 이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 딥페이크(시용어사전)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비디오에 등장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는 합성 매체를 말한다.

딥페이크에는 일반적으로 오토-인코더(Auto-Encoder, AE)나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이용한다. 아래 <그림 1>은 그 예로 진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림 1> Wikipedia 참조

사진에 조작을 가하는 기술은 19세기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기술은 점차 발달하여 1997년에는 Video Rewrite program과 같은 자동화된 영상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3년 발표된 VAE(Variation Auto Encoder)나 2014년 발표된 GAN과 같이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이 개발되었고 딥러닝이 얼굴 합성이나 특징 바꾸기 등의 기술에 적용되게 되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2017년으로 ‘Deepfakes’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Reddit의 유저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해 업로드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 사건 이후로 ‘딥페이크’는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수많은 딥페이크 비디오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외에, 2018년에 나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Yisroel Mirsky, Wenke Lee 2020: 2).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가령,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이나, 배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최근 팬들에 의해 Solo: A Star Wars Story의 한 솔로(Han Solo)의 얼굴에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의 젊은 얼굴을 삽입된 바 있다. 그러나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단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인물을 만들거나,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뉴스를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최근에는 실제 이미지와 딥페이크 이미지를 판별하는 모델도 개발되고 있다(Joao C. Neves et al 2020).

AI 용어사전 제공처 서울대학교 AI연구원 <https://aiis.snu.ac.k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9974&docId=6653632&categoryId=69974>

나. 이슈 읽기 : 디지털 사진 속 초상권 그리고 생성형 AI의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



SNS 속 내 사진을 지워줘요!

(참고영상)
〈뉴스브릿지〉

엄마 아빠, SNS 속 내 사진을
지워줘요!(2024.02.16)

문별님 작가jebo1@ebs.co.kr / EBS NEWS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46355/N#none>

• 딥페이크의 어두운 면 부상...탐지기술 시급하지만 다원주의적 관점도 필요해(참고 기사 요약)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취급하고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생성형 AI의 기반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이며 이는 곧 생성형 AI가 생성하거나 합성한 콘텐츠를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에 주로 관련된다. 예를 들면 **노배우의 이미지에 젊은 시절 모습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기존 CG보다 품질과 활용 측면에서 뛰어나다. 한편 실제와 다른 장면에서 지인의 모습을 합성하여 능욕하는 딥페이크는 인격모독에 악용되는 경우이다.** 딥페이크는 이렇게 그 용도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 양날의 검이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의 어두운 면이 크게 부각되면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탐지해야한다는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탐지란, 예를 들어 실제 영상물과 가짜, 즉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영상물이 생성형 AI가 생성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인지 밝혀내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탐지와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 사고가 한동안 우리의 근대세계를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성했다고 하는 콘텐츠를 진짜로 그리고 **AI가 생성했다고 하는 딥페이크를 가짜로 놓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현재 딥페이크가 가짜뉴스 생성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실제로 사람이 직접 생성한 콘텐츠에도 엄연히 가짜뉴스와 범죄요소가 존재해왔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증강 서비스가 사진이나 각종 출판물에 오히려 생기를 불어넣어 이용자의 찬사를 받고 있으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언젠가 고도의 딥페이크 탐지기를 돌려보면 거의 모든 콘텐츠가 딥페이크로 분류될 날도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역시 수단일 뿐 그저 부정적인 탐지 대상으로만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현재 생성형 AI가 보편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환각, 편향, 오류, 지적 재산권 침해, 민감정보 유출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생성형 AI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디지털 위협의 시대는 더 이상 어떤

특징에만 의존하여 불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다원적 디지털 위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감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시대의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 가짜뉴스는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데, 정치적 선동, 경제적 이득,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되어 퍼져나가며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즉 딥페이크 기술이 더해져 이러한 가짜뉴스의 제작과 확산을 더욱 쉽고 설득력 있게 만들고 결국 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이제 다원적 디지털 위협의 시대에는 가짜뉴스 생성과 같은 행위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와 같이 명예훼손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가. 인격살인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더욱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는 얘기가. 따라서 늦기전에 강력한 처벌 규정과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다원적 디지털 위협의 시대에 정보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어느덧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었다.

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127035>

다. 배경지식 알기 1 : 표현 매체의 발전

• 손에서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놀라운 혁신이 정보 처리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생성 인공지능은 이미지 생산 방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최근에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GPT 모델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GAN(적대적 생성 신경망)모델을 결합한 플랫폼이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 낼 수 있게 됐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플랫폼이 그것이다.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은 텍스트(문자정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예술작품 같은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을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하는 경우도 있다. **생성 인공지능은 이제 예술 애호가, 요컨대 아마추어와 ‘진정한’ 예술가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민주적’ 기술이 된 것일까?**

사실 이런 질문은 **사진이 발명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질문의 유효성은 더욱 증폭됐다.** 인간이 아닌 카메라가 이미지의 ‘물리적’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생성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미지는 ‘물리적’ 품질뿐만 아니라 ‘미적’ 완성도의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인간은 수만 년 전부터 이미지를 제작해 왔다. 그림이라는 이른바 매뉴얼 이미지, 즉 손을 사용해서 제작한 이미지가 그것이다.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부터 르네상스 명화에 이르기 까지, 고전주의 회화와 인상주의 회화, 20세기 추상회화에 이르기까지 ‘전통’ 이미지는 늘 인간의 손에 제작됐다. **이미지의 생산이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19세기에 발명된 사진 덕분이다.** 카메라는 꼼꼼히 사물을 관찰하고, 평면 위에 펼쳐질 선과 면, 색의 조합을 구상하고,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미지의 형태를 통제하는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으로부터 손을 해방 시켰다. **생성 인공지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메라가 하지 못했던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생성 모델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의 원리를 적용한 후속 모델들이다. 예컨대 같은 형태의 그림-사진을 치환하는 CycleGAN,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사진처럼’ 합성하는 StlyeGAN, 측면 사진에서 정면 사진을 합성하는 TPGAN, 동일한 인물의 얼굴 사진에서 나이와 성별, 연령, 표정을 바꿀 수 있는 StarGAN 등 그 종류와 유형은 매우 많다.

인공지능을 창작에 활용하는 작가들도 늘고 있다. 2022년 뉴욕현대미술관(MOMA)로비에 전시됐던 레픽 아나돌(Reffic Anadol)의 <지도 받지 않은 환각 기계>는 미술제도가 인공지능의 '자율적' 생성 능력을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MOMA의 컬렉션에 대한 기계 학습을 바탕으로 StyleGAN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해석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를 생성한다. 여기서 이미지의 생산은 인공지능이 주도한다. 작가는 단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이다. 실상 인공지능의 이미지 생성은 알고리즘의 계산에 따른 '숫자놀이'의 결과다. 게다가 작품을 기획한 인간 예술가는 인공지능이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 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인간 예술가가 인공지능과 협업하면서 펼쳐질 향후 예술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

<장병탁 외 7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pp.135-137>

라. 배경지식 알기 2 : 예술의 표현, 표현의 자유

• 지배와 모욕 없는 예술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합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유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의 원리는 다원론적 미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이나 어떤 양식을 창조할 자유는 그 작품이나 양식을 창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허용되어야 한다. 어떤 예술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신 알몸 사진을 올렸다고 하자. 어떤 가수가 비속어로 된 노래를 부른다고 하자. 어떤 소설가가 파시즘을 찬양하는 소설을 쓴다고 하자. 이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플라토식의 애매한 공동체적 명분을 내세워 예술가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타인에게 '분명한' 피해를 준다면 어떤 예술적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피해의 폭을 넓게 설정할수록 예술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며, 피해의 폭을 좁게 설정할수록 예술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피해의 폭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된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예술이 표현의 자유인지 아닌지를 경정할 수 있다.

<김진업, 예술에 대한 여덟가지 답변의 역사, 우리학교, 2024, pp.175-176>

• 규제와 공공정책-생성형 AI는 표현의 자유법에 따라 보호될까?

생성형 AI 시스템의 결과물과 사용을 규제하고 그 결과물이 표현의 자유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주로 정부가 표현을 규제하려고 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보호가 컴퓨터로 생성된 표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가지 접근법은 그 결과물을 시스템 제작자의 표현할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일종의 법적 '인격'을 부여한다는 개념은 더 나은 규제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생성형 AI 시스템의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다. 저작권법은 원작자의 원저작물을 보호하지만, 저작물에 인간과 기계의 노력이 혼합된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유럽연합(EU)은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AI 규제의 최전선에 서 왔다. EU의 AI법은 AI를 정의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미국은 실행가능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EU보다 뒤쳐져 있지만, 미국 정부 내에는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원칙이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의 중국은 AI를 국가의 주요 우선순위로 삼는다. 중국은 또한 AI와 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법률, 최근에는 출시 전 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생성형 AI에 대한 제한 사항을 다루는 여러 주요 법률을 제정했다.

〈제리 카플란,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한스미디어, 2024, pp.291-292〉

- 장병탁 외,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시공아트, 2024
- 김진엽, 예술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의 역사, 우리학교, 2024
- 제리 카플란,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한스미디어, 2024
- (사전) 시사상식사전
- (사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 (사전) 세계미술용어사전
- (사전) AI용어사전
- (뉴스1) 엄마 아빠, SNS 속 내 사진을 지워줘요! (EBS NEWS 2024.02.16.)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46355/N#none>
- (뉴스)딥페이크의 어두운 면 부상...탐지기술 시급하지만 다원주의적 관점도 필요해
[글_한국정보보호학회 권태경 상임이사] 보안뉴스(www.boannews.com)
(원문)<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7035> 원병철기자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 역할극 활용 -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학교생활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도록 학생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협력을 강조하게 되고, 협력의 형태는 수업 중 모둠 활동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실 수업의 모둠 활동의 어려움은 공평함과 협력적이지 못함,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등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개별 활동 선호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동체의 다양한 역동과 인간상을 이해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모둠 활동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구분	내용
현안 (토론 주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주요 쟁점	1. 모둠 구성에서 자유와 불평등의 조정 중 무엇이 우선일까? 2. 자유로운 모둠 구성과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성취 기준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9도03-03] 세계시민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수업 모형	역할극을 활용한 역지사지 토론 모형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8차시, 역할극을 활용)⁵⁾



5)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의 순차적 자료 분석형과 도덕과의 6C 논쟁수업 모형을 혼합하여 제시한 형태이다.

3

논제 분석 및 근거 선정



가. 자료 분석 및 근거 정리

1) 논제 분석

논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용어 정의	자유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모둠 구성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불평등의 조정	소외되는 학생 없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고려하여 모둠 구성을 하는 것
분석 기준	자유로운 모둠 구성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보편성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일까?	불평등의 조정이 우선일까?
현실성	자유로운 모둠 구성이 효과적인가?	소외된 학생이 없이 불평등을 조정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2) 쟁점 확인 및 분석

현안 이해	<p style="text-align: center;">‘선생님, 애는 모둠 활동 참여 안 해요.’</p> <p>성격이나 생각의 속도, 깊이, 범위까지도 다른 아이들끼리 뭉쳐서 모둠활동을 해쳐나가는 일은 분명 쉽지 않다. 어른들에게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의 모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항상 멈출 틈이 없다. 모둠을 바꿔 주지 않으면 지각하겠다는 귀여운 협박부터 모둠에서 사용한 가위는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다툼까지 아주 다양하다.</p> <p>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은 "선생님, 애는 모둠 활동 참여 안 해요!"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쯤은 듣는 불평이다. 꼭 내 귀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교실을 스윽하고 둘러보면, 자주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문제 상황은 해결해주기에, 그냥 알아서 해보도록 놔버리기에 애매하다. 때로는 모둠활동을 주도하는 아이들의 엇나간 욕심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난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상관없다는 태도가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p> <p>- 오마이뉴스, "선생님, 애는 맨날 모둠 활동 참여 안 해요!" [신규교사 생존기⑪] 작은 깨달음으로 교실을 바꾸다. 2015.5.26.</p>
	<p style="text-align: center;">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p>
보편성	모둠 구성에서 자유와 불평등의 조정 중 무엇이 우선일까?
현실성	자유로운 모둠 구성과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3) 자료 분석 및 정리: OREO 글쓰기 활용을 통해 양측 입장 모두 정리

논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보편성	쟁점 1: 모둠 구성에서 자유와 불평등의 조정 중 무엇이 우선일까?	
O(주장)	모둠 구성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둠 구성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불평등을 조정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이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이며,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유만 강조할 경우 소외된 사람이 생겨나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사례)	존 스튜어트 밀은 진리의 발견에 있어 자유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O(재확인)	따라서 진리의 발견과 모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조건과 능력이 다양함에도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정한 모둠 구성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참고문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1859)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2014)
현실성	쟁점 2: 자유로운 모둠 구성과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O(주장)	마음에 맞는 친구를 선택하여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	교사의 개입 하에 다양한 구성원을 바탕으로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
R(이유)	왜냐하면 마음이 맞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모둠 활동을 할 때 더욱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둠 활동을 통해 협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사례)	연구에 따르면 동질적인 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할 경우 상호적인 지지가 쉽고 응집력이 강하다.	연구에 따르면 이질적인 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할 경우 차이점을 발견하며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이질 집단이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O(재확인)	따라서 효율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모둠 활동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협동학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입 하에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
출처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동질집단' 상담학 사전	조한진 외(2016), 창작 로봇 제작 및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창의성 동질 및 이질 팀 구성에 따른 팀 상호작용 분석 (13-24쪽)

4

토론 과정



가. 숙의 및 토론 과정

인물의 성격 분석 및 역할 선정	1차 숙의 및 토론	2차 숙의 및 토론	토론 결과 정리
① 6명 인물 분석 ② 역할 선정 (1차 추첨)	① 양 측 배석 (3:3) ② 1차 숙의 ③ 토론 개요서 작성(1차) ④ 1차 토론	① 역할 교환 (2차 추첨) ② 2차 숙의 ③ 토론 개요서 작성(2차) ④ 2차 토론 ⑤ 모둠 결과 요약	① 토론 내용 기록지 정리 ② 의견 공유하기
<--- 준비 ---> (이전 차시)	<--- 토론 활동 (본 차시) --->		<--- 정리 ---> (다음 차시)

1) 인물의 성격 분석 및 역할 선정(6명)

유형	특징	유형	특징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생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학생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모둠 동료에게 바라는 점:		모둠 동료에게 바라는 점:
	참여 의지: ☆☆☆☆☆		참여 의지: ☆☆☆☆☆
반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 학생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반에서 소외된 학생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모둠 동료에게 바라는 점:		모둠 동료에게 바라는 점:
	참여 의지: ☆☆☆☆☆		참여 의지: ☆☆☆☆☆
누군가를 이끌어 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모둠 활동을 즐거워하는 학생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모둠 동료에게 바라는 점:		모둠 동료에게 바라는 점:
	참여 의지: ☆☆☆☆☆		참여 의지: ☆☆☆☆☆

2) 1, 2차 숙의 및 토론

- 6명의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을 추천하고 원하는 팀을 선택하여 토론을 위한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⁶⁾
- 각자 맡은 역할에 해당하는 입론과 예상 가능한 반론을 간단하게 작성한 뒤 토론에 임한다.
- 토론 중간에는 '토론 내용 기록지'를 활용하여 메모를 하도록 안내한다.
- 1차 토론을 마친 후 반대팀 인물을 추천한 뒤 2차 숙의를 거치고 2차 토론을 실시한다.
- 모둠별 토론 결과 기록지에 간단하게 요약한 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한다.

<p>토론 배치도 전체</p>	자유	①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생
		②	반에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 학생
		③	누군가를 이끌어 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불평등 조정	①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학생
		②	반에서 소외된 학생
		③	모둠 활동을 즐거워하는 학생
		역할 선택 예시 자료 (추천 결과 예시) ⁷⁾	

나. 개요 작성

토론 개요서		
맡은 역할	입론	예상 가능한 반론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임승차자는 모둠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 - 진정한 공정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교사의 개입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된다. - 능력이 좋은 사람이 먼저 선택받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함이란 불균등함의 조정이다. - 모둠 활동은 사회의 축소판으로 사회는 원하는 사람과 구성할 수 없다.
불평등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이나 선호도에 따라 모둠 편차가 심해진다. - 반의 단합력이 떨어진다. - 진정한 정의의 관점에서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의 편차가 있는 것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 모둠 내 단합력이 반의 단합력보다 우선이다. - 무임승차자가 교사의 개입을 바라다면 과연 그들도 소외된 약자라고 할 수 있는가?

6) 이 과정에서 6개의 모둠이 조금씩 다른 형태의 팀을 이루는 것을 통해 즉흥적으로 모둠의 역동이 형성된다.

7) 예시이며, 2차 토론 때에는 상대방 3개의 역할 중 추천하여 진행하도록 함.

다. 토론 결과 정리

()모둠 토론 내용 기록지						
1학년 ()반 ()번 이름:						
주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쟁점	쟁점1. 모둠 구성에서 자유와 불평등의 조정 중 무엇이 우선일까?					
	쟁점2: 자유로운 모둠 구성과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자유로운 모둠 구성 방법 선택 입장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방법 선택 입장		
1차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무임승차자	즐거운 학생	호불호	즐거운 학생	무임승차자	사회, 집단, 공익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2차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누가:	무엇을:	키워드:	누가:	누구에게:	키워드:
보완할 논리	예) 소외 받는 학생을 배려하는 방법 고려 필요			예) 무임승차, 능력에 따른 차이를 완화하는 방법 필요		
공통점	예) 모둠 활동의 성공, 결과물 도출, 협동적인 모둠 활동, 우호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					

핵심 키워드	정의, 사회의 발전, 보완적인 관계, 배려	
절충안 (공통점 반영)	예) 모둠의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둠장을 선출하고 모둠장을 지원할 학생을 뽑은 후, 교사의 개입을 통해 소외되거나 역량이 부족한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과제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모둠의 성공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공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상 결과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분담을 통해 모두 같은 역량을 발휘하지는 않더라도 모둠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모둠 구성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하거나, 모둠 간 편차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장과 친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소외시키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 무임승차자, 역량이 부족한 학생은 여전히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다.

라. 토론 합의문 작성하기

갈등을 최소화하는 우리 반의 모둠 구성 방법 제시안

1학년 ()반 ()번 이름:

주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모둠 구성이 가능한가?			
쟁점	쟁점1: 모둠 구성에서 자유와 불평등의 조정 중 무엇이 우선일까?			
	쟁점2: 자유로운 모둠 구성과 불평등을 조정한 모둠 구성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모둠별 최종 대안 정리 ⁸⁾	1	- 리더, 모둠장 등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자원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소외되거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2	- 과제의 성격에 따라 모둠 구성 방법을 다르게 한다. 다같이 의견을 모으고 즐겁게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수업은 자유롭게, 결과물이 중요한 수업은 교사가 구성한다.
	3		4	
	5		6	
토론 전체 핵심키워드 (워드클라우드)				
실천 강령	1. 예) 우리 반 학생들을 모두 존중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 2. 3.			

8) 모둠별 토의 내용을 칠판나누기 혹은 온라인 협업도구 등을 활용하여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토대로 실천 강령을 도출한다.



가. 활용 tip

- 역할극의 의미는 해당 인물, 상황에 몰입하여 그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며, 양측 입장 모두를 경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인물 분석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몰입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할애한다.
- 도덕과에서 토론의 결과는 실천을 통해 내면화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모둠별 혹은 반별 실천 강령을 정하여 토론 결과와 연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나. 참고 자료 및 문헌

· 자유와 공정

존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력은 오직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일 때, 문명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의 의지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행동에서 사회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타인과 관련된 부분이다(타인에게 해악,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만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바르게 절대적인 독립체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권자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상관없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있다.”

우리는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는 것’의 차이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이들은 일단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조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신이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직장에 지원했다고 치자.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은 있으므로) 부모님이 더 나은 교육에 돈을 쓸 여유가 없었던 탓에 당신은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없으므로). 따라서 공적 교육 기금이나 저임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조금과 장학금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한 가지 방법이다. 같은 경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 롤스는 ‘기회의 공정한 평등’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회가 당신에게 그런 재능을 개발할 공정한 기회와 허용하는 지의 여부이며, 이는 철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점이다.

롤스는 국가가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보장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채식을 할지 아무거나 먹을지, 기독교를 믿을지 무신론자가 될지 등에 대해, 이런 선택들은 - 그가 말하는 ‘선 개념’이 다른 - 개인적 선호의 표현이다. 무신론자가 되려는 나의 자유에는 기독교를 믿으려는 당신의 동등한 자유 또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국가의 중립성은 종종 ‘다원주의’의 기본

토대로 여기기도 한다. 이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추구할 만한 좋은 삶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사야 벌린은 “문화와 기질이 다양한 것처럼 이상(ideal)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와 실력(능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가?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적 배경이나 그 밖의 불평등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를 해야 하는가?”

출처 : 개러스 사우스웰, '마르크스라면 어떻게 할까? (2018)'

• 대화와 타협

전쟁터와 다른없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대화'다. 그것도 마음 터놓고 하는 대화다. 이익 상충에 따른 갈등을 배신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대화야말로 가장 좋은 해결 수단이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화를 이상으로 하는 정치 체제다. 대화에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사회에서는 이익과 이익이 늘 참여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첫째, 사회에서는 갈등의 관련자들이 죄수의 딜레마처럼 용의자들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둘째, 사회에는 용의자들에게 동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끊임없이 환기 시키는 형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곳이 바로 사회다.

• 토론의 가치, 집단 지성의 힘

- 1 반대하는(소수) 의견이 진실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억눌러버리면 다수의 '잘못된' 의견을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
- 2 소수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에 맞서 방어할 때 (옳은) 다수의 의견이 더욱 강화되며, 우리는 그 생각이 왜 옳은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 3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양쪽 모두 약간의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즉, 두 의견 모두 '부분적'으로 진실이다.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양쪽에서 완전한 그림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출처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1859)'

- 1 캐나다에 위치한 세계 3대 금광회사인 '골드코프'는 한 때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직원들의 파업은 계속됐고,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안보였으며 더 이상 금을 채굴할 곳마저도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까지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맥위엔 골드코프 CEO는 엄청난 모험을 했다. 회사가 갖고 있던 지적자산과 각종 지질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리고 57만달러(약 6억원)를 상금으로 내 걸고 금 매장 후보지나 효율적인 탐사 방법을 제안하는 참가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약 50개국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참가했다. 그리고 골드코프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110개의 금광후보지를 찾아냈고 여기서 220톤이 넘는 금을 채굴했다. 30억달러(3조3500억원)에 달하는 양이었다. 이후 회사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 2 1989년, 알래스카에서는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가 있었다. 5300갤런의 원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 '엑스발데스호'가 좌초돼 원유를 바다에 유출했다. 당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제에 동원됐고 1년간 2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사고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17년간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국제기름유출연구소(OSRI)는 이노센티브라는 회사에 해결을 의뢰했다. 이노센티브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노센티브는 원유유출 사고 문제를 공유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단 3개월만에 17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위의 두 사례는 집단지성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집단적 능력이다. 이 개념의 전제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평범한 대중의 통합된 지성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깔려있다. 하지만 집단지성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부작용 사례도 셀 수 없을 정도다. 000위키 백과사전의 경우, 실제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참여자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성향의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한쪽으로 편중된 정보가 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양 퍼져 또 다른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더 이상 전문가가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시대가 됐다. 올해 여름 유행했던 '에어컨 기사의 양심고객'이 대표적이다. 한 에어컨 기사가 양심고백이라며 인터넷에 정보를 공유했고 이 글은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공유한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집단지성이 집단사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집단사고란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는 것을 말한다. 즉,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그 안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정상수 청주대학교 교수는 "집단지성이 언제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단지성이 나오기 위해선 개인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우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IT조선 (<https://it.chosun.com>)

6

참고 자료

- 강성희, 마르크스라면 어떻게 할까?, 2018.
- 울산도덕교사모임, 도덕 수업, 책으로 묻고 윤리로 답하다, 2015.
- 배광호, 토론수업 34차시, 2017.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2018.
- 마이클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4.
- 조한진, 위선복, 김태훈(2016). 창작 로봇 제작 및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창의성 동질 및 이질 팀 구성에 따른 팀 상호작용 분석. 공학교육연구, 19(5) 13-24.
- IT조선 [집단지성의 명암] ①세상을 바꾸는 힘 '집단지성'. 2016.9.2.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 -

과거에는 신체적인 학교 폭력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언어폭력, 따돌림 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갈등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전세계적인 공동체 문제로 발전하고 있고, 학생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선정하여 공동의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갈등,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토론을 통한 도덕적 숙고와 함께 내려진 결론을 직접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진정으로 체화되고 습득된 도덕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구분	내용
현안 (토론 주제)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주요 쟁점	1.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중 무엇이 도덕적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2.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성취기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p> </div> <div style="width: 45%;"> <p>[9도03-03] 세계시민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p> </div> </div>
수업모형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 '순차적 자료 분석형' ⁹⁾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7차시)

호기심 갖기 (1차시)	문제 발견 및 주제 선정하기 (2차시)	자료 분석 및 근거 정리 (1차시)	숙의 및 토론 (1차시)	모둠별 합의문 만들기 (1차시)	성찰하기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책 활용 - '내가 라면 먹을 때' 동화책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개발 목표 개념 알기 주변 공간 탐색 문제 발견 및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점 분석 양측 자료 검색, 분석, 정리 근거 정리 : OREO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반 팀 구성 1차 숙의 및 1차 토론 2차 숙의 및 2차 토론 토론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토론 결과 기록지' 정리 합의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합의문 실천하기 액션플랜 계획 숫폼 촬영

9)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순차적 자료 분석형 형태에 실천 단계를 덧붙임

3 주요 학습 활동 안내



가. 호기심 갖기

- '내가 라면 먹을 때' 동화책 활용 토의하기

장면 예시	내용 요약
 	<p>나의 이웃집, 이웃 마을, 이웃 나라, 먼 나라에 있는 각자 다른 아이들은 때로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거나 물을 길거나 쓰러져 있는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나 모든 곳에 부는 '바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p>

<p>핵심 키워드 5가지</p>	<p>예) 아동 노동, 빈부격차, 전쟁, 바람</p>
<p>'바람이 분다'의 의미</p>	<p>지금 여기에 부는 바람과 멀리 떨어진 곳에 부는 바람은 연결되어 있다.</p>
<p>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p>	<p>예)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숨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p>
<p>모르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p>	<p>(가져야 한다 VS 가질 필요 없다) 이유:</p>

나. 문제 발견 및 주제 선정하기

- 지속가능개발 목표 17가지의 개념을 알고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공간을 다방면으로 탐색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 모둠원과 이 문제를 나눠보고 나를 둘러싼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 본다

다. 자료 분석 및 근거 정리

1) 논제 분석

논제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용어 정의	공동체	나를 둘러싼 다양한 공간: 가족, 이웃, 학교, 사회, 국가, 지구촌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우선
	공동체주의	개인은 독립적일 수 없고,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참여 범위	소극적인 수준의 선거, 민원 제기 외에도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립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하기 (기부, 착한소비, 환경실천, 봉사 등)
분석 기준	의무이다	선택이다
보편성	개인의 관심사와 행복이 공동체보다 우선인가?	공동체의 선이 개인의 선보다 우선인가?
현실성	지구공동체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내 주변 공동체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가?

3) 자료 분석 및 정리: OREO 글쓰기 활용을 통해 양측 입장 모두 정리

논제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보편성	쟁점 1: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중 무엇이 도덕적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이 우선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O(주장)	개인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 세계가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공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한다.
R(이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기본권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
E(사례)	공동체의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에게 무엇인가를 의무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과 질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O(재확인)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출처 (참고문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1859)'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2014)'

현실성	쟁점 2: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나와 내 주변 (학생의 개인 선택 혹은 모둠별 선택)	지구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O(주장)	나와 가족, 이웃,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다.	개인은 공동체에 기댄 자아로서,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은 모두 공동체로부터 나온다.
R(이유)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보다는 내 주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받는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할 경우 반드시 개인은 영향을 받는다.
E(사례)	지구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전쟁, 난민의 일을 우리의 의무로 삼기 이전에 독거 노인,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무역의 범위,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 기후 등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세계시민으로서 살고 있다.
O(재확인)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에 먼저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시선을 가지고 지구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출처	박정수(2022), '한국의 사회 동향(2022) 소득, 소비,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통계청)'	개러스 사우스웰, '마르크르라면 어떻게 할까?(2018)' 연합뉴스, "한국인 1명이 1년에 신용카드 50장 분량의 플라스틱 먹는다"

4 토론 과정

가. 토론 개요서 작성

토론 개요서		
1학년 ()반 ()번 이름:		
쟁점: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입장	입론	예상 가능 반론
의무이다		
선택이다		

나. 속의 및 토론

- 즉석에서 양측 입장을 선택하게 하고 속의와 토론을 실행한다. '토론 개요서'에 자신의 생각과 속의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을 기록하고 본 토론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토론 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짧게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이 내용을 '토론 내용 기록지'에 종합 정리하도록 한다.
- 1차 토론 이후 역할을 바꾸어 2차 토론을 전개한다.

()모둠 토론 내용 기록지

1학년 ()반 ()번 이름:

주제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가?			
쟁점	쟁점 1: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중 무엇이 도덕적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쟁점 2: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입장	의무이다		선택이다	
토론내용	핵심 키워드	내용 요약	핵심 키워드	내용 요약
1차				
2차				
보완할 논리				
공통점				
절충안 (공통점 반영)				
예상 결과	장점		단점	

다. 모둠별 합의서 작성

- 토론 내용 기록지를 모둠원과 논의하여 최종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둠별로 실제로 공동체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실제로 모둠 내에서 실천할 만한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본다.

지구공동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실천 합의서

1학년 ()반 ()번 이름:

주제	지구공동체의 문제해결 참여는 우리의 의무인가?	
쟁점	쟁점1: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중 무엇이 도덕적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쟁점2: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모듬의 핵심 키워드		
우리 모듬의 관심 공동체	공동체	문제들
우리 모듬의 실천 주제	주제	실천 방법

5 토론 활동 성찰하기

- 합의문에서 정리한 공동체를 위한 실천 주제에 대해 모듬별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액션 플랜)을 짜고 이를 실천하는 모듬별 솟품 동영상 제작한다.



가. 활용 tip

- 우리 주변의 공간과 관련된 문제를 떠올릴 때 아이디어 강제 배정(지속가능개발 목표에 따른 문제점 분류)을 어려워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토의 시간을 부여하며 필요시 검색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모둠 토의를 통해 주변 공간을 살펴보면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깨닫게 되고 공동체와 관계된 범위 가운데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므로 토론-실천을 짜임새 있게 연계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마지막 성찰 단계에서 액션 플랜 및 솃폼 제작까지 힘 있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나. 참고 자료

• 도덕적인 개인과 도덕적인 국가

국가는 인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국가는 더 이상 선택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알다시피 태어나는 순간 개인의 국적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이민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삶은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아프리카나 북한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태어난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의 모습은 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근대 이후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나 기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가 언제나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해주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억압당하고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켜지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많은 학자들은 자기 나름의 가치를 바탕으로 완벽한 이상국가론을 상상해왔고, 그중 몇몇은 오늘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 권리와 의무의 관계

우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오늘날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은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의무에 압살당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도덕과 권위에 압도되고 있다. 셋째, 오늘날에도 시민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늘 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중세와 마찬가지로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인터넷에도 조작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있어서 시민은 조작과 통제의 대상으로 변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답을 구하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시민의 의무가 먼저인가 권리가 먼저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경우처럼 이는 멀쩡한 한 개인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한 청년의 일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반화해 다시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권리가 먼저인가, 의무가 먼저인가? 의무보다는 권리가 먼저다. 개인의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

• 세계화와 나의 삶

불편한 진실-‘피의 콜탄과 다이아몬드’

콩고민주공화국의 광활한 지역에서 유혈 분쟁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분쟁의 원인은 주로 지하자원이다. 수많은 반군과 용병 집단은 금속, 다이아몬드, 열대 목재를 팔아 돈을 벌고 있으며, 이 지하자원 구매자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다.

특히 사람들이 탐을 내는 광물은 콜탄이다. 콜탄에 함유된 탄탈이라는 물질은 고성능 칩과 응축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이 탄탈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 르완다와 우간다 등 인근 국가의 군인과 사업가들도 북반구 선진국 구매자들과 커넥션을 이루며 콩고민주공화국산 콜탄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 콜탄 구매 기업 가운데 가장 유명한 회사가 바로 독일 바이엘 그룹 자회사인 HC스타르크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르크는 내전 지역에서 콜탄을 헐값에 들여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다.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세계 전체 콜탄의 80%가 매장되어 있다.

시에라이온과 앙골라에서 벌어진 수십 년간의 내전에서 반군들은 다이아몬드를 팔아 매년 7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이 다시 전쟁에 사용된다는 데 있다. 2003년부터 소위 킬벌리 프로세스가 시행되면서 ‘유혈 다이아몬드’가 거래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통제 조치는 아직 결함이 너무 많다. 특히 서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채굴되는 다이아몬드가 불법으로 대량 거래되고 있으며, 이 ‘유혈 다이아몬드’가 인근 말리와 가나로 몰래 반입되어, 그곳에서 ‘분쟁과 무관한 다이아몬드’라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판매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2003년 이후 합법적인 다이아몬드 판매로 채광 국가가 벌어들인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 점점 더 많은 물이 병 속에 채워지다

생수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는데, 비단 선진국에서만이 아니다. 불과 수년 사이 생수 매출액은 두 배나 늘었다. 생수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해당 지역의 몇몇 주요 업자를 끌어들이며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조차 이들은 병 속에 담긴 ‘안전한’생수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병에 담겨 판매되는 생수는 비싸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비싸다. 평균적인 인도 가정이 마실 물을 사 먹는 생수로 대체한다면, 물값으로만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수도물 가격이 100리터에 5센트인데, 같은 양을 생수 가격으로 계산하면 5~8달러에 이른다.

사 먹는 생수 때문에 정작 마실 물이 고갈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중략) 생수 판매의 호황은 생태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2001년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생수용 물병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이 연간 1,500만 톤이나 된다고 추정했다. 이 많은 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물통 수십억 개가 쓰레기로 묻히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 늘기만 하고 있다.

출처 : 울산도덕교사모임, ‘도덕수업, 책으로 묻고 윤리로 답하다(2015)’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루를 원두커피 한 잔 가격(약 3,000원)보다도 적은 1,200원(1달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약 11억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 5천만명)보다 20배나 더 많은 수치이다. 세계은행은 이들을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안전하게 마실 물을 멀리까지 가서 길어 와 끓여 먹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역의 대금업자들의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일 년 내내(또는 한때) 식량이 부족해 자주 끼니를 걸러야 하는 사람들로, 아이의 배고픔과 자신의 배고픔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각과 분위기를 충족하기 위해 음식을 선택하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옷을 선택하며,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고 아늑한 공간, 더 나은 공기와 자연 환경을 위해서 집을 선택한다. (중략)

(피터) 싱어는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음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살든, 어떤 인종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는 우선적으로 배려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와 같은 인종인지에 따라서, 즉 친화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먼저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돌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출처 : 문종길, 김상범, '생활과 윤리 20개 주제로 더 넓고 깊게 읽기(2019)'

7

참고 자료

- 개러스 사우스웰, 마르크스라면 어떻게 할까?, 2018.
- 울산도덕교사모임, 도덕 수업, 책으로 묻고 윤리로 답하다, 2015.
- 문종길, 김상범, 생활과 윤리 20개 주제로 더 넓고 깊게 읽기, 2019.
- 배광호, 토론수업 34차시, 2017.
- 존 스투어트 밀, 자유론, 2018.
- 마이클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4.
- 하세가와 요시후미, 내가 라면을 먹을 때, 2009.
- 박정수, 한국의 사회 동향-소득, 소비,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통계청), 2022.
- 연합뉴스, "한국인 1명이 1년에 신용카드 50장 분량의 플라스틱 먹는다", 2024.8.13.

학교급식은 개인의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 토론수업은 처음에는 잔반 줄이기의 현안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은 잔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임을 알게 되었고 ‘잔반’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효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식습관과 관련된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수업은 자신들이 먹는 급식의 ‘잔반’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학생들이 무심코 버린 학교급식 잔반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식습관’이 이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학생들은 숙의 과정 등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대상	중학교 1~3학년
주제(현안)	학교급식은 개인의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주요 쟁점	1) 학생의 식습관 형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2) 잔반의 책임은 학교급식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3) 급식에 개인의 취향 및 문화를 반영해줄 필요가 있는가?
학습 목표	1) 역사사지 공존형의 토론 목적을 알고, 현안 및 쟁점을 이해한다. 2)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정보를 추출하여 토론 개요를 작성한다. 3) 작성한 토론 원고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 4) 토론을 정리하고 선언문을 작성한다.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2022개정 교육과정 국어 • 교과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9국01-09]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9국01-10]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학습 요소	학교급식 잔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 모색 토론, 학교 문화, 학교문화, 우리학교 규칙 제정
수업 모형	개인 학습, 모둠 학습(모둠당 4-6명), 토론

도움자료 (기사, 단행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골라 먹는 '자율선택급식'...잔반 처리 비용은 반토막 (뉴시스, 2024.7.1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7_0002814521 '잔반 처리도 교육'... 급식실 학대 주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1250&ref=A (KBS, 2024.03.12.) 3년간 146억 쏟아 부은 서울 학교 잔반처리비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5 (대한급식신문, 2023.11.21.) [기후는 말한다] 탄소 줄이려 '채식 급식'...과제는 잔반 처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4885 (KBS, 2023.11.23.) • 도서(단행본_일반) 앤드루 스미스, 음식물 쓰레기 전쟁, 와이즈맵, 2021. 08. 20. - 안일한 습관이 빚어낸 최악의 환경 범죄 • 도서(단행본_동화) 문송이, 음식 쓰레기 때문이야!, 꿈터, 2021. 12. 10. - 환경을 위해 잔반을 없애자는 교훈을 담고 있는 환경 그림책
------------------------	--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6차시)

✎

차시	운영 과정
1차시	1) 도서 및 기사문을 읽고 사회 현안 탐색 2)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모형 안내
2차시	1) 현안과 연결하여 주제 탐구 2) 쟁점 관련 자료 탐색, 쟁점 정보 탐색
3차시	<1차 숙의> 1) 입장별 정보 분석 및 근거 선정 2) 토론 개요 작성하기
4차시	1) 토론하기 (CEDA 방식 허용)
5차시	<2차 숙의> 1) 토론에서 제시한 해결안에 대한 점검 및 조정
6차시	1) 실천 선언문 작성



가. 1차시 과정안 및 자료

•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동화 읽고 사회 현안 탐색 -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관한 내용이 담긴 동화 읽기 -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탐색 - 평소 나의 식습관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민 - 특히 학교에서의 단체 급식과 음식물 쓰레기의 연관 지점 탐색 2) 기사 함께 읽어보고 현안 탐색 - '급식 잔반 처리 비용 증가' 기사 읽고 '잔반 문제' 탐색 - 먹고 싶은 반찬만 가져가는 것 vs 골고루 가져가서 남기지 않고 먹는 것 - 원하는 반찬만 만들어 놓기 vs 영양소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반찬 만들어 놓기
전개	1)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의 개념 및 목적 설명 -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쟁점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수업 - 주장 승부가 있는 기존의 토론 방식과는 다른, 성숙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 이 토론수업의 주된 목적 안내
정리	현안과 연결한 주제 탐구, 쟁점 관련 자료 탐색 등 예고

• <자료> 현안과 쟁점을 살피기 위한 기사 자료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O기)에서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잔반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전년 대비 매년 2배씩 잔반량이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심O경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O)은 지난 16일 열린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O기)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시작된 무상급식 이후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온종일 급식 시대'를 대비한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앞서 11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O연, 이하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도 과도한 잔반 처리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으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약 146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이 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잔반 처리량과 비용을 살펴보면, 2020년(학교 1208곳·학생 49만9142명)에는 1355만kg의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 약 28억 원을 지출했고, 2021년(학교 1211곳·학생 73만9981명)에는 2662만kg 처리를 위해 약 52억 원 사용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인 2022년(학교 1214곳·학생 90만909명)에는 3423만kg의 잔반을 처리하는데 약 68억 원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2019년 발표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국내 음식물쓰레기 연간 배출량이 522만t으로 이 중 20%만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t 가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고 소나무 3억6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증가는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넘어 기후환경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서울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건과 관련)급식 관련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 급식 정책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전했다.

출처: 3년간 146억 쏟아 부은 서울 학교 잔반처리비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5>

(대한급식신문, 2023.11.21.)

나. 2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핵심 키워드 작성 - 현안과 연결하여 주제 관련 키워드 찾기 (포스트잇 활용)												
전개	1) 현안과 연결하여 주제 탐구 - ‘급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 ‘개인의 식습관’과 학교급식이 연결되는 부분은? - 개인의 취향과 문화를 단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쟁점(논쟁이 되는 부분)을 3가지 선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탐색 - 키워드 검색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키워드 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방법 ○ 학생 식습관 ○ 급식 잔반 ○ 단체 급식 ○ 개인의 식습관 ○ 그린 데이 ○ 학교급식 잔반 ○ 종교 음식 급식 ○ 자율배식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예술적, 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 </td> </tr> </tbody> </table> - 학교 내 조사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조사 내용(예시)</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급식 메뉴에 따른 잔반량의 차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인기 메뉴’가 있는 날의 잔반량</td> <td></td> </tr> <tr> <td>‘그린 데이(비건 데이)’의 잔반량</td> <td></td> </tr> </tbody> </table> 3)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쟁점 선정 - 학생의 식습관 형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 잔반의 책임은 학교급식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 급식에 개인의 취향 및 문화를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가?	키워드 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방법 ○ 학생 식습관 ○ 급식 잔반 ○ 단체 급식 ○ 개인의 식습관 ○ 그린 데이 ○ 학교급식 잔반 ○ 종교 음식 급식 ○ 자율배식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예술적, 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	조사 내용(예시)		급식 메뉴에 따른 잔반량의 차이		‘인기 메뉴’가 있는 날의 잔반량		‘그린 데이(비건 데이)’의 잔반량	
키워드 내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방법 ○ 학생 식습관 ○ 급식 잔반 ○ 단체 급식 ○ 개인의 식습관 ○ 그린 데이 ○ 학교급식 잔반 ○ 종교 음식 급식 ○ 자율배식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예술적, 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												
조사 내용(예시)													
급식 메뉴에 따른 잔반량의 차이													
‘인기 메뉴’가 있는 날의 잔반량													
‘그린 데이(비건 데이)’의 잔반량													
정리	1) 쟁점의 입장별 근거 탐색 예정 2) 토론 개요 작성 예정												

다. 3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쟁점 살피기 - 토론을 위한 쟁점 상기 및 포스트잇 정리		
전개	1) 쟁점의 근거를 찾기 - 긍정 측과 부정 측의 근거를 모두 찾기		
		긍정 측	부정 측
	쟁점 1	학생의 식습관 형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쟁점 1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급식을 통해 영향적으로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 가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억지로 급식을 먹게 되어 급식 자체를 피하게 되는 역효과 발생 - -
	쟁점 2	잔반의 책임은 학교 급식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쟁점 2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잔반을 줄이는 것도 교육의 일부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학생들의 개인적 식습관에 의해 잔반을 남기는 것이므로 잔반의 책임은 학교에 없음 - -
	쟁점 3	급식에 개인의 취향 및 문화를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가?	
	쟁점 3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단체 급식이라 해도 개인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학생들의 개인적 식습관 및 취향을 단체 급식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음 - -
	2)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 개요 작성하기		
	토론 주제: 학교급식은 개인의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쟁점 1: 학생의 식습관 형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전개	쟁점 2: 잔반의 책임은 학교 급식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쟁점 3: 급식에 개인의 취향 및 문화를 반영해줄 필요가 있는가?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정리	토론 개요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 쟁점 중 토론할 것을 예고

라. 4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지난 시간 토론 개요서 중 수정할 내용 정리 및 마무리						
전개	<p>1) 토론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진행자: 사회자 - 토론 형식: CEDA 토론의 '교차조사' 부분을 제외한 형태 <p>※ CEDA 토론의 '교차조사' 부분을 제외한 형태의 토론 규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명 내외로 토론 모둠 구성 2) 찬성측과 반대측이 번갈아가며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제시 3) 모둠을 구성하지 않은 다른 학생은 토론 합의문 작성 준비 4) 한 쟁점당 10분~15분 내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 찬성측</td> <td>2. 반대측</td> <td>3. 찬성측</td> <td>4. 반대측</td> <td>5. 찬성측</td> <td>6. 반대측</td> </tr> </table>	1. 찬성측	2. 반대측	3. 찬성측	4. 반대측	5. 찬성측	6. 반대측
1. 찬성측	2. 반대측	3. 찬성측	4. 반대측	5. 찬성측	6. 반대측		
정리	토론을 통한 해결안 점검 및 조정 예고						

마. 5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지난 시간 토론 내용 중 합의할 부분 나눔 - '공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이라는 점 상기		
전개	1)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합의안 작성을 위한 쟁점 분석표 작성		
		긍정 측	부정 측
		학생의 식습관 형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공통점	차이점
	쟁점 1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잔반의 책임은 학교 급식 환경과 관련이 있는가?	
		공통점	차이점
	쟁점 2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급식에 개인의 취향 및 문화를 반영해줄 필요가 있는가?	
		공통점	차이점
	쟁점 3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정리	선언문 작성 예정 안내	

바. 6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실천 선언문 작성 예정 -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실천 선언문 작성
전개	<p>1) 선언문 작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문 작성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작성 - ‘함께 작성하는 선언문’: 우리 학급 전체가 작성 (학교 급식 잔반을 줄이며,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 작성) - ‘나만의 선언문’: 각 학생이 개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작성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한 나만의 방법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급식은 개인의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p> <p>함께 작성하는 선언문 하나. 둘. 셋.</p> <p>나만의 선언문</p> </div>
정리	개인별 토론 소감 나누며 마무리하기

4 참고 자료

1. 기사

골라 먹는 '자율선택급식'...잔반 처리 비용은 반토막 (뉴시스, 2024.7.1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7_0002814521

'잔반 처리도 교육'... 급식실 학대 주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1250&ref=A> (KBS, 2024.03.12.)

3년간 146억 쏟아 부은 서울 학교 잔반처리비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5> (대한급식신문, 2023.11.21.)

[기후는 말한다] 탄소 줄이려 '채식 급식'...과제는 잔반 처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4885> (KBS, 2023.11.23.)

단체급식에 AI 기술 적용...잔반 감소 효과 특특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6876&ref=A> (KBS, 02. 08.)

급식 잔반 기부하는 '빈그릇 운동'...서울 시범학교 운영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5141709039749a6e8311f64_1/article.html (글로벌이코노믹, 2024. 05. 15.)



2. 도서(단행본_일반)

앤드루 스미스, 음식물 쓰레기 전쟁, 와이즈맵, 2021. 08. 20.

허승은,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든다면, 다른, 2023. 05. 25.



3. 도서(단행본_동화)

문송이, 음식 쓰레기 때문이야!, 꿈터, 2021. 12. 10.



4. 영상

'급식 잔반 증가'대책 시급 230824 | (TBC, 2023. 08. 24.)

<https://www.youtube.com/watch?v=00n2jwaLvkQ>

"잔반 줄이기의 시작이 궁금해?"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UCC) 공모전 선정작 | 경기도교육청TV

<https://www.youtube.com/watch?v=SltxvVPc7MI>

식사 메뉴·양 내 맘대로... '자율선택급식' 70→250개교로 확대

<https://www.youtube.com/watch?v=XU7-0XGLHhA>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이끌어 내어 생각을 확장하자는 의도에서 토론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토론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최근 들어 자주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논쟁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 및 여러 가지 현실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대상	중학교 1~3학년
주제(현안)	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되어야 하는가?
주요 쟁점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 2) 공동의 세금을 반려동물에게 써도 되는가? 3)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핵심 용어	○ 이 토론 내 반려동물의 정의: 강아지, 고양이 ○ 이 토론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으로, 반려동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정 지어 토론하고자 함.
학습 목표	1) 역사사지 공존형의 토론 목적을 알고, 현안 및 쟁점을 이해한다. 2)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정보를 추출하여 토론 개요를 작성한다. 3) 작성한 토론 원고를 바탕으로 토론한다. 4) 토론을 정리하고 선언문을 작성한다.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2022개정 교육과정 국어 ○ 교과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국01-01]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9국01-04]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05]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9국01-09]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9국01-10]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학습 요소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 공익적 이익,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유기견, 반려동물
수업 모형	개인 학습, 모둠 학습(모둠당 4-6명), 토론
도움자료 (기사, 단행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이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0330005272?did=NA (한국일보, 2024. 10. 09.)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전문가들 “도입 시기상조, 소탐대실 우려”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1009511348?OutUrl=naver (세계비즈, 2024. 10. 09.)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009(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2024. 08. 26.) [팩트체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할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6610 (JTBC, 2024. 09. 27.)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에 묻는다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55181.html (한겨레, 202. 08. 18.) [카드뉴스] 반려동물 장례식에 지원금까지?...형평성 논란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1016.99099003970 (국제신문, 2024. 10. 16.)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6차시)



차시	운영 과정
1차시	1) 기사를 읽고 사회 현안 탐색 2)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모형 안내
2차시	1) 현안과 연결하여 주제 탐구 2) 쟁점 관련 자료 탐색, 쟁점 정보탐색
3차시	<1차 숙의> 1) 입장별 정보의 분석 및 근거 선정 2) 토론 개요 작성하기
4차시	1) 토론하기 (CEDA 방식 허용)
5차시	<2차 숙의> 1) 토론에서 제시한 해결안에 대한 점검 및 조정
6차시	1) 실천 선언문 작성

3

차시별 학습 활동 안내



가. 1차시 과정안 및 자료

•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반려동물을 키우는 학생 조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 확인 2) 기사 함께 읽어보고 현안 탐색 -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기사 읽고 '반려동물 관련 문제' 탐색

전개	<p>1) 역사사지 공존형 토론의 개념 및 목적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발전가능 사회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쟁점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토론수업 - 주장 승부가 있는 기존의 토론 방식과는 다른, 성숙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 이 토론수업의 주된 목적 안내
정리	<p>1) 현안과 연결한 주제 탐구, 쟁점 관련 자료 탐색 등 예고</p>

• <자료> 현안과 쟁점을 살피기 위한 기사 자료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가 18일부터 열흘간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입양 전 소유자 교육의무화, 개물림 사고건의 안락사 여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의 첨예한 현안을 담고 있다. 총 5문항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양육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앞서 반려견 등록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도 2024년부터 시행한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된다.

출처, 한겨레, 2022. 08. 18.

나. 2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핵심 키워드 작성 - 현안과 연결하여 주제 관련 키워드 찾기 (접착식 메모지 활용)					
전개	1) 현안과 연결하여 주제 탐구 - 반려동물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는? -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공익적 이익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 반려동물 보유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2) 쟁점(논쟁이 되는 부분)을 3가지 선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 탐색 키워드 검색 <div data-bbox="335 709 1239 9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반려동물 보유세’ 정의와 관련한 지도</p> <p>일반적으로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은 부동산이 아니기에 ‘보유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에 대한 용어가 정의된 것이 없어 우리 토론 모형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p> </div> <div data-bbox="335 970 1239 12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키워드 내용(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 반려동물 ○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 동물 복지 ○ 유기견 ○ 반려 동물 배설물 ○ 복지 사각지대 ○ 해외 반려 동물 보유세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 </td> </tr> </table> </div> <div data-bbox="335 1252 1239 149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 사례 조사(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나라 이름:</td> <td rowspan="2" style="width: 50%; padding: 5px; vertical-align: top;">※간략하게 적어주세요.</td> </tr> <tr> <td style="padding: 5px;">사례 내용:</td> </tr> </table> </div> 3)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쟁점 선정 -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 -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을 반려동물에게 써도 되는가? - 반려동물의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 반려동물 ○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 동물 복지 ○ 유기견 ○ 반려 동물 배설물 ○ 복지 사각지대 ○ 해외 반려 동물 보유세	※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	나라 이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사례 내용:
○ 반려동물 ○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 동물 복지 ○ 유기견 ○ 반려 동물 배설물 ○ 복지 사각지대 ○ 해외 반려 동물 보유세	※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					
나라 이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사례 내용:						
정리	1) 쟁점의 입장별 근거 탐색 예정 2) 토론 개요 작성 예정					

다. 3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쟁점 살피기 - 토론을 위한 쟁점 상기 및 포스트잇 정리		
전개	1) 쟁점의 근거를 찾기 - 긍정 측과 부정 측의 근거를 모두 찾기		
		긍정 측	부정 측
	쟁점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	
	쟁점 1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반려동물로 인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반려동물은 개인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공익적 이익은 없음. - - -
	쟁점 2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을 반려동물에게 써도 되는가?	
	쟁점 2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지내는 동물이므로 사용할 수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반려동물은 개인이 선택해서 키우는 동물인데, 이 동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음. - -
쟁점 3	반려동물의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쟁점 3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기 싫어서 동물을 무분별하게 버릴 수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보유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주인이라면 애시당초 키우지 않았을 것임. - - 	

전개	2)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 개요 작성하기
	토론 주제: 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되어야 하는가?
	쟁점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쟁점 2: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을 반려동물에게 써도 되는가?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쟁점 3: 반려동물의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정리	토론 개요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 쟁점 중 토론할 것을 예고

라. 4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지난 시간 토론 개요서 중 수정할 내용 정리 및 마무리					
전개	※ CEDA 토론의 '교차조사' 부분을 제외한 형태의 토론 규칙 1) 6명 내외로 토론 모둠 구성 2) 찬성측과 반대측이 번갈아 가며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제시 3) 모둠을 구성하지 않은 다른 학생은 토론 합의문 작성 준비 4) 한 쟁점당 10분~15분 내외					
	1. 찬성측	2. 반대측	3. 찬성측	4. 반대측	5. 찬성측	6. 반대측
정리	토론을 통한 해결안 점검 및 조정 예고					

마. 5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지난 시간 토론 내용 중 합의할 부분 나눔 - '공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이라는 점 상기													
전개	1)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합의안 작성을 위한 쟁점 분석표 작성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긍정 측</th> <th>부정 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쟁점 1</td> <td colspan="2">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td> </tr> <tr> <td>공통점</td> <td>차이점</td> </tr> <tr> <td colspan="2">합의할 수 있는 부분</td> </tr> <tr> <td colspan="2">합의하기 어려운 부분</td> </tr> </tbody> </table>		긍정 측	부정 측	쟁점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		공통점	차이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긍정 측	부정 측											
	쟁점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익적 이익이 있을까?												
		공통점	차이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전개	쟁점 2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을 반려동물에게 써도 되는가?	
		공통점	차이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쟁점 3	반려동물의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공통점	차이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	
정리	선언문 작성 예정 안내		

바. 6차시 과정안

교수-학습	세부 내용
도입	1) 실천 선언문 작성 예정 -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선언문 작성
전개	1) 선언문 작성하기 - 선언문 작성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으로 작성 - ‘함께 작성하는 선언문’: 학급 전체가 작성 - ‘반려동물’을 사회적으로 함께 한다는 시선을 바탕으로 작성 - ‘나만의 선언문’: 개인적으로 작성 - ‘반려동물’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반려동물을 향한 나만의 선언문을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되어야 하는가?</div> 함께 작성하는 선언문 하나. 둘. 셋. 나만의 선언문
정리	개인별 토론 소감 나누며 마무리하기



1. 기사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이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0330005272?did=NA>

(한국일보, 2024. 10. 09.)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전문가들 “도입 시기상조, 소탐대실 우려”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1009511348?OutUrl=naver>

(세계비즈, 2024. 10. 09.)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009>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2024. 08. 26.)

[팩트체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할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6610

(JTBC, 2024. 09. 27.)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에 묻는다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55181.html

(한겨레, 202. 08. 18.)

[카드뉴스] 반려동물 장례식에 지원금까지?…형평성 논란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1016.99099003970>

(국제신문, 2024. 10. 16.)



2. 영상

"10만 원씩만 걷어도"...반려동물 보유세, 다시 불붙은 이유 | 크랩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ZO8LmX68vLQ>

[잇슈큐즈미]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나...시민들 생각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CoT95-UVvp8>

댕댕이·냥냥이 보유세?...반발 넘어도 어려운 이유 [경제콘서트] (KBS. 2024. 09. 23.)

<https://www.youtube.com/watch?v=wVV7IX8HUN0>



A | 시 대

역

지

사

지



공

존



형

토



로



고등학교용 토론수업 자료

수

어



- 심화교재 -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II 고등학교용 토론수업 자료

글쓰기 교육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가? - 생성형 AI는 글쓰기 교육에 해로운가? -

뉴욕시, 공립학교서 챗GPT 접속 차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유는 우리 교육에서도 생각해볼 만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뉴욕시 교육부는 "학생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콘텐츠의 안전성과 정확성에서 우려돼 뉴욕시 공립학교의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디넷코리아, 2023. 1. 6.)

생성형 AI에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해 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곧 '완성 글'이 작성된다. 생성형 AI의 완성 글이 글쓰기 교육에서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완성하는 글의 완성도가 질적으로 낮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쓰기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나?라는 주제 토론을 통해 글쓰기 활동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제를 통해 AI 활용과 인간의 사고력, 창의성의 차이를 탐구하며, 글쓰기가 단순한 결과물 생성이 아니라 사고를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임을 성찰하게 한다.

1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활동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성찰한다.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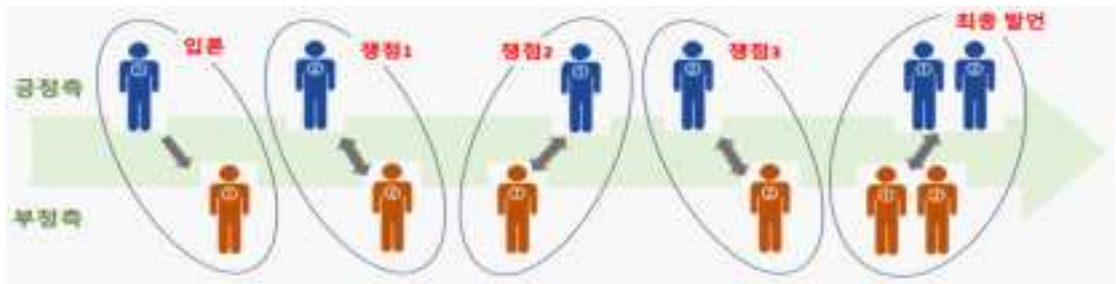
-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 중 모든 학생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한 모형인 '순차적 자료 분석형'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함
- 토론수업 진행 절차



- ⑥단계를 시행하기 전에 찬반 양측이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토론 개요서를 수정 보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 ⑦단계에서 '합의'는 **대립된 의견을 절충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다수가 한쪽 의견으로 수렴하였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소수가 있는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소수 의견을 합의문에 기록하면 좋다.**

3 활용한 토론 방법

- 공공포럼 방식을 변형하여 긍정측과 부정측 각 2명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각 발표는 2분 내외로 한다. 총 10번의 발표로 약 20분 내외
- 토론이 끝난 후 나머지 학생들이 양측 토론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입론은 논제에 대한 설명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론에서는 쟁점별 토론에서 언급할 내용은 피하고 논제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 최종 발언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추가하여 주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토론 과정

가. 논제와 쟁점 파악

논제	글쓰기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는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글쓰기 교육에 해로운가?
핵심어	생성형 인공지능, 환각(hallucination), 문식력(literacy)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은 나의 글인가? ● 쟁점 2 : 글쓰기 과정은 오직 인간 고유의 사고 과정인가? ● 쟁점 3 : 글쓰기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 사고와 표현력을 약화시키는가?

* 쟁점은 수정·보완할 수 있음

나. 쟁점 분석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은 나의 글인가? <p>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과 활용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창작행위에 있어서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인간의 고유한 창작이고,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p>
쟁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과정은 오직 인간 고유의 사고 과정인가? <p>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글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글을 작성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단지, 인간의 글쓰기를 흉내 내는(환각, hallucination) 인공지능의 글을 믿어도 될까? 글쓰기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은 가장 인간다움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p>
쟁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 사고와 표현력을 약화시키는가? <p>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배운 학생은 기술의 도움 없이 간단한 글조차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사라지고, 기계가 인간 사고의 도구인 글쓰기의 주체가 되어 글쓰기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p>

다. 정보 분석 및 요약하기

- 다음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주제토론을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별 논거와 논증을 마련한다.

(가)

글쓰기 교육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논의는 챗GPT가 등장한 2022년 말 이래 2023년 초부터 다수 등장하고 있다. 그들 논의들은 대체로 생성형 AI를 글쓰기 교육에서 수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용성에 대한 측면과 달리, 생성형 AI 시대에 글쓰기 교육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교육의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글쓰기 교육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 재인식’의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글쓰기 교육적 가치 재인식’의 상반된 두 입장에서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글쓰기 교육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쟁점

쟁점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활용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 재인식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쓰기 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교육은 인간 학습의 본질로서 새로운 기술이 대체할 수 없다.”
활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교육에 도입될 수 있는 모든 방안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도입
교육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자격(교사)으로 교육 • 학생이 기 완성한 후 교사의 첨삭이 필수적인 등 권장하기 • 학습 글 인식은 위한 챗GPT의 자기 평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글쓰기 교육 • 학습적으로도 고치는 과정의 중요성 • 자신만의 경험은 토대로 자기 습득을 위한 모습이다. 글쓰기

위 <표 1>은 앞서 살펴본 두 입장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전제, 활용범위, 교육 방안’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두 입장은 위 <표 1>의 전제에서 명제화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 즉 생성형 AI 시대에 맞게 글쓰기 교육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글쓰기 교육은 사고를 표현하는 가장 인간다운 일이라는 의견이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여기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은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점에서 교육적 변혁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반면, 사고의 표현 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한 인간 고유의 본질적 역량이라는 강조한다. 문자가 발명된 이래, 또 이미지가 도래한 시대에도 여전히 문해력(literacy)의 문제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전자의 입장은 교육을 위한 생성형 AI의 모든 활용 범위를 중시한다. 위 <표 1>에 제시된 교육 방안은 이들을 구체화한 것인데, 특히 '질문 입력(프롬프트) 교육'을 강조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글쓰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되, 사고의 과정과 표현의 과정이라는 글쓰기의 본질과 필자의 경험 중심 글쓰기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교육적 방안에서 중심에 둔다.

위 <표 1>로 정리된 글쓰기 교육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쟁점은 향후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더 커지리라 본다. 이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글쓰기 교육에 집중하는 일련의 논의에서 과연 학생 필자의 현실 글쓰기 능력에 대해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김규훈, 『생성형 AI 시대의 대학 글쓰기 교육 방향-논증적 글쓰기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101집 우리말글학회, 2024.

(나)

1) 작문의 회귀적 속성¹⁰⁾에 대한 인식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작문의 회귀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문의 회귀적 속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수·학습을 구현할 때에는 **초고 작성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 글을 고쳐쓰고 반복적으로 점검, 조정하는 행위까지 활동에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챗GPT는 초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또는 챗GPT가 생성해 낸 초고가 활동의 시작점이 되어) 초고 쓰기 이후의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의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문의 회귀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챗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작문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초·중·고·대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나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생성 인공지능 기술의 힘을 빌린 결과임이 밝혀지고 이를 둘러싼 각종 법적, 윤리적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를 필자의 최종 글과 동일시하여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미 ZeroGPT와 같은 대안적 플랫폼이 등장하여 챗GPT에 의한 부정행위나 표절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문이 일회적이지 않고 인간에 의한 수정과 변화를 거듭하는 회귀적, 역동적 행위여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10) 작문 활동에서 글쓰기의 전 단계에서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작문 활동의 속성

2) 기초 문해력의 중요성 강화

기초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를 사용하여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학습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필자로 성장하기까지 거쳐야 할 문제 해결 과정의 세부 단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험해 볼 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없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간단한 글조차 쓰지 못하는 구성원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해력 격차가 교과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학습 격차나 교육 격차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과의 대화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는 행위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에, 생성 인공지능 기술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문해력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고 **인간의 읽고 쓰는 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화됨에 따라, 기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빠르게 도태될** 우려도 있다. 기존에 글을 쓸 때 미숙한 필자들이 주로 느끼던 문장 표현, 어휘 선택, 어문 규범 준수 등의 어려움을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해소하면서, **학문과 직업 세계에서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며 인간에게 요구하는 문식 능력¹¹⁾의 수준은 추론, 분석, 비판, 예측 등의 고차원적 사고 역량으로 상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여 고차원적 사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구성원에게는 학문과 직업 세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도 출현하는 실정이다.

3) 저작권과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 고양

저작권과 쓰기 윤리에 대한 공동체 전반의 인식 수준과 그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원래 글(original writing)로 가정되던 것과 기계로 인해 생성된 글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저작권과 쓰기 윤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논쟁을 마주할 수 있다. 예상 가능한 하나의 장면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와 대비되는 인간 고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자동 생성된 텍스트가 일상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원래 글이 지니고 있던 위상과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글이나 글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글의 독창성이나 질적 우수성이 아니라, 콘텐츠 생성의 속도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변화하든, 교육, 평가 등 작문이 관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법적, 윤리적 논쟁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민,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023

11) 문식 능력(literacy)이란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글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문식성은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으로, 실세계에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 쟁점별 긍정측과 부정측의 근거 정리하기

위의 제시문 (가)~(나)를 쟁점 1~3의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여 토론 개요서 작성의 글감을 마련한다.

■ 쟁점 1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은 나의 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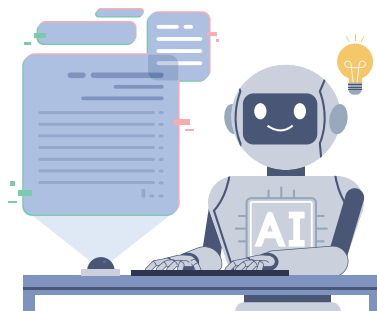
나의 글이다.	나의 글이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도 결국 나의 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단지 내가 필요한 아이디어를 도와주고 문장을 다듬어 주는 도구일 뿐,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글의 방향을 정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전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된다. 요즘에는 교정 도구나 사전도 많이 활용하는데, AI 역시 이를 돕는 기술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글은 인공지능의 도움이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의도, 표현 방식을 담고 있으므로 충분히 "나의 글"이라 할 수 있다. ● AI는 글을 완성하는 데 있어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결정과 판단에 따른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에 글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여전히 글쓴이에게 있다. AI가 제안하는 문장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최종적으로 사용할지, 어느 정도 수정할지는 전적으로 인간 필자가 선택한다. 그리고 AI는 단지 내가 제공한 주제, 키워드, 문체에 따라 작업을 할 뿐,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거나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물감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전적으로 인간 필자에게 있으므로, AI가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나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글은 본질적으로 나의 글이 아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AI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나 문장 수정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나 구조로 글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의 추천에 따라 글의 흐름이나 문체가 달라지면, 그 글은 내 고유의 창의성과 문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글의 구조나 아이디어만 창작이라고 보는 것을 넘어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글의 소재나 문체 역시 창작에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끼쳐서 최종 결과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과 공동으로 작성한 글이 되는 셈이므로 온전히 "나의 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 AI의 작문은 사용자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사고 유도나 표현 방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나 표현에 대해 인간 필자가 원하지 않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나는 AI의 편향이나 특정 스타일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내 고유한 사고나 스타일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I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글은 본래의 내 의도나 개성이 묻히고, 글의 스타일과 구성에서 인공지능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글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그 글은 순수하게 "나의 글"이라고 하기 어렵게 된다.

■ 쟁점 2 : 글쓰기 과정은 오직 인간 고유의 사고 과정인가?

인공지능으로부터 사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인간 고유의 사고 과정이므로 인공지능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의 글쓰기는 단순한 결과물 제공을 넘어 다양한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AI는 특정 주제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접근하거나,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문제 접근법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존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곧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AI의 사고과정을 따라가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사한 주제나 개념 간의 연관성을 신속히 찾아내고, 특정 주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예시와 설명을 보며 논리적 연관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고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복잡한 아이디어를 여러 단계로 나눠 설명할 때, 이를 통해 단계적인 사고방식과 체계적인 문제 접근법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인간이 사고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구조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고유의 사고과정은 경험, 감정, 직관과 같은 요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인공지능으로부터는 완전한 사고 과정을 학습할 수 없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AI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분석해 텍스트를 생성하지만, 인간처럼 맥락에 맞는 감정적 판단을 하거나 추론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지는 않는다. 인간 사고의 핵심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있기 때문에, AI의 결과물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으로는 인간 고유의 사고과정을 배우거나 깊이 이해할 수 없다. ●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텍스트는 결국 미리 정의된 패턴에 따른 결과물에 불과하며, 감정적 경험이나 직관에서 나오는 고유한 통찰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인간의 사고과정은 감각, 기억, 사회적 경험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되는데, 이는 기계적 학습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직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AI의 글쓰기에는 이런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글쓰기에서 사고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경험 기반 사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 쟁점 3 : 글쓰기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 사고와 표현력을 약화시키는가?

약화시키지 않는다.	약화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은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문법 오류나 문장의 구조적 문제를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습 중 오류를 빠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다. 또한, AI는 학습자의 글쓰기 수준에 맞춰 피드백을 조절하거나 필요한 주제와 자료를 추천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I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인공지능은 학생에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쓰기 성장에 도움을 준다. AI는 학생의 글쓰기 패턴을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거나, 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글쓰기 주제를 추천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이 개인의 필요에 맞춘 학습을 하도록 돕는 동시에, 학습자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 또한 AI는 피드백을 제공할 때 비판이 아닌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감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글쓰기 연습을 하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문장 수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글의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인 글쓰기에 필요한 자발적인 사고나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크다. AI가 자주 제안하는 방식이나 표현에 따라 학생들이 획일적인 글쓰기 습관을 가지게 되면, 글쓰기 능력의 본질적인 성장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 AI의 도움을 받는 글쓰기 교육은 학생의 독창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AI는 일반적인 패턴과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장려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이나 실험적인 구조를 사용하려 할 때, AI는 이를 수정 대상이나 오류로 인식해 원래 의도를 바꾸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AI의 개입은 학생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학생의 장기적인 성장과 독창성이 저해될 수 있다.



마.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쟁점별 논거 정리하기 활동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개요서를 작성해 보자.

논제	글쓰기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나?		
핵심어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은 나의 글인가? ● 쟁점 2 : 글쓰기 과정은 오직 인간 고유의 사고 과정인가? ● 쟁점 3 : 글쓰기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약화시키는가? 		
	긍정측		부정측
쟁점1	주장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은 나의 글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쓴 글은 나의 글이다.
	근거		
	예상 반론		
쟁점2	주장	글쓰기는 인간 고유의 사고과정이므로 인공지능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인공지능으로부터 사고과정을 배울 수 있다.
	근거		
	예상 반론		
쟁점3	주장	글쓰기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 사고와 표현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글쓰기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주체적 사고와 표현력을 약화시킨다.
	근거		
	예상 반론		

바. 토론하기

- 공공포럼 방식을 변형하여 긍정측과 부정측 각 2명으로 구성하고, 발표는 2분 내외, 총 10번 발표한다.
- 토론이 끝난 후 나머지 학생들이 양측 토론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입론은 논제에 대한 설명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론에서는 쟁점별 토론에서 언급할 내용은 피하고 논제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 최종 발언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추가하여 주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긍정측	부정측
발표자 1		
발표자 2		

입론	
----	--



토론 개요서 및 쟁점별 근거 자료를 활용한 토론



최종 발언	
-------	--

관객 학생의 질문

	긍정측	부정측
질문 1		
질문 2		

사. 합의 시도 및 합의문 작성하기

토론의 목적으로 '시민적 합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아니라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의견과 근거를 존중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적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경청과 대화를 실천한 부분을 충분히 격려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안내서」, 17쪽

	내용	이유
합의한 것		
합의하지 못한 것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법원 판결문에서 소수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소수 의견 표시는 보통 본문의 합의 내용을 기술한 후, 그 아래에 ****소수의견****이라는 표기를 달아 의견 차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견: 일부 참여자는 ~ 의견을 달리함' 또는 '소수의견: 일부는 ~에 대해 이의 제기함'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히 기재한다. 이를 통해 합의의 틀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

5 자기 성찰지 기록하기

토론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성찰 기록지를 작성하며 배움, 협력, 참여의 세 영역에서 스스로를 돌아본다. 배움의 영역에서는 토론을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과 관점을 성찰하고, 협력의 영역에서는 팀원과의 협력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 해결과 상호 지지의 효과를 되새긴다. 참여의 영역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구체화한다.

※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배움	<input type="checkbox"/> 토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토론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대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수정하거나 발전시킨 부분이 있었는가?
협력	<input type="checkbox"/>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과 잘 풀렸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발생했던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input type="checkbox"/> 협력 과정에서 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느꼈는가?

참여	<input type="checkbox"/> 토론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번 토론을 통해 어떤 참여 방법을 새롭게 배웠는가?

※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수업을 통해 얻은 것	
토론 과정에서 아쉬운 것	
토론을 통해 배운 점	

6 참고 문헌

- 김규훈, 생성형 AI 시대의 대학 글쓰기 교육 방향-논증적 글쓰기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101집 우리말글학회, 2024.
- 최진영 외,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한 고등학생의 작문 과제 고쳐쓰기 양상, 리터러시연구 제14권 6호, 2023.
- 권태현,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작문 교육의 방향 탐색-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83, 2023.
- 켄택 학부생들, 메타언어 연구로 AI시대 영어 글쓰기 교육 방향성 제시(머니투데이, 2024.11.13.,
- [김대식·김혜연의 AHA]장강명 "AI, 인간의 서사와 인간성 이해 못 할 것"(아시아경제, 2024.10.18.)

AI로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까?

- 무분별한 AI 사용이 기술과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을까? -

재귀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AI 모델이 붕괴될 수 있다. (AI models collapse when trained on recursively generated data, Nature 논문 2024.)

실제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생성된 콘텐츠보다 인간에 의해 생성되어 수집된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학생들의 삶과 미래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사고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 방출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보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논점이 되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AI 생성 데이터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깊이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 여부는 기술 발전과 정보 접근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로, 학생들은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인간의 창의적 자유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와 인간이 생산한 콘텐츠의 차이를 이해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토론을 통한 수업에서 학생의 비판적이며 윤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았다.

1 학습 목표

학습 목표 AI 생성 데이터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깊이 이해하여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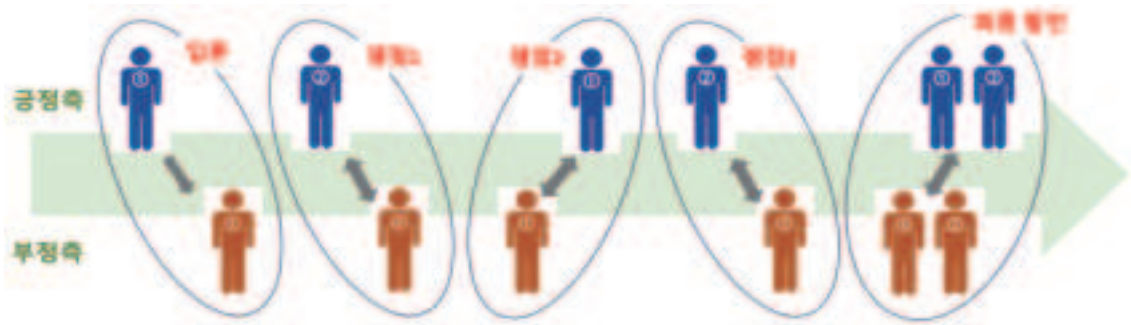
-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 중 모든 학생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한 모형인 '순차적 자료 분석형'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함
- 토론수업 진행 절차



- ⑥단계를 시행하기 전에 찬반 양측이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토론 개요서를 수정 보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 ⑦단계에서 ‘합의’는 **대립된 의견을 절충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다수가 한쪽 의견으로 수렴하였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소수가 있는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소수 의견을 합의문에 기록하면 좋다.**

3 토론 방법

- 공공포럼 방식을 변형하여 긍정측과 부정측 각 2명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각 발표는 2분 내외로 한다. 총 10번의 발표로 약 20분 내외
- 토론이 끝난 후 나머지 학생들이 양측 토론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입론은 논제에 대한 설명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론에서는 쟁점별 토론에서 언급할 내용은 피하고 논제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 최종 발언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추가하여 주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토론 과정

가. 논제와 쟁점 파악

논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방출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하나? - 무분별한 AI 사용이 기술과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을까?
핵심어	정보 신뢰성, 표현의 자유, 기술 윤리, 안전성, 지식 접근성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가? ● 쟁점 2 :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쟁점 3 :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 제한이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쟁점은 수정·보완할 수 있음

나. 쟁점의 의미 파악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가? - AI 생성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정보의 신뢰성과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까? -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더욱 신뢰할 만한가?
쟁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AI 데이터 방출 제한은 창작과 정보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정보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규제는 불가피한가?
쟁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 제한이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AI 생성물의 방출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안전성을 강화할까? AI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교육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

다. 정보의 분석 및 요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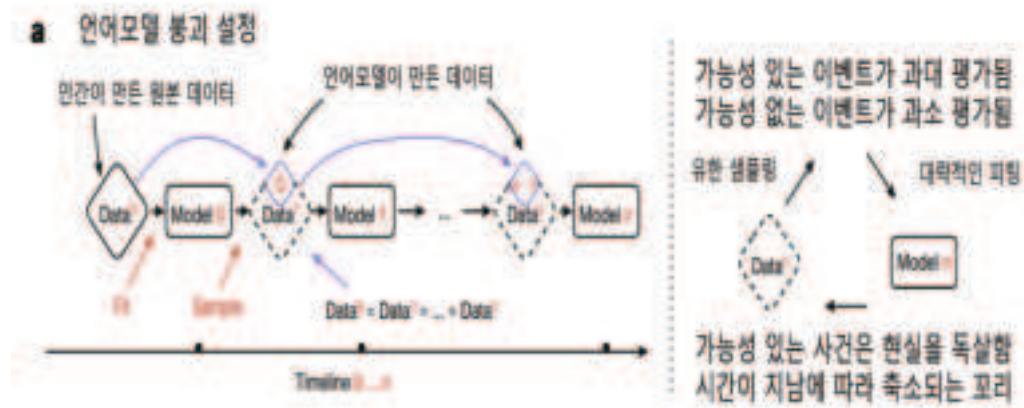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제 토론을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별 논거와 논증을 마련한다.

GPT-2, GPT-3, GPT-4는 다양한 언어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ChatGPT는 이러한 언어 모델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온라인 텍스트와 이미지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GPT- {n}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볼 것이다. 학습에 모델 생성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결과 모델에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하여 원본 콘텐츠 분포의 꼬리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 효과를 '모델 붕괴'라고 부르며, 이러한 현상이 LLM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모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중략) ... 웹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학습의 이점을 지속하려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크롤링¹²⁾된 데이터에 LLM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있을 때 시스템과 인간의 진정한 상호작용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12) 크롤링(crawling)은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다. 검색 엔진에서도 유사한 것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웹상의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색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사람들이 일일이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미리 입력된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웹 페이지를 찾아 종합하고, 찾은 결과를 이용해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 색인을 추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는 특징은 있으나 로봇의 검색 기능을 역이용하여 순위를 조작하거나 검색을 피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네이버, 구글 등도 이런 봇을 이용해 운영된다.(출처: 나무위키)

■ 쟁점

LLM의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GPT-3을 포함한 현재의 LLM은 주로 사람이 생성한 텍스트로 학습되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미래 모델의 학습 데이터도 웹에서 스크랩된다면, 필연적으로 이전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GPT 버전에서 생성된 텍스트가 다음 모델의 학습 데이터 세트의 대부분을 구성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n이 증가함에 따라 GPT-{n} 세대는 어떻게 될까? 이 연구에서는 다른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이 실제 기본 데이터 분포를 잊어버리는 퇴행적 과정인 '모델 붕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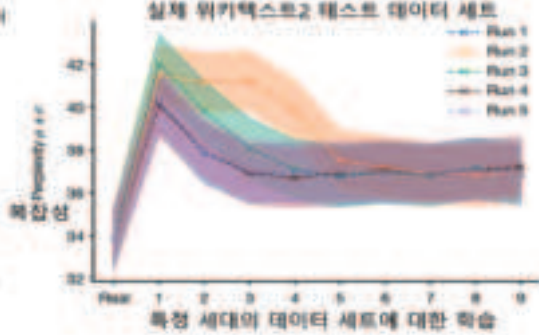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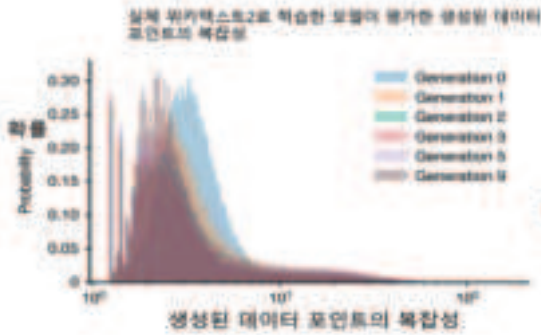
기본 분포의 꼬리가 중요한 학습 작업에서는 원본 데이터 분포¹³⁾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 대규모로 LLM을 사용하면 다음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오염될 것이며, LLM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 모델 붕괴란 무엇인가요?

논문 저자의 정의: 모델 붕괴는 학습된 생성 모델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적 과정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결국 다음 세대 언어 모델의 학습 세트를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림 a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 모델 붕괴와 후기 모델 붕괴라는 두 가지 특별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초기 모델 붕괴에서는 모델이 분포의 꼬리에 대한 정보를 잃기 시작하고, 후기 모델 붕괴에서는 모델이 원래 분포와 거의 유사하지 않은 분포로 수렴하며 종종 분산이 크게 감소합니다.

13) 언어 모델(LM, Language Model)은 입력값(자어어, 보통은 사용자의 문장)을 기반으로 통계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학습된 모델이다. 언어 모델은 통계학 이론과 딥러닝을 바탕으로 각 단어의 확률에 따라 문장을 생성해 준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는 언어 모델에 영향을 준다.

10% 데이터 보존, 10세대



세대를 거듭할수록 모델은 실제 데이터로 학습된 원래 모델이 생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샘플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후 세대에는 훨씬 더 긴 꼬리가 나타납니다. 이후 세대는 원래 모델에서는 결코 생성할 수 없는 샘플을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즉 이전 세대 모델들이 도입한 오류를 기반으로 현실을 잘못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Ilya Shumailov et al., 『AI models collapse when trained on recursively generated data』, Nature Vol. 631, 2024

라. 쟁점별 긍정측과 부정측의 근거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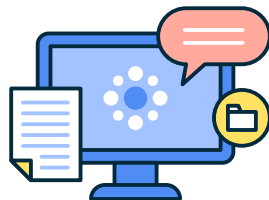
위의 제시문 (가)~(나)를 쟁점 1~3의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여 토론 개요서 작성의 글감을 마련한다.

■ 쟁점 1 :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가?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저하시킬 위험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인터넷에 단순 반복적이거나 신뢰성 낮은 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지만,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중복되거나 불안정한 정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고,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어 정보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인터넷의 정보 다양성이 감소할 위험도 있다. AI는 종종 대중적인 의견이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과 유사한 내용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수의 독특한 관점이나 신선한 정보보다는 기존의 패턴을 반복하는 정보가 늘어나면서 정보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정보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AI 생성 데이터가 주도하는 정보 환경은 더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생성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보의 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생성물에 대해 전문가 검토나 신뢰성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면, AI 생성 데이터가 신뢰성 높은 정보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AI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AI 생성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새로운 연구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여 생성물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정보에 기반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AI 생성물은 정보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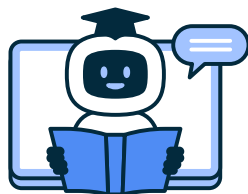
■ 쟁점 2 :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제한이 따르다 해도 규제는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은 중요하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생성 데이터는 쉽게 오용되거나 허위 정보와 왜곡된 사실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 정보가 부정확하게 확산되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AI 생성물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AI 생성물의 방출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AI 생성물의 무분별한 방출은 지식의 왜곡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해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허위 정보가 뒤섞이며 정보의 품질이 저하되고, 지식의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해도, 지식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AI 생성물의 방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은 민주 사회의 근본적인 권리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과 사고의 폭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 AI 생성물도 창작의 한 형태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AI 생성물이 주는 정보 접근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평등을 촉진한다. 규제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 AI 생성물의 규제는 개인의 학습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AI는 정보를 쉽게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연결로 인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누구나 독창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정보 접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AI 생성물은 공평한 지식 접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를 도입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축소되어 개인의 학습과 창작 기회가 제한될 위험이 있다.



■ 쟁점 3 :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 제한이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생성 데이터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허위 정보와 편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을 두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유통을 조절하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게 하여, 올바른 정보 해석 능력과 정보 윤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AI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을 두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AI 생성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며, AI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생성 데이터의 제한이 반드시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될 경우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관점 접근이 줄어들 수 있다. 제한은 검열의 성격을 띠게 되며, 정보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학습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오히려, AI 생성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교육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AI 생성 데이터의 제한은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사용은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AI 생성 데이터를 제한하는 대신, AI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의 출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스킬을 갖출 수 있다.



마.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쟁점별 논거 정리하기 활동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개요서를 작성해 보자.

논제	AI로 생성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방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가?		
핵심어			
쟁점	쟁점 1 :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가? 쟁점 2 :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쟁점 3 :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 제한이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긍정측	부정측
쟁점1	주장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없다.
	근거		
	예상 반론		
쟁점2	주장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제한이 따른다 해도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 규제는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은 중요하므로 AI 생성 데이터의 방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근거		
	예상 반론		
쟁점3	주장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 제한이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 생성 데이터의 인터넷 방출 제한이 사회적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
	근거		
	예상 반론		

5

참고 문헌



- Ilia Shumailov et al., AI models collapse when trained on recursively generated data, Nature Vol. 631, 2024
-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면... AI 모델이 붕괴되는 걸 입증한 네이처 논문 등장 | AI 주도권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더 강해진다? (유튜브, 안월공학-IT테크신기술, 2024.7.27.)
- 날뛰는 AI 문제 잡으러 온 AI 윤리 전문가 | 미래직무탐구 EP.1 (유튜브, LG그룹, 2024.3.29.)
- EU, 세계 첫 AI규제법 승인...프 위원회 "AI에 5년간 35조 투자하라" / YTN (유튜브, YTN, 2024.3.14.)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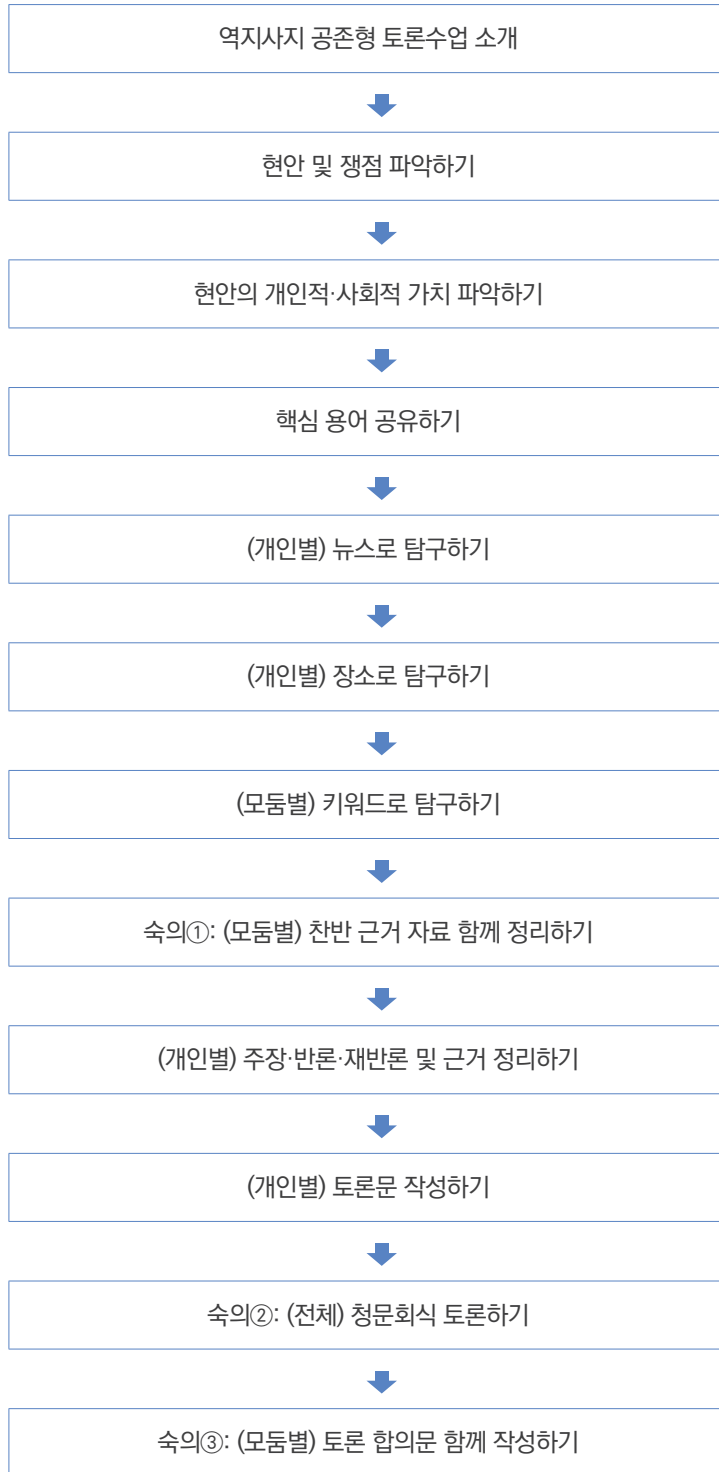
최근 비건 및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 및 건강을 위하여 동물을 먹거나 동물을 활용한 제품 사용을 지양하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패션 분야에서는 옷이나 각종 장신구에 동물 가족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비판적이다. 이에 동물의 재료를 음식물로 이용하거나 패션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 학생들은 심층적 탐구를 통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하고자 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구분	내용
현안 (토론 주제)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성취 기준	<p>[12현윤02-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 <p>[12현윤01-02] 동양 및 서양의 윤리사상, 사회사상의 접근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와 쟁점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p> <p>[12윤탐04-01] 반려동물과 관련한 윤리문제, 동물 복지를 둘러싼 논쟁 등을 윤리적 관점에서 탐구하여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p> <p>[10통사1-03-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안한다.</p>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 패션을 위한 비건 가족의 사용 -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 중심주의 vs 동물 중심주의 - 음식물로서의 동물 vs 패션 활용으로서의 동물 - 합리적 소비 vs 윤리적·가치 소비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가. (개인별) 토론 주제 및 토론 주제의 가치

토론 주제		동물 가죽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토론 주제의 가치	개인적 (진로, 흥미 등)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이나 가방, 지갑 등을 평소 좋아하고, 앞으로 패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회적	이 토론 주제는 최근의 비건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동물 복지 및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다.

나. (모둠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	정의
동물 가죽	소, 양, 돼지, 악어, 너구리, 족제비 등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동물의 가죽을 말한다.
의류 제품	몸과 외모를 보호하거나 꾸미는 것들의 총칭으로 옷, 가방,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다. (개인별) 탐구①: 뉴스로 탐구하는 토론 주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패션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가 동물 가죽을 소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가죽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가죽은 소, 돼지, 염소, 양 뿐만 아니라 비단뽀, 악어 등 이국적인 동물들을 죽여 만든다. 이들에게서 비롯되는 가죽은 부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죽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에 단체는 가죽은 동물의 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죽을 구입하는 것은 끔찍하고 부끄러운 동물 학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천이나 인조 가죽, 비건 가죽 등 충분한 선택지가 있다며 가죽이라는 이름의 동물 학대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2024.5.17

- 위 뉴스를 보고 여러분은 동물 가죽을 의류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나요?
- 동물 가죽을 의류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고기로 이용한 이후의 부산물로 사용되는 동물 가죽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본다.

라. (개인별) 탐구②: 장소로 탐구하는 토론 주제

동물을 인간의 몸 안에서 활용하기	동물	동물을 인간의 몸 밖에서 활용하기
		
		

- 소고기나 양고기를 인간의 몸 안으로 소화하여 먹는 것은 찬성하지만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활용하여 가방이나 옷을 만들어 인간의 몸 밖을 치장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나 양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미 죽은 동물에서 버려지는 동물 가죽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단지 비건 열풍에 기대어 동물 가죽을 의류 제품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아무리 죽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다고 해도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물 가죽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마. (모둠별) 탐구 ③: 키워드로 탐구하는 토론 주제

구분		내용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 가죽 ● 비건 가죽 ● 인조 가죽 ● 송치 가죽 ● 공리주의 ● 동물복지(피터 싱어) ● 동물권(탐 레건) ● 인간 중심주의(칸트/베이컨/데카르트/아리스토텔레스) ● 합리적 소비 ● 윤리적 소비 ● 가치 소비 ● 내재적·고유의·본질적 가치 ● 수단적 가치 ● 인간의 욕망 ● 지속 가능 패션 ● 유행 ● 히그 지수(Higg Index) ● 그린워싱 ● 암스테르담 조약(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 <p>※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예술적, 윤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찾아보세요.</p>
관련 주요	교 과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와 윤리(II. 생명윤리와 생태 윤리 / 3. 자연과 윤리) ● 현대사회와 윤리(I. 현대 생활과 윤리 / 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 통합사회 I (III. 자연 환경과 인간 /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어백 대신 옥수수백... “지속 가능 패션 지향하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09516) ● ‘레자’라 천대받던 가짜 가죽들의 화려한 귀환? 비건(Vegan) 가죽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7581/) ● ‘비건·에코 리더’는 정말 친환경적일까 (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4/06/13/0036) ● [이슈분석] 잘 나가던 소가죽 이제는 찬밥 신세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364) ● [박종무의 생명이야기⑦] 동물이라는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https://www.dailyvet.co.kr/news/31554) ● 글로벌 비건레더 시장, 2030년 1394억 넘는다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80) ● [특허청 보도자료] 인조 가죽, 동물복지에 친환경을 더하다. - 인조 가죽 ‘친환경 기술’ 특허 출원 연평균 20% 증가 (2022.5.29.)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훈, 동물 윤리 대논쟁, 사월의책, 2020 ● 피터 싱어,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유빈, “비건 인조 가죽 패션 제품의 지각된 혜택 및 위험이 소비자 신뢰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섬유학회지, 2023년 6월. ● 김지영, “패션 성향에 따른 지속가능패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9.

바. (모둠별) '쟁점 탐구 활동지' 작성하기

쟁점 탐구 활동지

토론 주제	동물 가죽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토론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비건 가죽이 천연 가죽보다 친환경적인가? - 쟁점 2: 동물복지가 패션의 자유보다 중요한가? 		
구분	찬성	반대	
쟁점1	주장	비건 가죽이 천연 가죽보다 친환경적이다.	비건 가죽이 천연 가죽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 균사체로 만든 콤부차 가죽, 포도 부산물로 만든 비제아 가죽, 폐기된 파인애플 잎으로 만든 피나텍스 가죽 등 비건 가죽은 천연 가죽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기반 합성소재로 만든 비동물성 가죽이 제조 과정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다이옥신 등을 발생시킨다. • 대량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천연 가죽이나 비건 가죽이나 비슷하다.
	참고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에코 리더’는 정말 친환경적일까 (https://news.bizwatch.co.kr) • “비건 가죽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겨레21:202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죽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맹점” (충북일보:2024.2.28.)
쟁점2	주장	동물복지가 패션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동물복지가 패션의 자유보다 중요하지 않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 동물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경제적 활동이 더 요구된다. • 모피 코트 하나를 만드는 데 40마리 이상의 동물이 필요하다. 비건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면 동물의 희생 없이도 충분히 패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패션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할 권리가 있다. • 데카르트나 칸트 등 인간중심주의 윤리학자들은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보다 인간의 자유 신장이 더 우선이다.
	참고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죽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한겨레21:202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사. (개인별) '토론문 개요서' 작성하기

토론문 개요서

1. 분야별 근거 자료 정리하기

구분	입장	내용	출처
① 일상생활	찬성	• 비건 패션 아이템이 최근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 연합뉴스(2022.11.7.)
	반대	• 비건 가죽보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동물 가죽만의 멋이 있다.	• 각종 블로그의 글들
② 교과서	찬성	• 동물 가죽 같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 불과하다.	• '생활과윤리' 교과서(161쪽)
	반대	• 유행을 따르려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	• '생활과윤리' 교과서(160쪽)
② 통계자료/ 시사자료 (뉴스, 영화 등)	찬성	• 버섯 가죽은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다.	• SDG뉴스(2023.11.24.)
	반대	• 비건 가죽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다이옥신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한겨레21(2022.8.3.)
③ 책/사상가	찬성	•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피터 싱어, 『동물해방』(연암서가, 2012.)
	반대	•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 '생활과윤리' 교과서(135쪽)

2. 주장(동물 가죽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및 근거

①	일상생활	• 비건 패션 아이템이 최근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②	교과서/통계자료/시사자료	• 버섯 가죽은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다. • 동물 가죽 같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 불과하다.
③	책/사상가	•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3. 반론 및 재반론 구분

구분	반론	재반론
①	• 비건 가족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다이옥신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의류 생산 과정에는 비건 가족이건 동물 가족이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대신 비건 가족은 동물들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남다르다.
②	•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 중심주의)	•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터 싱어)

아. (개인별) 토론문 작성하기

학번() 이름()

토론문

토론 주제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찬성	(√)
		반대	()
토론 주제의 가치	이 토론 주제는 최근의 비건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동물 복지 및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다...		
↓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동물 가족’은 소, 양, 돼지, 악어, 너구리, 족제비 등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동물의 가족을 말하고,...		
↓			
주장	나는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차원에서 근거를 제시하겠다.....		
↓			
근거 ①	첫째, 사회적 차원에서 비건 패션 아이템이 최근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	
	근거 ② 둘째, 환경적 차원에서 버섯 가족은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다....
↓	
	근거 ③ 셋째, 윤리적 차원에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반론 및 재반론 나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비건 가족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다이옥신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론에 대해...



자. (전체) 청문회식 토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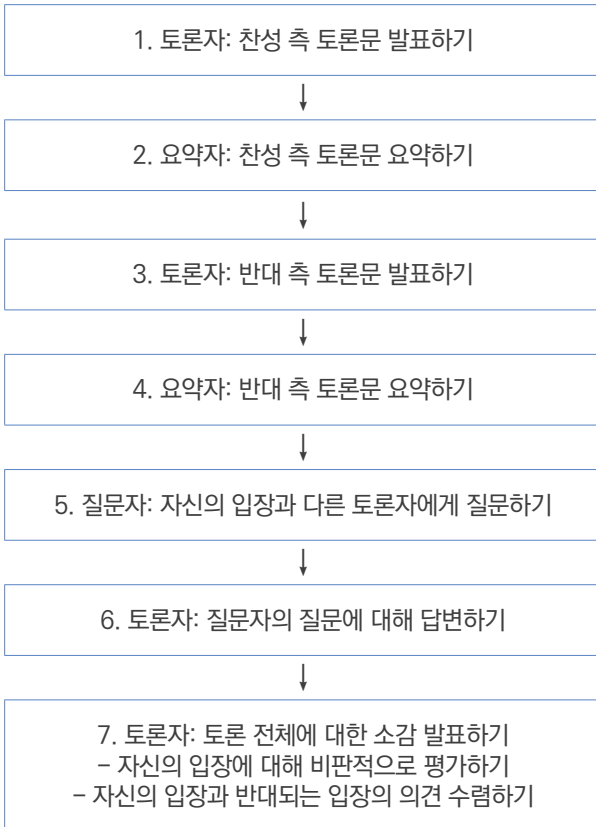
1) 청문회식 토론 참가자 구성

구분	사회자	토론자	요약자	질문자	청중
인원	1명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찬성 측 3명 반대 측 3명	나머지

2) 청문회식 토론 참가자 배치도



3) 청문회식 토론 순서



※ 청문회식 토론의 규칙

- 찬성(반대) 측 토론자가 발표하면 찬성(반대) 측 요약자가 요약한다.
- 질문자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지닌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같은 입장을 지닌 토론자에게도 질문할 수는 있다.
- 질문자는 입장별로 3명을 미리 선정하여 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리 선정된 질문자의 질문이 전부 끝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차. (모둠별)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합의문' 작성하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합의문

()모둠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토론 주제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이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비건 가족도 종류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비건 가족이건 동물 가족이건 대량 생산·유통·소비 과정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쟁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패션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합의할 수 없는 부분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과 동물 가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쟁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과 패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 동물 가족을 부산물로 사용하여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과 비건 가족을 의류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의 친환경 제조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환경 오염 유발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과학적인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다. • 동물을 부산물로서 음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환경적으로 허용되지만, 동물을 부산물로서 의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도덕적/환경적으로 어떻게 정당화 가능한지 성찰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소감	학번()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이라고 전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을 사용하여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번()이름()		
	학번()이름()		

1) 뉴스

- 악어백 대신 옥수수백... “지속 가능 패션 지향하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09516>)
- ‘레자’라 천대받던 가짜 가죽들의 화려한 귀환? 비건(Vegan) 가죽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7581/>)
- '비건 에코 레더'는 정말 친환경적일까
(비즈워치: 2024.6.16.)
- [이슈분석] 잘 나가던 소가죽 이제는 찬밥 신세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364>)
- [박종무의 생명이야기⑦] 동물이라는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https://www.dailyvet.co.kr/news/31554>)
- 글로벌 비건레더 시장, 2030년 1394억 넘는다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80>)
- [특허청 보도자료] 인조 가죽, 동물복지에 친환경을 더하다. - 인조 가죽 ‘친환경 기술’ 특허 출원 연평균 20% 증가 (2022.5.29.)

2) 책

- 최훈, 동물 윤리 대논쟁, 사월의책, 2020
- 피터 싱어,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3) 논문

- 김유빈, “비건 인조 가죽 패션 제품의 지각된 혜택 및 위험이 소비자 신뢰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섬유학회저널, 2023년 6월.
- 김지영, “패션 성향에 따른 지속가능패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9.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가 현재 251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4.89%로 5%를 넘으면 OECD로부터 다문화 국가로 인정받는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인권 침해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이주민 대비 16.9%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역사사지 공존형 토론을 하고자 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구분	내용
현안 (토론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성취 기준	[12현윤05-03] 다문화 이론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교 갈등, 이주민 차별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탐02-04]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과 난민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0통사1-04-04]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학습 요소	- 외국인 체류자 증가와 범죄 발생률의 상관관계 - 이민자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책 -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국가 경쟁력 지수의 관계 - GDP 인종주의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3

토론수업 과정

가. (개인별) 토론 주제 및 토론 주제의 가치

토론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토론 주제의 가치	개인적 (진료, 흥미 등)	식당이나 지하철 공사장, 방송국 같은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관심이 있다.
	사회적	뉴스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가져감으로써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거나, 외국인 문화에 대한 혐오 문제, 외국인 범죄 논란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모둠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	정의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지하철 등의 건설 현장, 농촌의 밭이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대기업 사원이나 방송인 등도 전부 포함한다.
국가 발전	경제적 차원에서 GDP 증가,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성의 증대로 문화가 발전하고 창의력이 향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다. (개인별) 탐구①: 뉴스로 탐구하는 토론 주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것. 무단이탈한 2명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 두절 상태이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일을 했지만 한 달 사이에 24가정이 서비스 중도 취소했다. 정부는 애당초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가사 및 육아 업무에 투입하면 출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적용해 이용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현재 법의 틀 안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만 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에도 국적이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헬스경향(2024.10.4.)

- 위 뉴스를 보고 여러분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 제도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나요?
-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만 내국인들이 많이 취업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열심히 일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미등록 이주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라. (개인별) 탐구②: 장소로 탐구하는 토론 주제

유럽에서 벌어지는 동양인 혐오 사례	미국에서 벌어지는 멕시코인 차별 사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혐오 사례
<p>코로나19 확산 시 유럽에서 혐오 및 증오 범죄에 노출된 동양인들</p>	<p>멕시코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설치한 멕시코 장벽</p>	<p>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유학생들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p>

-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인을 향한 혐오·증오·차별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혐오 및 증오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에 엄격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모둠별) 탐구 ③: 키워드로 탐구하는 토론 주제

구분		내용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광로 이론 ● 샐러드볼 이론 ● 세계화 ● 필리핀 가사 관리사 ● 일자리 부족 (외국인 vs AI) ● 3D업종 ●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 차이와 차별 ● 문화 다양성 선언 ● GDP 인종주의 ● 톨레랑스 ● 프랑스의 히잡 착용 금지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 딜레마 ● 갈통의 문화적 폭력 ●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설치 ● 영국의 브렉시트 ● 외국인 범죄율 통계 <p>※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찬반 근거를 다각적(경제적, 윤리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등)으로 찾아보세요.</p>
관련 주요 자료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와 윤리(V.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 3. 다문화 사회의 문제 해결) ● 윤리문제 탐구(II. 시민의 삶과 윤리적 탐구 / 4. 배타적 민족주의의 문제 해결 방안) ● 통합사회 I (IV. 문화와 다양성 / 4.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해결 방안)

관련 주요 자료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누리: 체류 외국인 현황 (2024.7.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56) ● KBS뉴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팩트체크K](2023.6.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1977) ● KBS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팩트체크K] (2023.6.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1013) ● KBS뉴스: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미국이 ‘반이민’ 국가 된 이유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2024.2.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342) ● 유럽 내 히잡 착용: 유럽사법재판소, 공공기관서 ‘종교적 상징물 금지’ 적법 판결 (2023.12.9.) (https://eucentre.yonsei.ac.kr/board/view?bd_id=eu_news&wr_id=1360) ● 『세계화는 여전히 경제에 축복』(Angus Deaton, 매일경제, 2017.1.16)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7679201) ● 짱깨·흑형·개슬람… 우리 안의 인종차별을 돌아보라 (2022.10.9.)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2/10/08/MM5OY6QGD5GG713JOZZN2BUJHA/) ● 외국인 임금 깎으면 벌어지는 일들 (2019.7.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6.18.)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97)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희옥, 한 번은 불러보았다, 위즈더하우스, 2022. ● 요한 갈통(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마이클 샌델(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주요국 해외 인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2023년 1월) ● 김동록·정의롬,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 외국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4호, 2023. ●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 표현의 문제 - <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019. ● 윤성욱, “브렉시트가 바꾼 영국: 사회적 분열의 심화와 증오의 확산”, 코리아센서스연구원, 2023.

바. (모둠별) '쟁점 탐구 활동지' 작성하기

쟁점 탐구 활동지

토론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토론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1: 외국인 노동자는 GDP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가? - 쟁점2: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가? 		
구분	찬성	반대	
쟁점1	주장	외국인 노동자는 GDP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GDP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 않는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하기 싫어하는 3D업종 분야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GDP 향상에 기여한다. •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논문과 책이 다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10%로 오를 때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1.4% 감소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참고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팩트체크K) (KBS뉴스:2023.6.3.) • (야마코토 시게노부/김상대 외 역)『국제 노동 이동의 경제학』(한울아카데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철희 외, “산업·직종별 노동시장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비중에 관한 실증 분석”(한국은행 미출간 보고서, 2018)
쟁점2	주장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 경쟁력 지수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다. (국민의 유연성·적응성 분야의 상승도가 높다.)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생산에 기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문화 활동가들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내국인들이 꽤 많음을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외국인들은 살인, 마약 등 중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
	참고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6.18.) • '생활과윤리'와 '통합사회' 교과서의 다문화 사회 관련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록·정의롬,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 외국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4호, 2023. •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 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019.

사. (개인별) '토론문 개요서' 작성하기

토론문 개요서

1. 분야별 근거 자료 정리하기

구 분	입장	내용	출처
① 일상생활	찬성	● 지하철이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 “수도권 건설 노동자 5명중 1명은 외국인” (조선일보:2024.10.22.)
	반대	● 식당이나 중소기업에 외국인들이 저임금으로 취업하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 “내외국인 일자리 경쟁 시대”(KBS뉴스: 2019. 2.19.)
② 교과서 통계자료/ 시사자료 (뉴스, 영화 등)	찬성	● 외국인들이 많아져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 현대사회와 윤리 교과서 (170쪽)
	반대	●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종교, 가치관 등에서 혐오 및 증오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 현대사회와 윤리 교과서 (172-173쪽)
	찬성	●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내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철희 논문(“산업·직종별 노동시장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비중에 관한 실증 분석”(한국은행 보고서, 2018)
	반대	● ‘청년경찰’ 영화를 보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서 살인, 마약 같은 각종 중대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 ‘청년경찰’ 영화
③ 책/사상가	찬성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의 경제력이나 문화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반대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미국 국내의 일자리 경쟁이 심해져 내국인들은 자기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 마이클 샌델(합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아이즈베리, 2020)

2. 주장(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및 근거

①	일상생활	● 지하철이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각종 뉴스 자료)
②	교과서/ 통계자료/ 시사자료	●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내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철희 논문) ● 외국인들이 많아져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교과서)
③	책/ 사상가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의 경제력이나 문화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3. 반론 및 재반론

구분	반론	재반론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경찰’ 영화를 보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서 각종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같은 문화적 매체에 의해 생기는 문화적 폭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국내의 일자리 경쟁이 심해져 내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일반인들은 많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뉴스에서 팩트체크한 기사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아. (개인별) 토론문 작성하기

학번() 이름()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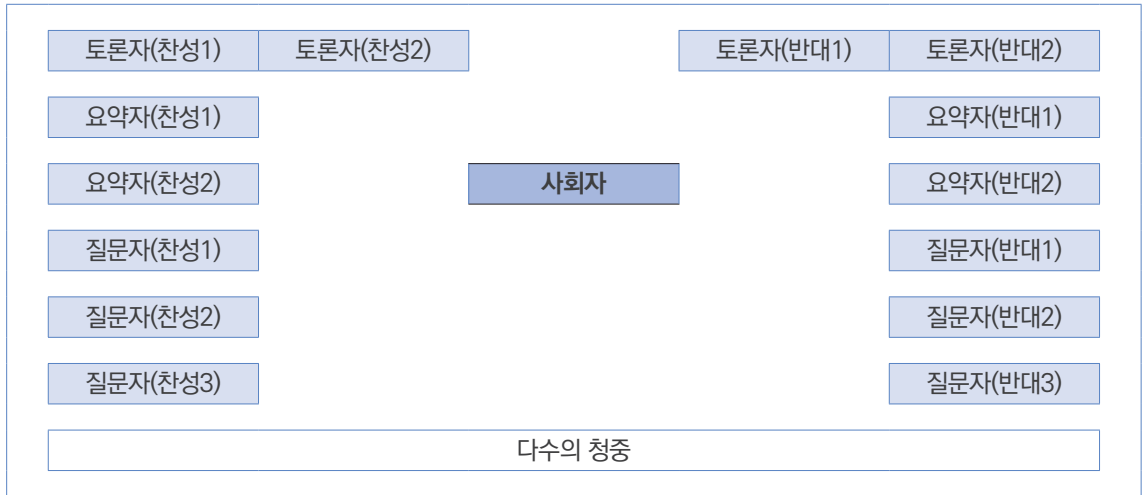
토론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찬성	(√)
		반대	()
토론 주제의 가치	이 토론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가져감으로써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거나...		
↓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			
주장	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근거를 제시하겠다.....		
↓			
근거 ①	첫째, 사회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하철이나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들이 근무하기 싫어하고 일을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자. (전체) 청문회식 토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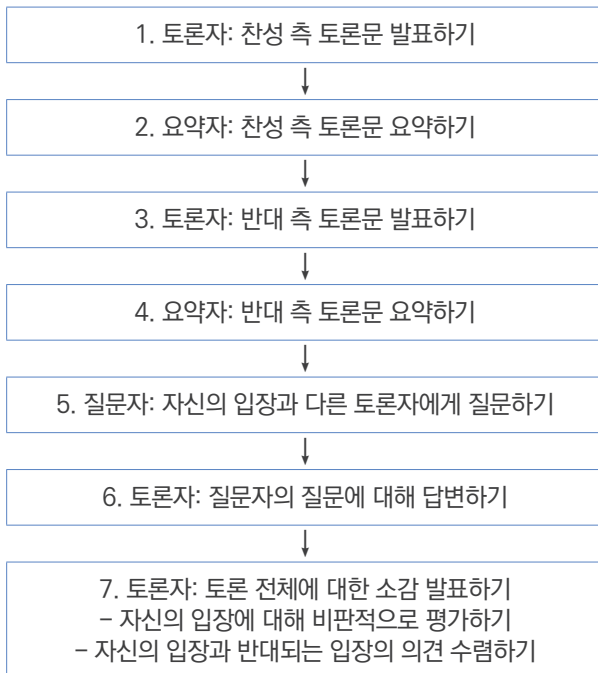
1) 청문회식 토론 참가자 구성

구분	사회자	토론자	요약자	질문자	청중
인원	1명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찬성 측 3명 반대 측 3명	나머지

2) 청문회식 토론 참가자 배치도



3) 청문회식 토론 순서



※ 청문회식 토론의 규칙

- 찬성(반대) 측 토론자가 발표하면 찬성(반대) 측 요약자가 요약한다.
- 질문자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지닌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같은 입장을 지닌 토론자에게도 질문할 수는 있다.
- 질문자는 입장별로 3명을 미리 선정하여 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리 선정된 질문자의 질문이 전부 끝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차. (모둠별)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합의문' 작성하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합의문

()모둠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토론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3D업종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GDP가 증대된다. 	
	쟁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거주할수록 내국인들은 다양한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합의할 수 없는 부분	쟁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오를수록 기업의 효율성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 기피하는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근무하게 하여 해당 기업을 살려 놓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쟁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부정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이나 서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황을 분석한 논문이나 책, 혹은 뉴스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외국인 범죄가 실제로 많아지는지에 대해 엄밀하게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종류(예를 들면, 절도나 강도, 혹은 마약, 살인 등)도 함께 분석해야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인별 소감	학번()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외국인 범죄가 많아져서 국내 치안이 걱정됐는데, 구체적인 팩트체크를 통해서 내국인 범죄 발생 비율이 외국인 범죄 비율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번()이름()		
	학번()이름()		
	학번()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논문 속의 통계자료를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경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학번()이름()		
	학번()이름()		

4

토론 수업 시 안내 사항

활동 순서	활동명	활동 주체	안내 사항
1	쟁점 탐구 활동	모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토론 주제)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2개의 핵심 쟁점을 마련함. 보통은 쟁점을 3개 정도 마련하나,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나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쟁점을 2개 마련한 것이다. 모둠별로 함께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근거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활동이다. 모둠별로 협력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모둠원 전체가 근거를 함께 찾았기 때문에 공유하기도 편하다.
2	토론 개요서 작성	개인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점 탐구 활동에서 2개의 쟁점에 대해 찾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중심으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 쟁점 탐구 활동은 모둠원 전체가 공유하는 핵심 자료이고, 토론 개요서 작성 활동은 쟁점 탐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관심사를 추가하여 근거 자료들을 토론문 개요 양식에 맞추어 재정리하여 탐구하는 활동이다.
3	청문회식 토론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문회식 토론은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토론이다. CEDA 토론을 실시하려면 엄격한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청문회식 토론이 토론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청문회식 토론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CEDA 토론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CEDA 토론은 입론, 교차 조사, 반론, 최종 발언 등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고, 시간도 1분, 3분 등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합의문	모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토론하는 실질적 이유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을 통해 이기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문제 해결 방안을 협력적으로 찾아내는 데 있다.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둠별로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다.

5

참고 자료

1) 뉴스

- 지표 누리: 체류 외국인 현황 (2024.7.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 KBS뉴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팩트체크K](2023.6.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1977>)

- KBS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팩트체크K] (2023.6.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1013>)
- KBS뉴스: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미국이 '반이민' 국가 된 이유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2024.2.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342>)
- 유럽 내 하잡 착용: 유럽사법재판소, 공공기관서 '종교적 상징물 금지' 적법 판결 (2023.12.9.) (https://eucentre.yonsei.ac.kr/board/view?bd_id=eu_news&wr_id=1360)
『세계화는 여전히 경제에 축복』(Angus Deaton, 매일경제, 2017.1.16)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7679201>)
- 짱깨·흑형·개슬람... 우리 안의 인종차별을 돌아보라 (2022.10.9.)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2/10/08/MM5OY6QGd5GG7I3JOZZN2BUJHA/>)
- 외국인 임금 깎으면 벌어지는 일들 (2019.7.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6.1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97)

2) 책

- 정희옥, 한 번은 불러보았다, 위즈덤하우스, 2022.
- 요한 갈통(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마이클 샌델(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3) 논문

-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주요국 해외 인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2023년 1월)
- 김동록·정의롬,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 외국인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4호, 2023.
-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 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019.
- 윤성욱, “브렉시트가 바꾼 영국: 사회적 분열의 심화와 증오의 확산”, 코리아센서스연구원, 2023.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2023년 6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세계 강제 이주민(Forced Migration) 수가 1억1천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구호위원회(IRC)는 사상 최고치의 강제이주민이 발생한 것은 인도주의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적 사회방호책(guardrails)이 해체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경제적 혼란, 무력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 협약에 가입했으며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우호적인 난민 정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0.04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어 난민 수용률이 세계 139위에 그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외국인 혐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교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둠 기반 공존형 토론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법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응이 필요함을 살피는 것인지, 외국인 및 이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가까운 제노포비아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본 토론은 다음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한국의 난민 수용 정책을 분석하여 세계시민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강제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사지 공존형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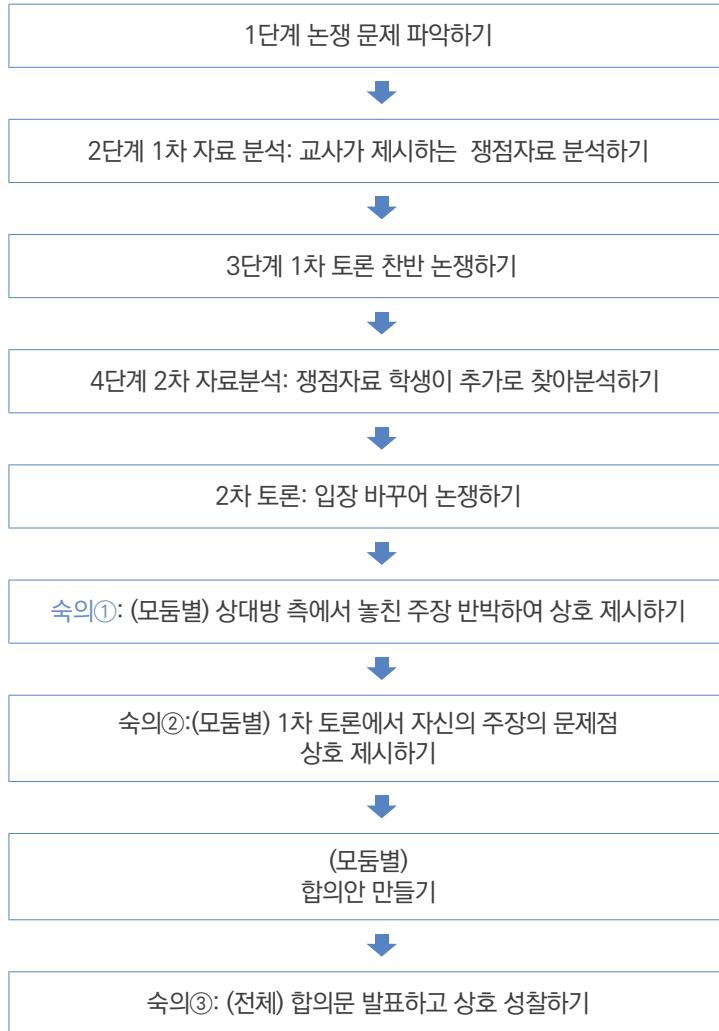
1

토론수업 개요

구분	내용
현안 (토론 주제)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성취 기준	[12사탐05-02]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12세지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학습 요소	- 난민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분석 및 한국의 입장 - 난민법에 대한 이해 -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인도주의에 대한 찬반 - 난민 혐오에 대한 팩트 체크

2

모둠형 토론수업 운영 과정



3

토론수업 과정

가. (모둠별) 논쟁 문제 파악하기

토론 주제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토론 주제의 가치	개인적	21세기는 난민 위기의 시대로 다양한 원인으로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강제이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난민들의 새로운 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나. (모둠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하기

용어	정의
난민 위기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일 평균 4만 4천 명이 분쟁과 박해로 인해 난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만이 난민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인권 침해와 박해, 기아와 기근, 기후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951년 유엔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1988년에는 '국내 실항에 대한 지도원칙'을 발표했고 두 가지 모두 피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은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향해 박해로부터 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2단계) 1차 자료 분석: 교사가 제시하는 쟁점 자료 분석하기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53%였다. 여성과 남성, 청년과 중 장년층 어떤 집단에서도 수용 찬성이 더 높은 경우는 없었다. 난민 수용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64%), 범죄 우려 등 사회문제(57%), 가짜 난민(49%)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반대 이유의 상위 순위의 경우 난민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먼저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뿐이었다.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이며,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도 155명에 그쳤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대부분 1차 심사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된다”라며 “이른바 가짜 난민이 인정 심사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난민 신청의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과거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난민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면 심사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길도 막히게 되는 개정안에 대해 난민문제 활동가들은 “외국인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가짜 난민' 행세를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일보(2021.2.15.)

● 모둠 내에서 학생들은 신문 기사를 읽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한다.

● 학생들은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 수용과정에 대한 일반인인 인식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 한국에서 난민 수용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범죄 증가 우려, 가짜 난민 문제 등이 있는데 유엔난민기구는 가짜 뉴스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난민활동가들은 가짜 난민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관련 경험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라. (3단계) 1차 토론: 찬반 논쟁하기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을 국내로 이송한 것을 계기로 문화적·종교적 이질감 등으로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측에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1년 8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다가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본인들 나라를 내팽개쳤다"며 "옛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다"며 "난민들을 받는 순간 우리는 테러에 노출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까지 1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박성제 변호사는 "국제 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등으로 좁게 해석돼있다"고 했다. 그는 "내전이 일어났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아프간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탈북민 30만명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아시아를 떠돌고 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2021.8.25.)

- 교사는 난민 수용과 관련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주장이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시간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제시함)
- 모둠형 토론수업 4단계에서 토론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다시 찾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부하는 자료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전부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 근거: 한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을 제정했다. 아프간 난민 중에 한국 정부에 기여한 사람들을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수용했다.
 -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 근거: 국제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 탈북민 등 동아시아에 있는 난민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 학생들은 토론 문제의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하고 모둠 내에서 발표한다.

구분	난민 수용 찬성	난민 수용 반대
1	국제난민협약, 난민법 제정	국제법, 국내법 난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2	난민위기의 시대 인도주의적 대응	사회문화적 차이, 테러 등 범죄 증가
3	난민 수용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유럽 등 난민수용했던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 부정적 인식 증대

- 모둠 내에서 토론 문제에 대한 찬성 팀과 반대 팀으로 나눈다.(가급적 인원이 같도록 조정) 팀별로 토론 문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상대 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나 논박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보도록 안내할 수 있다.

마. 4단계 2차 자료 분석: 학생이 쟁점 자료를 추가로 찾아 분석하기

구분		내용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 로힝야 ● 기후위기 ● 혐오 ● 난민법 ● 가짜 난민 ● 테러 ● 예멘 난민 ● 이슬람 혐오 ● 동아프리카 대기근 ● 카리브해 ● 기후변화 ● 아프간 특별기여자 ● 인도주의 ●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 세계시민 ● 한국전쟁 ● 강제이주민 ● 세계난민의 날 ● UNHCR(유엔난민기구) <p>※ 시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찬성, 반대 입장에 따른 자료분석하기를 해보세요.</p>
관련 주요 자료	교 과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리(VI. 다문화) ● 세계사(VI. 현대세계의 변화 / 2.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 ● 생활과윤리(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 6.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 (2021.2.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09340004112 ● 집단 이주' 날벼락...10억 기후 난민이 온다 (2024.6.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1460 ● 바닷물이 밀려든다...삶의 터전 떠나는 '기후난민' 구나족 [만리재사진첩]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43427.html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메리 베스 레더데일(원지인 역), 우리 밖의 난민, 우리 곁의 난민, 보물창고, 2019. ● 모하메드, 김준표, 예멘 난민 제주: 나의 난민 일기, 온샘, 2022. ● 장성익,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 난민이 많대요, 풀빛미디어, 2021.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진, 국제 난민 규범의 내재화 분석 : 2018년 예멘 난민에 대한 법무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회, 2024. ● 임보미, 김치정, 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구대학교, 2024. ● 이채영, 국내 난민교육 이슈 분석과 난민 정책적 시사점 탐색 -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2023.

바. 5단계 2차 토론: 입장 바꾸어 논쟁하기

- 1차 토론 때와 입장을 바꾸어 모둠 내에서 각각 주장을 발표한다. 찬성 팀은 반대팀, 반대 팀은 찬성 팀 입장에서 주장을 발표한다.(1차 토론에서 다루거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안내함)

상대팀 주장의 단점을 찾아 논박의 내용과 방법을 논의한다.

인권 침해와 박해	기아와 기근	기후위기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로힝야 난민들	동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부족	카리브해 섬이 잠기고 있는 파나마의 모습

구분	찬성측 주요 근거(예시)
1	인권 침해와 박해, 기아와 기근, 기후위기 등 난민들이 전세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대부분의 경우 난민발생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들도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
3	국제난민협약, 난민법 등에 따른 인도주의를 실천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모둠별)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박할 내용 또는 질문 자료 정리하기

상대팀 주장에 반박할 내용 또는 질문

전세계적인 난민 위기, 증가 현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인도주의적 접근 만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하에 난민 수용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 찬성팀과 반대팀이 각각 돌아가면서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관련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이후 제비뽑기를 통해 찬성 또는 반대부터 교사와 함께 정리해 봅시다.

구 분		입장	주장하는 내용	출처
①	친구들과 일상 대화	찬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민에 대한 수용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뉴스
		반대	하지만 난민 수용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뉴스
②	교과서	찬성	국제법과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난민들은 타국에 가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니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해	정치와 법
		반대	유럽사회에서 팽배한 난민 관련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원인 파악 없이 난민만 수용한다면 문제가 계속 될거야	세계사
	시사자료 (뉴스, 영화 등)	찬성	난민이 발생하면 인접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난민 수용을 통해 어려운 국가들의 책임을 분담해주는 게 정의로운 공존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신문 기사
		반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낭만적인 접근은 반대할 수 밖에 없어.	신문 기사
③	책/논문	찬성	난민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재정착 등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야.	소논문
		반대	난민 수용에 관한 무조건 적인 혐오는 잘못이지만 포용적 난민정책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	소논문

- 입장을 바꾸어 찬반 토론을 하기 위하여 우리팀 주장이나 근거를 요약하여 정리하기

①	친구와 일상 대화	우리나라가 그냥 편안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외세의 침략과 약탈, 수십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 지배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조건 없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야.
②	교과서 시사 자료	비록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수출 주도형 국가로 외부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매일 터져 나오는 자국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인에게 포용적 정책을 실시할 만큼 여유로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
③	책/논문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애정이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예멘 난민 등 난민 중에 일부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의 사유재산 개념이나 사회문화 이해, 특히 제대로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슬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피담 싣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 (6단계) 모둠별 합의안 작성하기

- 1, 2차 토론이 끝나고 모둠 구성원은 각자 돌아가면서 난민 수용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신호등 카드 등을 활용하여 녹색(찬성), 빨간색(반대), 노란색(유보) 등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학번() 이름()

토론 주제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찬성	(0)
		반대	()
토론 주제의 가치 ↓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 주장 ↓ 근거 ① ↓ 근거 ② ↓ 근거 ③ ↓ 반론 및 논쟁하기	<p>난민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난민문제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난민 수용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p> <p>난민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박해, 인권 침해, 기후 위기와 같은 자연 재해 등의 이유로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p> <p>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법 관련 규정을 통해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난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각국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p> <p>특정난 국가에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난민이 발생하여 난민이 증가하면, 인접한 국가들로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웃 나라들의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다. 인접한 난민 수용국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p> <p>정부 차원의 적극적 난민 수용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p> <p>난민 수용은 경제적 기여의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이주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동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난민들의 경제 활동 참여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요 충당과 비교적 젊은 세대의 난민들이 유입되는 경우, 인구감소가 뚜렷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p> <p>난민 수용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글로벌한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p> <p>여러 가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적극적 찬성이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평판과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외교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p>		

토론 주제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찬성	()
		반대	(0)
토론 주제의 가치	<p>먼저 난민을 수용했던 나라에서 최근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불안이 이어지고 사회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난민 수용 정책은 국민 감정을 고려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걸쳐야 한다.</p> <p>경제침체기를 맞이한 한국 정부가 난민 수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기 어렵다. 난민 적응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 주거지 마련,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의 경우 세수 결손 증가로 자국민 복지예산도 줄이고 있는 시기에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우려스럽다.</p>		
↓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반만년 유구한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이 적응하고 사회적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진 난민들이 유입되는 순간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 긴장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주장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인 소요 사태에 연루되는 등 강력 범죄가 증가 하거나 사회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난민 중에 일부는 테러리즘과 연계될 수 있는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어 한반도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	근거 ①		
↓	근거 ②		
↓	근거 ③	난민 유입으로 인해 내국인들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단순 일용직 노동직이나 위험한 3D 업종에서 난민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저임금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극대화될수록 경제적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일로는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반론 및 논쟁하기	난민 수용보다 더 급한 것은 내국인 복지정책이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빈곤, 실업,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국내 사회적 불평등이나 저소득층 문제를 심화시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면 극우주의적 정치 세력이 등장할 위험이 있어 더 큰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화적 충돌 등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다면 난민 수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 1, 2차 토론이 끝나고 모둠 구성원은 합의안을 도출해보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프로젝트 활동으로 권고안을 작성해보는 것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전체) 난민 수용과 관련한 한국 정부에 보내는 권고안 작성하기

난민 수용과 관련한 한국 정부에 보내는 권고안 작성하기

	()모둠	모둠원 이름 :
권고안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권고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격상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전보다 난민 수용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 한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법상 우리는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여러 가지 이유로 생존 위험에 직면한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권고안에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우려의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공감의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권 배경을 가진 난민들을 인도주의라는 미명 하에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단기적, 장기적 차선책도 지속적으로 모색해가야 한다. ●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또한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권고안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수용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우려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세계시민으로 역량을 기르고 지구공동체적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며 난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 사회통합의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모둠별 소감 한마디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 뉴스

-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09340004112>)
- 집단 이주 '날벼락'...10억 기후 난민이 온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1460>)
- 바닷물이 밀려든다...삶의 터전 떠나는 '기후난민' 구나족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43427.html>)
- [UNHCR 브리핑 노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1,000일: 유엔난민기구 부국장, 무고한 희생자들과의 연대 촉구 (2024.11.12.)
<https://www.unhcr.org/news/briefing-notes/unrelenting-violence-sudan-drives-continued-refugee-exodus>)
- 통계자료 [UNHCR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2024.6.20.)
(<https://www.unhcr.org/global-trends-report-2023>)
- 유튜브 영상자료 : 다큐 시선 - 우리 곁의 난민_#002 (2018.9.20.)
(<https://www.youtube.com/watch?v=C1HSdySC3jU>)
- 유튜브 영상자료 : 난민 수용 찬반 엇갈려..."인도주의"vs"신중해야" (2021.8.25.)(<https://www.youtube.com/watch?v=EMgn4gJLMWQ>)
- 유튜브 영상자료 : 가짜 서류로 몽골인 88명 난민 신청 알선...1억 챙겨 (2024.9.4.)
(<https://www.youtube.com/watch?v=x—adke1pe0>)

2) 책

- 저자 메리 베스 레더데일(원지인 역), 우리 밖의 난민, 우리 곁의 난민, 보물창고, 2019.
- 모하메드, 김준표, 예멘 난민 제주: 나의 난민 일기, 온샘, 2022.
- 장성익,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 난민이 많대요, 풀빛미디어, 2021.

3) 논문

- 정유진, 국제 난민 규범의 내재화 분석 : 2018년 예멘 난민에 대한 법무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회, 2024.
- 임보미, 김치정, 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구대학교, 2024.
- 이채영, 국내 난민교육 이슈 분석과 난민 정책적 시사점 탐색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202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은 중동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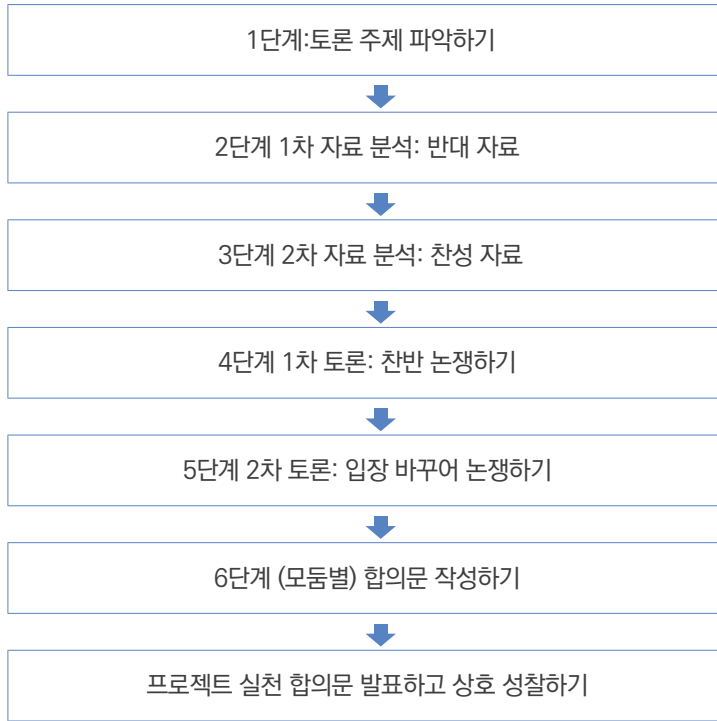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격에 이어 레바논 및 예멘, 이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단행하여 인명 사상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레바논으로 파병된 동명부대를 비롯한 UN 평화유지군까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는 위험한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등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전쟁이 계속될수록 여성과 어린이 등 비전투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학교 교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순차적 자료 분석형 토론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구분	내용
현안 (토론 주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은 중동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성취 기준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요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관계 이해 -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과 중동지역 각국의 입장 -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평화 지속을 위한 해결 조건 - 남북 분단 사회인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2

순차적 자료 분석형 토론수업 운영 과정



3

토론수업 과정

가. (개인별) 토론 주제 파악하기

토론 주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은 중동평화에 기여하는가?
토론 주제의 가치	개인적	지속적인 강경책으로 늘어나는 민간인 피해 및 증가하는 난민, 이웃 나라로 확산되는 전쟁 양상 등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진정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이 중동 평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가?

나. (모둠별)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하기

용어	정의
알 나크바	원래 대재난이란 뜻의 아랍어지만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실함과 이산의 고통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 전후로 약 750,0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나는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다.
가자 지구 장벽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물리적인 경계이다. 이 장벽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목적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장벽에는 철조망, 콘크리트, 감시 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1단계) 토론 주제 파악하기: 신문 기사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 아흐리 병원의 병원장이 밝혔다. 파들 나임 병원장은 지금 상황이 "재앙적"이며 의사들이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알타바인(Al-Taba'een) 학교가 "활발한 하마스 및 이슬람 지하드 군사 시설로 사용됐다. 약 20명의 무장세력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하마스 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피해자 숫자를 90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몇 주 동안 가자 지구의 여러 대피소를 공격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학교 건물 564개 중 477개가 7월 6일 현재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 알타바인 학교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군대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한 베이트 하눈(Beit Hanoun) 마을에서 수십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목격자들은 모스크로도 사용됐던 이 건물을 새벽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 자파르 타하(Jaafar Taha)는 BBC에 폭격 소리가 들리고 비명과 소음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타하는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의 살림 오와이스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모든 학교들은 민간인, 어린이, 어머니, 가족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학교든 모스크든, 심지어 병원 마당에서도 빈 공간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 뉴스(2024.8.11.)

- 교사는 모둠별로 토론 주제에 관련한 배경 지식이나 쟁점과 관련한 자료를 배부하고 학생들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자유롭게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에 의견을 나눈다.
- 가자지구는 워낙 협소한 지역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집해있어서 하마스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렵고 학교, 병원 같은 민간인 구역에도 하마스의 지하터널이 요새화 되어있어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라. 2단계 1차 자료분석: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 반대 이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후 (알 나크바)	2002년부터 건설된 요르단강 서안 지구 분리 장벽	2024년 레바논, 이란까지 확산되는 전쟁 양상
		
<p>이스라엘 건국 선언 이후 피난을 떠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p>	<p>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고통</p>	<p>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연대한 레바논 헤즈볼라 및 이란까지 확산</p>

- 학생들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 반대 입장의 주장을 요약해서 쓰고 모둠 내에서 발표한다.
- 19세기까지 종교갈등이나 민족 차별 없이 평화롭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정부의 맥마흔 선언이나 벨푸어 선언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건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치 않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마. 3단계 2차 자료분석: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 찬성 이유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11월 26일(현지시간) 60일짜리 휴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고 하루 뒤 헤즈볼라가 '하마스 연대'를 표방하며 분쟁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이다. 막판까지 격렬한 전투를 주고 받던 양측은 휴전 개시 시점인 26일 오전부터 교전을 전면 중단했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을 오가던 포성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 13개월간 레바논인 약 3,800명, 이스라엘인 약 120명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비로소 중단된 것이다. 지난 9월 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겨냥한 지상전 '북쪽의 화살' 작전을 개시한 지 2개월 만의 평화이기도 하다. 알자지라는 "레바논 피란민 수천 명이 남부 고향으로 돌아가며 차량 경적을 울리고 휴전을 축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은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전날 '60일 휴전안'을 승인하며 공식 성사됐다. 이 휴전안은 미국과 프랑스 정부 중재하에 마련돼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지지해 이스라엘 답변만 남아 있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안보 내각을 소집하고 휴전안이 '찬성 10표 대 반대 1표'로 통과되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완성됐다.

총 13개 항으로 이뤄진 휴전 합의문 핵심은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에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200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향후 60일 내에 국경 지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지키며, 미국·프랑스 등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가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휴전을 환영했다. 특히 휴전 타결에 공을 들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레바논 정부와 이란 정부도 환영 성명을 냈다.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지속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는 것이 미국 월스트리트(WSJ)의 분석이다. 이미 헤즈볼라 지도부를 상당수 제거하는 등 상당한 전쟁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해도 이스라엘에 손해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휴전 압박과 지난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등 국제사회 압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군 전열 정비 △하마스 고립 △이란 겨냥 공세 집중 등을 휴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일보(2024.11.27.)

- 교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과 관련한 찬성 자료를 배부하고 학생들은 신문 자료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자유롭게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이 전쟁의 조기 휴전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의견을 나눈다.
- 하마스와 연대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보다 훨씬 우수한 전투력을 가진 무장세력이지만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에 의한 하산 나스랄라 등 지도부 제거, 헤즈볼라 군사시설의 궤멸적 피해로 인한 전쟁 지속능력 저하 등이 조기 휴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바. 4단계 1차 토론: 찬반 논쟁하기

- 학생들은 토론 주제와 관련한 찬성 및 반대 팀으로 나뉘 각자 의논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글로 쓰고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도 정리하여 작성한다. 이를 위해 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상대방의 질의에 반박할 내용을 작성한다.

구분	내용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 하마스 ● 네타냐후 ● 가자 지구 ● 팔레스타인 ● 안전 지역 ● 민간인 ● 모스크 ● 신와르 사망 ● 칸 유니스의 도살자 ● 이란 혁명수비대 ● 인질교환 ● 휴전 ● 가자 지구 장벽 ● 국제 사회의 역할 ● 인티파다 ● 오슬로 협정 	<p>※ 시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순차적 자료분석을 해보세요.</p>

관련 주요 자료	교 과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V.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 / 7. 제2차 세계대전) ● 정치와 법(V. 국제관계와 한반도 / 2.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생활과윤리(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 6.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전쟁이 아닌 학살”... 어느 팔레스타인 난민의 호소 (2024.10.4.) (https://v.daum.net/v/20241004111801219) ● ‘육해공 공세’에 ‘철검’ 보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2024.10.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4211 ● [국제in] “끝없는 전투 중”... 이스라엘-헤즈볼라 가자전쟁 후 최대 교전(2024.9.24.)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1280 ● 이스라엘, 헤즈볼라 해체 속도...군시설·수뇌부 이어 돈줄 파괴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20732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 휴전 전격합의(2024.11.27.) https://www.imaail.com/page/view/2024112714263567526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21. ● 마틴 소이블레(유해자 역), 젊은 독자를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청어람 미디어, 2016. ● 도브 왁스만(장정문 역),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 소우주, 2024.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012. ● 이윤아,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s)을 통해 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연구 : 오슬로 협정(1993)과 캠프 데이비드 II 협상(2000)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조대훈, 포괄적 평화교육 관점에 기반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평화’ 단원 분석,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3.

●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각 의견을 제시한다. 각각 상대 의견에 반박 질문을 하고 찬성 측과 반대측은 질의에 답변한다.

구 분		입장	내용	출처
①	친구들과 일상 대화	찬성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을거야. 전쟁 조기종식을 위해서 강경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야	뉴스
		반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사이에서 그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듯이 적대 세력의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저항이 끝나지는 않을거야	뉴스
②	교과서	찬성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받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해서 조기에 전쟁이 끝나는 게 국익에도 우선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선이야.	정치와 법
		반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과정에서 서구 사회의 편익에 따라 민족의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반성적 성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 될 거야.	세계사

②	시사자료 (뉴스, 영화 등)	찬성	헤즈볼라 무기고 공습 등 적대 세력의 전쟁 지속능력을 이번 전쟁을 통해 최대한 소진시켜야 앞으로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신문기사
		반대	이란을 축으로 하는 중동 국가의 무기 지원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고 무리하게 강경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면서 무고한 인명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신문기사
③	책/논문	찬성	이란이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와 함께 구축한 이른바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에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의 강경 정책을 통해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도브 왁스만의 책
		반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인들이 철수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스스로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자 했지만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가자지구의 생활 여건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도브 왁스만의 책

사. 5단계 2차 토론 : 입장 바꾸어 논쟁하기

①	친구와 일상 대화	전쟁이 시작되고 2024년 10월6일까지 1년 동안 4만187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고, 9만7166명이 부상당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국제사회와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으며 전쟁 억지에 무력한 국제 사회의 무능을 크게 질타했다.
②	교과서 시사 자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강경파 지도자들이 제거되면 향후 평화를 전제로 한후전 협상 등의 진전이 있을거라고 주장했지만 전쟁 후유증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③	책/ 논문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했지만 하지만 평화 협정을 이끌던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했다. 제대로 된 국가를 갖지 못한 팔레스타인은 테러로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있다. 테러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이 뒤따른다. 도돌이표처럼 '테러 - 보복 - 테러'가 쌓아온 악순환의 고리로 두 집단의 화해와 타협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아. 모둠 내 2차 토론 및 입장 바꿔 논쟁하기(찬반 입장 바꾸기)

구분	1차 토론	입장 바꿔 2차 토론하기
①		
②		
③		

6단계 모둠별 합의안 작성하기

학번() 이름()

토론 주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이 중동평화에 기여하는가?	찬성	()
		반대	()
토론 주제의 가치 ↓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매우 시간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문제를 단시일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	그러나 공존형 토론 수업을 통해 몇 가지 합의 가능한 사안을 바탕으로 쟁점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점진적이지만 해결 가능한 것부터 제안하는 형태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주장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즉각적인 휴전을 통해 더 이상의 무고한 인명 살상과 피해 양산을 막아야 한다. 두 국가 모두 독립된 국가로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점진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경에 설치된 장벽을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상호 신뢰를 쌓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		
근거 ① ↓	군사적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염두에 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양측은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관계에 있어 우려스러운 점에 대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지하고 있지 않다.		
근거 ② ↓	두 국가 공존을 위한 가장 구체적 실행방법은 오랜 기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낙후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제적 협력 구축을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평화 프로젝트의 실행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대결 구도에서 상호 의존 관계로 모색할 수 있다. 경제적 협력관계 조성은 평화의 소중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근거 ③ ↓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강요하기보다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를 우선시해야 한다.		
반론 및 논쟁하기	학살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진압 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동지역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양측의 새로운 이해관계 정립이 평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만장일치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면 합의문 작성 이후 성찰하기를 통해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리해본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합의문 작성

()모둠	모둠원 이름 :	
토론 주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이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휴전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어느 한 편을 지지하기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의 공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전쟁 중이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양측에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난민 지원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함께 요구된다. 	
합의할 수 없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은 강경 정책을 통해 하마스의 수뇌부를 제거하여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강경 정책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적대적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염두에 둔 강경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성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은 일시적으로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정적들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어지는 민간인 피해와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중동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 보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동지역의 평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강경책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모둠 안 개인별 소감 한마디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1) 뉴스

- “이것은 전쟁이 아닌 학살”... 어느 팔레스타인 난민의 호소 (2024.10.4.)
(<https://v.daum.net/v/20241004111801219>)
- ‘육해공 공세’에 ‘철검’ 보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2024.10.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4211>)
- [국제in] “끝없는 전투 중”... 이스라엘-헤즈볼라 가자전쟁 후 최대 교전(2024.9.24.)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1280>)
- 이스라엘, 헤즈볼라 해체 속도...군시설·수뇌부 이어 돈줄 파괴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20732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통계자료 [UNHCR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2024.6.20.)
(<https://www.unhcr.org/global-trends-report-2023>)
- 유튜브 영상자료 : 땅 욕심이 초래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비극적 역사 (2024.4.16.)
(https://www.youtube.com/watch?v=IB7QZb_t4gl)
- 유튜브 영상자료 : 가자에 이어 레바논까지 번진 중동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출구전략은 있나? (2024.11.17.)
(https://www.youtube.com/watch?v=W_ULBzw8VJo)
- 유튜브 영상자료 : 이스라엘, 레바논 200곳 맹폭...헤즈볼라 대변인 사망 (2024.11.18.)
(<https://www.youtube.com/watch?v=BE7j38C9lgc>)
- 영상자료 : 텔아비브로 로켓날린 헤즈볼라...이스라엘군 레바논 맹폭 (2024.11.6.)
(<https://www.msn.com/ko-kr/video/news/%EC%98%81%EC%83%81-%ED%85%94%EC%95%84%EB%B9%84%EB%B8%8C%EB%A1%9C-%EB%A1%9C%EC%BC%93-%EB%82%A0%EB%A6%B0-%ED%97%A4%EC%A6%88%EB%B3%BC%EB%9D%BC%EC%97%98%EA%B5%B0-%EB%A0%88%EB%B0%94%EB%85%BC-%EB%A7%B9%ED%8F%AD/vi-AA1tEGR4?ocid=msed-gdhp&pc=U531&cvid=d39fa629618d455ea3de0c642b1fe3d8&ei=55#details>)

2) 책

-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21.
- 마틴 쇼이블레(유혜자 역), 젊은 독자를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청어람 미디어, 2016.
- 도브 왁스만(장정문 역),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 소우주, 2024.

3) 논문

-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012.
- 이윤아,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s)을 통해 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연구 : 오슬로 협정(1993)과 캠프 데이비드 II 협상(2000)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조대훈, 포괄적 평화교육 관점에 기반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평화’ 단원 분석,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3.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2023년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그중에서 합계출산율이 최하위인 도시이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보육과 양육 지원, 주거 정책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한국의 초저출산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은 비단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청년이 되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구 정책에 대한 제도적, 사회문화적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이슈화된 ‘독신세’ 세금 논쟁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 인구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토론수업 개요

대상	고등학교 1,2,3학년	
논제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주요 쟁점	1) 독신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가? 2)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가? 3) 독신세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 원인 및 해결방안,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 우선 문제, 형평의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정보를 탐색 및 분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양질의 논거 교환을 통해 입장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구 정책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3-0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사회 2 [10통사2-05-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화법과 언어 [12화언01-11]	토의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화법과 언어 [12화언01-12]	주장, 이유,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논증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주제 탐구 독서 [12주탐01-04]	주제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탐색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정하여 분석하며 읽는다.

핵심
아이디어

- 인구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 변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논의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 문제 해결과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 언어는 고유의 형식과 의미 기능을 지닌 체계로서, 의사소통 맥락에 맞게 담화를 수행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원이다.
- 정보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읽으면서 주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형성한다.

참고 자료 및 문헌

〈단행본〉

- 승지홍, 인구가 줄면 정말 위험할까, 글담출판, 2024.
- 알바 뒤르달·군나르 뒤르달, 인구 위기, 문예출판사, 2023.
- 정민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9인구와 경제, 내 인생의 책, 2023. ㉓③
-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 2021. ㉓①, ②
- 조영태 외,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김영사, 2024. (학생 필독 도서) ㉓④

〈신문〉

- 김현주,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네?”. 韓 저출산 심화 ‘인구소멸’ 공포 확산», 세계일보, 2024.7.26. ㉓②
- 박수지, 「저출생 대응카드로 인적공제 늘리나... 싱글세 논란·세수 악화 속제», 한겨레, 2024.6.11.
- 배준용, 「해법 못 찾는 짝 막힌 저출산에 20~50대 21% “싱글세 찬성”», 조선일보, 2023.7.2. ㉓②
- 이희정, 「한국 싱글 직장인은 정말로 ‘독신세’를 내고 있을까?», 택스워치, 2024.02.23.
- 조원경, 「“싱글에게는 세금 더 내게 해야...그래야 공평”», 조선일보, 2023.2.25. ㉓①
- 조원경, 「당신에게 ‘독신세’를 물린다면...», 이코노미스트, 2016.4.30. ㉓⑥
- 홍석구·김다린, 「혼자 사는 당신 ‘독신세’내야 한다면...», 더스쿠프, 2024.5.20. ㉓⑤, ⑥

〈잡지/학술지〉

- 신옥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㉓④
- 오종현,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예산춘추, 2024 Vol.74. ㉓⑤
- Joan E. Madia 외, 「Fertility Decline and Tax Revenues in South Korea」, IRVAPP Working Paper, 2024-02.

〈연구보고서/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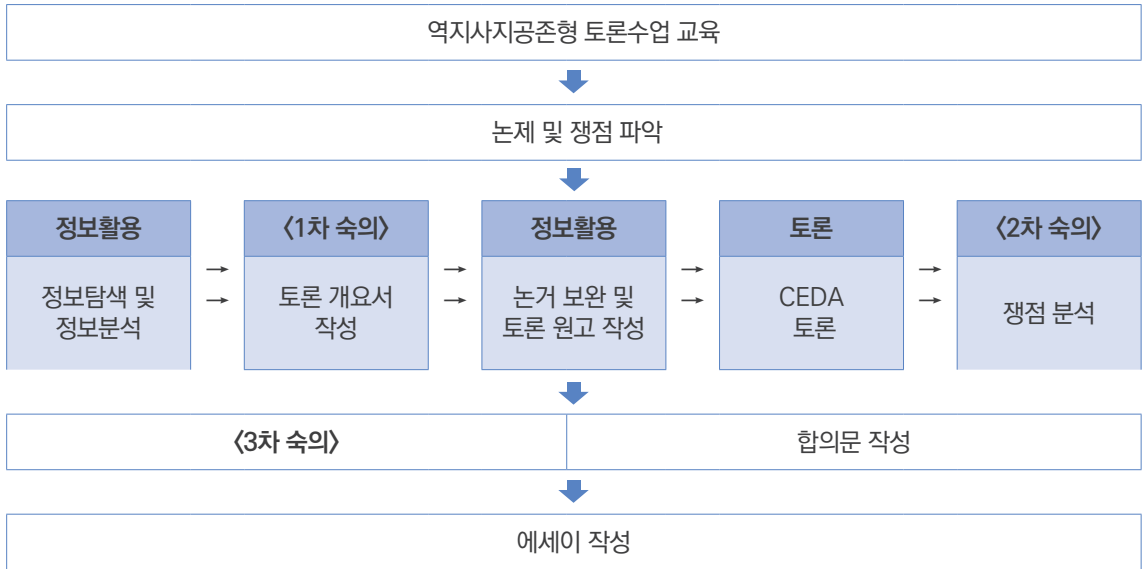
-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저출산 대응전략」, 2023.11. ㉓⑥
-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2024. ㉓③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㉓③ ⑤

〈법률〉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㉓③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5조 ㉓③

*①~⑥표기는 「라. <자료>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모둠)」의 참고 문헌임.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3 토론수업 전개 과정

가. 논제 및 쟁점 파악하기

1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의 목적을 이해한다. ● 논제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의 자료를 읽고 요약 및 분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이해한다. 		
내용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교육 ● 논제 소개 및 쟁점 제시 ● 개인별 탐구지 자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개요서 ● 개인별 탐구지 ● 독신세 강의 PPT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목표 및 과정 숙지 ● 개인별 탐구지 작성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교육: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의 배경, 목적, 과정을 설명한다. 제시된 논제에 대하여 나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성숙한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과정이 수업의 주된 목적이자 활동임을 알린다.
- 논제 및 쟁점 파악: 교사는 논제에 대한 사회 배경, 쟁점, 핵심 용어를 소개하고, 모둠원과 같이 쟁점별 찬·반의 근거를 모두 탐색하고 참고 문헌을 표기하여 토론 개요서를 완성해야 함을 안내한다. 이어서 쟁점별 찬성·반대 입장의 근거 자료가 포함된 개인별 탐구지를 제공한다. 학생은 개인별 탐구지를 읽고 분석하여 쟁점별 찬성 측, 반대 측의 주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보충 설명을 통해 논제 및 쟁점 이해를 돕는다.

TIP 토론 개요서를 개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논제에 관련된 핵심 용어 정의이다. 용어 정의를 통하여 토론 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논증 과정 및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료〉 토론 개요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개요서			
학번/ 이름			
토론 주제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본인 입장에 0표기	찬성() 반대()
토론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독신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가? - 쟁점 2: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가? - 쟁점 3: 독신세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용어 정의	<p>1. 독신세: 본 토론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소득이 있는 33세~49세*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p> <p>* 독신세 부과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은 2023년 남녀 평균 초혼 연령(통계청)의 평균값과 생애미혼율 기준값(49세까지) 및 여성의 가임기를 고려하여 정의하였음.</p> <p>2. 사회적 형평: 사회적 형평성이란 지역이나 계층, 성별, 인종 따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나, 본 토론에서 '형평'에 초점을 맞추어 편익을 받는 자들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p>		
쟁점 구체화		찬성	반대
쟁점1	주장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에 실효성이 적다.
	근거		
	참고 문헌		

쟁점2	주장	국가와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근거		
	참고 문헌		
쟁점3	주장	사회적 형평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형평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근거		
	참고 문헌		

I

II

III

IV

나. 개인별 탐구지 작성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자료 읽고 쟁점 파악하기

학번: 이름:

* (가)~(라)를 논거로 하여 쟁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십시오.

(가)

한국 저출산 현상이 대내외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론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세제 개혁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안테보르타 파운데이션(Antevorta Foundation)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세금 정책(Fertility Decline and Tax Revenues in South Korea)’ 논문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세금 정책과 저출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 수준 향상 ▲여성의 경력 추구 ▲높은 양육비 등이 꼽히지만, 세금 정책이 가장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해당 논문은 높은 세금 부담이 가계의 경제적 불안감을 높이고, 가처분소득을 줄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저출산을 야기한다고 봤다. 자녀세액공제나 양육수당 등의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금 정책은 이와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은 1970년대 중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세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소득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논문에 의하면 이는 교육비 상승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했다.(중략) 이에 해당 논문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세금 정책 ▲가족 지원 위한 세금 감면 ▲맞춤형 세금 혜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액공제, 양육 수당 등을 통해 자녀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인상 등의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낮춰 출산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 핵심 내용	- -
● 본인 생각	- -
● 추가 탐색이 필요한 자료	- -

(나)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같은 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연장선에서 최근 모자보건법,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의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임신, 출산 및 보육 지원 등의 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확대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다양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영유아의 인권과 복리의 충분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중략)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도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 권리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성(性)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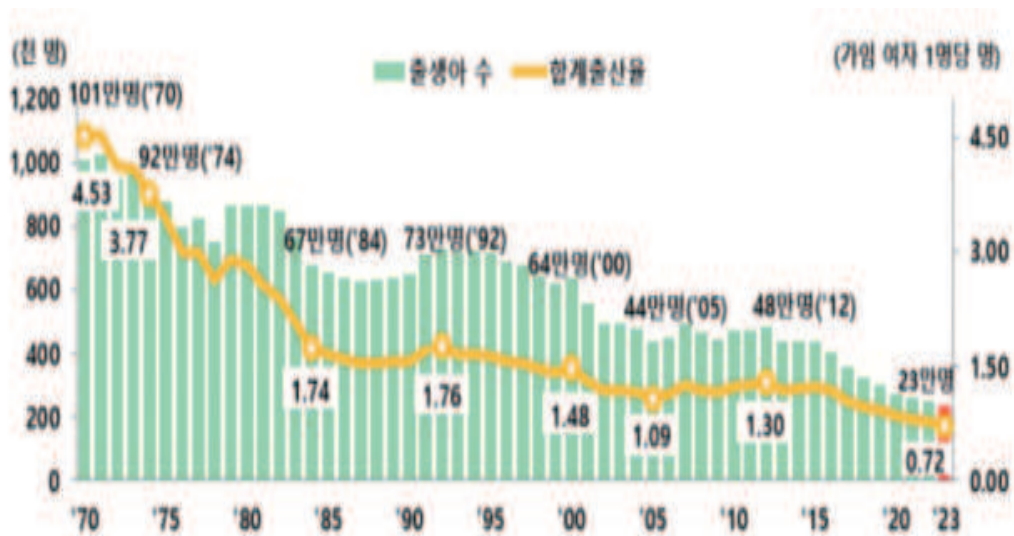
*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권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 핵심 내용	- -
● 본인 생각	- -
● 추가 탐색이 필요한 자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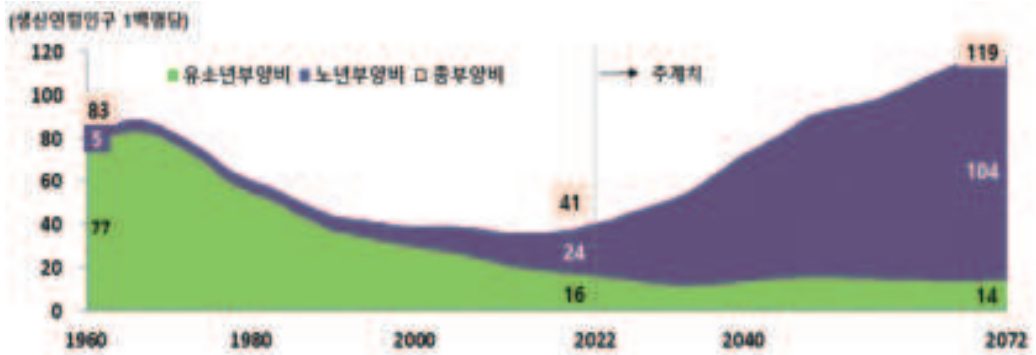
(다-1)

아래 그래프 1, 2의 현상을 활용하여 <쟁점 2>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래프 1> 한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1970~2022년)



<그래프 2>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1960~2072년)



- * 총부양비: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합
- * 노년부양비: 어느 한 해의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표시한 인구구조의 지표로,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할 고령 인구를 의미함
- * 유소년부양비: 어느 한 해의 유소년인구(0-14세)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표시한 연령별 인구구조의 지표

● 핵심 내용	- -
● 본인 생각	- -
● 추가 탐색이 필요한 자료	- -

(다-2)

아래 그래프 3을 활용하여 <쟁점 3>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래프 3〉 OECD 회원국의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격차(2022년)
(단위: %, %p)



자료: OECD, Taxing Wages 2023, 2023, p.72

● 핵심 내용	- -
● 본인 생각	- -
● 추가 탐색이 필요한 자료	- -

(라)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 사회 누구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합계출산율은 한 사람 한사람의 출산율이 아니라 인구 전체의 평균치이므로, 누구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3명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0.8대가 되었다면 사실상 3명 낳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 즉 모두 한마음으로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데도 모두 하나의 선택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환경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우려하는 지점은 낮은 출산율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숫자가 보여주는 사회의 경향성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그러나 출산은 엄연히 개인의 선택이고 권리이다.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과거의 가족계획 정책이나, 아이 낳으라고 했하는 요즘의 정책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는 매한가지다. 국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효과는 없는 천편일률적 대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향성 자체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과 많이 낳으려는 사람의 다양성을 되살리는 것이다. 모두가 0을 향해서만 달려가지 않도록 말이다. (중략)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인구문제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잣대 하나로 분석하거나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반영돼 있으며, 따라서 출산지표는 정책의 목표라기보다는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활용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미 줄어든 출산이 만들어낼 사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이다. 출생아 수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반전의 기회는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점점 다양한 삶의 궤적이 어우러진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갈등의 종류도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성이 높아진 사회가 가져올 이득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 핵심 내용	- -
● 본인 생각	- -
● 추가 탐색이 필요한 자료	- -

- (가) 김현주,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네?... 韓 저출산 심화 ‘인구소멸’ 공포 확산」, 세계일보, 2024.7.26.
- (가) Joan E. Madia 외, 「Fertility Decline and Tax Revenues in South Korea」, IRVAPP Working Paper, 2024-02.
- (나) 신옥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칼럼, 2021.
- (다-1)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2024.
- (다-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 (다-2) 오종현,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예산춘추, 2024 Vol.74.
- (라)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 2021. p.109-115 내용 발췌

다. 정보탐색 및 정보분석(개인)

2-3차시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정보원을 알고 정보탐색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 찬성·반대 입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탐색 및 분석하여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 탐색한 정보를 토론 및 합의문 과정에 활용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내용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탐색법 교육 ● 정보분석지 작성법 교육 ● 모둠 순회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정보원 안내지 ● 정보 분석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정보원을 활용한 정보탐색 ● 정보분석지 작성 	

- 쟁점을 이해한 후, 학생은 개인별로 3가지 쟁점에 대한 근거 자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동일한 입장에 대한 자료만이 아니라 쟁점별 찬성 측, 반대 측 입장의 근거 자료를 모두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교사가 근거 자료를 모두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토론수업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1,2,3차의 속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보충할 자료를 반드시 재탐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에게 정보탐색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효과적이겠으나, 상황이 어렵다면 참고정보원 안내지, 정보활용 과정을 돕는 활동지를 제공하여 타당성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보탐색 및 정보분석 후 학생은 논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선택한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참고>

 **TIP** 정보활용 과정에서 교사의 피드백은 중요하다. 자료의 수준, 신뢰성 여부, 정보원의 위치 등 학생의 질의에 답하여 학생이 양질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 내 정보활용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좋다. 다만 수업 차시가 부족한 경우,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보활용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1차 속의> 토론 개요서 작성(모둠)

4-5차시	교수 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 찬성·반대 측 입장이 협력하여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내용	교사	● 토론 개요서 작성법 교육	● 개인별 탐구지 ● 정보 분석지 ● 토론 개요서
	학생	● 토론 개요서 작성	

- 모둠원은 <개인별 탐구지>와 <정보 분석지>를 바탕으로 3가지 쟁점에 대한 찬성·반대 측 모두의 입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교환하고 협력하여 토론 개요서를 같이 작성한다. 1차 속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로의 논거를 교환하며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자료>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모둠)

■ 쟁점 1. 독신세는 저출산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는가?

	찬성	반대
주장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에 실효성이 적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자 게리 베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행동함. 독신세는 미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음 ● 독신세를 걷어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주거 문제, 보육 문제 등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독신이 낸 세금을 보육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여 긍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저출산을 막지 못한 이유는 세수가 부족해서가 아님.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이후 투입된 정부 예산만 200조원이 넘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결혼·출산에 소극적인 원인을 긴 근로 시간, 사회적 안전망 부재, 경제 양극화,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 여성·영유아 차별 사회적 분위기,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비롯한 대안을 가져와야 함 ● 증세가 가계에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출산율을 하락하게 만든 한국 사례가 있음. 독신세는 세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참고 문헌	①번 참고	②번 참고

■ 쟁점 2.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가?

	찬성	반대
주장	국가와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 선택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화지수, 총부양비에도 변화를 가져와 국가의 경제 성장 및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초래함. 국가 예산 정책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33년 국가 재정 파산 위기, 2060년 잠재성장률 0.8% 떨어짐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독신세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민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독신세 도입에 협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인구 개발 정책이 인구 수 조절, 국가 발전 등의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인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 선언함 ● 독신세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는 국가의 징벌적 과세로, 인구 개발 정책 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 됨 ● 국가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가구를 포용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 ● 출산율을 높인다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참고문헌	③번 참고	④번 참고


■ 쟁점 3. 독신세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찬성	반대
주장	사회적 형평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형평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족 지원 기능이 미약함. 단독 가구와 홑벌이부부+2자녀 가구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격차(2022년 기준)를 보면, OECD 회원국 평균 격차 4.9%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1.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미래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복지 비용이 증가함. 장래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약 4.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미혼, 무자녀인 성인이 퇴직한 뒤에는 지금의 아이들이 내는 기여분의 일부로 부양을 받는 것이니 현재 기여분의 부담을 미리 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경우 출산 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도입 (0세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연말정산과정에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독신에게 없는 혜택을 혼인, 출산 가구에게 제공하고 있음 ●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대응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직자부담의원칙에 맞지 않음
참고문헌	⑤ 번 참고	⑥ 번 참고

마. 논거 보완 및 토론 원고 작성

6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 논거를 보완하여 토론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내용	교사	● 토론 원고 작성법 교육	● 토론 개요서 ● 토론 원고지
	학생	● 정보탐색 및 정보분석 ● 토론 원고 작성(개인)	

- 다시 입장별로 학생이 모인다. <1차 속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보완이 필요한 부분(주제 관련성, 논거의 타당성, 새로운 논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탐색하고 논거를 보완하여 토론 개요서를 수정하고, 개인별 토론 원고를 작성한다.

 수업 차시를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찬·반 학생 모두 또는 입장별 학생이 모여 서로가 분석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정보를 토론 원고에 활용할지, 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피드백 해주는 정보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양질의 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3-2. 정보 분석하기(모둠) 참고>

바. 토론 원고 작성(개인)

■ 토론 주제 :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 쟁점 1 : 독신세는 저출산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는가?

개념 정의, 논제 배경, 사회 현황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	
참고 문헌	

■ 쟁점 2 :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가?

개념 정의, 논제 배경, 사회 현황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	

참고 문헌	
-------	--


■ **쟁점 3** : 독신제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개념 정의, 논제 배경, 사회 현황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	
참고 문헌	

사. CEDA 토론

7-9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여 토론을 할 수 있다. 		
내용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개요서 ● 토론 원고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토론 참관, 동료 평가 	

● 정책 토론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CEDA식(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토론 형식을 수정하여 활용한다. ‘교차 질문형 토론’ 이라고도 말하는 이 토론 유형은 <입론-교차조사-반박> 형식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정해진 순서, 시간, 역할에 맞게 논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토론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단,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에서 이 단계는 논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거쳐야 과정으로서, 토론 결과의 승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 논증의 타당성 또는 논리의 오류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모둠 구성을 할 때 찬성 측, 반대 측의 입장을 정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됨을 알려준다. 토론할 때 당사자들을 제외한 다른 모둠은 토론을 참관하고 동료 평가를 한다. 교사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토론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학생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여 생산적으로 쟁점을 논의할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TIP** 토론 운영은 47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원 교차조사’ 단계를 추가하였다.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서는 <쟁점 1>, 찬성 2와 반대 2의 입론에서는 <쟁점 2>와 <쟁점 3>에 대한 주장을 다루어서 발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등 모둠 수, 수업 시간에 따라 운영 방법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료〉 3:3 CEDA 토론 운영

■ 운영 방법

토론 시작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개회 선언, 논제 소개 및 팀 소개 안내(1분) ● 참가자: 팀 소개(팀별 1분) 								
토론 중간 (진행:33분 작전: 6분)	순서	발언시간	찬성1	찬성2	찬성3	반대1	반대2	반대3	
	1	3	입론						
	2	2					교차조사		
	3	3				입론			
	4	2	교차조사						
	5	3		입론					
	6	2				교차조사			
	7	3					입론		
	8	2		교차조사					
	9	2						반박	
	10	2			반박				
	11	3	전원 교차조사			전원 교차조사			
	12	3						반박	
	13	3			반박				
	작전 타임	찬성 측, 반대 측 팀당 3분							
	총 소요시간(작전타임 포함) 39분								
토론 마무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대회 종료 선언 및 토론평가 발표 안내(1분) ● 평가자: 토론평가 발표(4분) 								


〈자료〉 토론 단계별 진행 요령

순	역할
1. 찬성 1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논제를 둘러싼 배경 소개, 주제에 대한 사회 현황, 핵심 용어의 개념 정의 - 본론: 찬성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 및 논거 제시 - 결론: 기대효과 열거
2. 반대 2 교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팀 주장 및 논거가 논리적으로 적합한지 따져보고, 이에 대하여 질문 - 찬성 팀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면 안 됨 - 질문자는 질문만, 답변자는 답변만 하기
3. 반대 1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상대방 입론 요약 - 본론: 상대방 입론의 주장 반박, 2에서 드러난 논리적인 문제점 지적 - 결론: 반대 팀 주장 보충 설명
4. 찬성 1 교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팀 주장 및 논거가 논리적으로 적합한지 따져보고, 이에 대하여 질문 - 반대 팀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면 안 됨 - 질문자는 질문만, 답변자는 답변만 하기
5. 찬성 2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1에서 제시하지 못한 주장 및 논거 제시
6. 반대 1 교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와 같은 방법으로 질문
7. 반대 2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과 같은 방법 (6에서 드러난 논리적인 문제점 지적)
8. 찬성 2 교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와 같은 방법
9. 반대 3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팀이 제시한 논점이 논제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검토하기 - 이를 바탕으로 반대 팀 논점이 타당함을 입증 - 입론에서 제시하지 않은 논점을 새롭게 언급하지 않기
10. 찬성 3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와 같은 방법 - 9에서 제시한 반대 3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
11. 전원 교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 전원이 모두 질의응답의 발언권 가짐 - 양 팀은 서로 동의하는 부분과 논쟁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 - 다음 순서를(마지막 발언)을 염두에 두면서 상대 팀의 가장 큰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
12. 반대 3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팀 핵심 논점을 기반으로 찬성 팀 주장과 논거 반박(요약) - 중심이 되는 쟁점에 집중 - 해결 방안,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 반대 팀 주장대로 하면 해결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 강조
13. 찬성 3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약함을 입증 - 찬성 팀 핵심 논점을 기반으로 반대 팀 주장과 논거 반박(요약) - 중심이 되는 쟁점에 집중

아. <2차 숙의>: 쟁점 분석(모둠)

10-11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 입장별 쟁점 및 근거를 분석할 수 있다.		
내용	교사	● 쟁점 분석 방법 교육	● 토론 개요서 ● 토론 원고 ● 쟁점 분석지
	학생	● 모둠별 쟁점 및 근거 분석	

● 모둠원이 다시 모인다. 합의를 위한 쟁점 분석지를 활용하여 쟁점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을 협의한다. 이러한 숙의 과정을 통해 토론에서 놓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서로의 의견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까지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파악하게 함으로써, 합의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지속해서 현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3가지 쟁점을 분석하고 3가지 쟁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수업 차시가 필요하고 학생의 부담도 크다. 따라서 최소 1개 이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 쟁점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법도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만들고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료> 합의를 위한 쟁점 분석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쟁점 분석		
()모둠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토론 주제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토론 쟁점	-쟁점 1: 독신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가? -쟁점 2: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가? -쟁점 3: 독신세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쟁점 1	공통점	(예시) 저출산은 심각하나 그동안 제시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 (예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예시) 세금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차이점	(예시) 독신세의 실효성 여부(크다/적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할 수 없는 부분
쟁점 1	(예시) 저출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세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예시) 독신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예시) 독신세 도입만으로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인 다양한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예시) 토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신세 정책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 (예시) 독신세 도입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예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출산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독신세 도입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쟁점 2	공통점	(예시) 국가 정책이 개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시) 저출산으로 인하여 생산인구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차이점	(예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독신세는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당한 목적을 지닌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예시) 저출산 정책, 인구 개발 정책 개발 시 개인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시) 저출산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시) 독신세는 국가가 개인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예시) 독신세는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고 장려하게 만드는 제도이지, 국가가 개인의 결혼과 출산을 통제하고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다.
쟁점 3	공통점	(예시) 사회적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세대 간 형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차이점	(예시)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가족지원 기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약하다. (예시)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세제지원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독신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예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 (예시)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시) 노인복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독신세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3차 숙의>: 합의문 작성

12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 논제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		
내용	교사	● 합의문 작성 교육	● 쟁점 분석지 ● 최종 합의문
	학생	● 합의문 작성, 발표	

● 쟁점 분석지를 통해 합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발견하였다면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한 3차 속의 과정에 들어간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의 학생은 각 쟁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내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한다. 다음으로 대안이 가지고 올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의안의 한계점을 파악한다. 끝으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과제까지 논의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한다.

TIP 3가지 쟁점을 분석하고 3가지 쟁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수업 차시가 필요하고 학생의 부담도 크다. 따라서 앞 차시에서 분석한 쟁점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이 최종 합의문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은 합의문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임을 알려준다.

〈자료〉 최종 합의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최종 합의문				
()모둠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번 이름()			
토론 주제	독신세의 도입이 필요한가			
토론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1: 독신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가? - 쟁점 2: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가? - 쟁점 3: 독신세가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합의문	- 쟁점 ①, ②, ③)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 해당 쟁점에 ○ 표시			
	(예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세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예시) 개인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 1의 내용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②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개발한 대안은 ~이다. - 쟁점 ②,③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개발한 대안은 ~이다. - 쟁점 ①,②,③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개발한 대안은 ~이다. 			
	3. 대안이 가져올 결과 예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긍정적</td> <td style="padding: 5px;">- -</td> </tr> <tr> <td style="padding: 5px;">부정적</td> <td style="padding: 5px;">- -</td> </tr> </table>	긍정적	- -	부정적	- -
긍정적	- -			
부정적	- -			

차. 에세이 작성(개인)

13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목표	● 논제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내용	교사	● 에세이 작성법 교육	● 개별 에세이
	학생	● 개인별 에세이 작성	

- 개인별로 논제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쓰도록 지도하여 합의의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 에세이 작성 내용

■ 논제	
■ 합의문이 나올 수 있었던 과정 ① 합의한 내용 ② 제시한 대안 ③ 대안이 가지고 온 결과	
■ 합의문 한계점	
■ 앞으로의 과제	

4 토론수업 평가

가. 평가 자료

1) 모둠 간 평가지 (항목별 5점 만점)

평가 항목		A모둠	B모둠	C모둠	D모둠	E모둠
토론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활용한 근거의 출처가 확실하고 전문성이 높은가?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반론을 논리적으로 제기하는가?					

합의문	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인가?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찬·반 입장의 타협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합계(30점 만점)					

2) 학생 자기 성찰 평가지

평 가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정보탐색 및 분석	신뢰성 있는 자료를 탐색했는가?	3	2	1
	쟁점에 관련된 핵심 정보를 탐색했는가?	3	2	1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는가?	3	2	1
	찬성 측·반대 측 모두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는가?	3	2	1
토론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3	2	1
	활용한 근거의 출처가 확실하고 전문성이 높은가?	3	2	1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반론을 논리적으로 제기하는가?	3	2	1
합의문	상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3	2	1
	상대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는가?	3	2	1
	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을 개발하였는가?	3	2	1
점수		점		
아래의 활동에서 배운 점, 변화한 점, 부족한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정보탐색 및 분석				
토론				
합의문				



가. 참고 자료

-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 다큐멘터리 EBS, 2023.10.4.~2023.11.2.
<https://home.ebs.co.kr/docuprime/newReleaseView/522>
- 이용균, 인구와 사회(제2판), 전남대학교출판부, 2024.
-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 2021.
- 장경섭, 가족·생애 정치경제, 창비, 2009.
-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 인구론, 동서문화동판, 2016.

나. 참고 문헌

- 넬 나닝스, 로리 브룩스,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풀빛, 20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안내서, 2023.
- 심성보·이동기·장은주·케르스틴 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 오스틴 J. 프렐리, 데이비드 L. 스타인버그, 논증과 토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이정옥, 토론의 전략, 문학과지성사, 2008.
- 이춘명·김태경, 교사가 성장하는 도서관 협력수업, 학교도서관저널, 2023.
- 정창우·김형렬·정혜인, 토론의 미학, 교육과학사, 2024.

경쟁은 필요한가?

경쟁은 다음과 같이 대립을 하고 있다. 먼저 ‘경쟁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의 긍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쟁은 사람들에게 성취동기를 제공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증진, 스포츠에서의 기록 경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 반면 ‘경쟁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부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쟁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든다. 과도한 경쟁은 개인의 동기부여보다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학습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번아웃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인간관계의 악화나 비윤리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을 살펴보고 경쟁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학습 목표

- 학습 목표
1. 경쟁과 협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2 토론수업 운영 과정

- 공존형 토론수업 모형 중 모든 학생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한 모형인 ‘순차적 자료 분석형’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함
- 토론수업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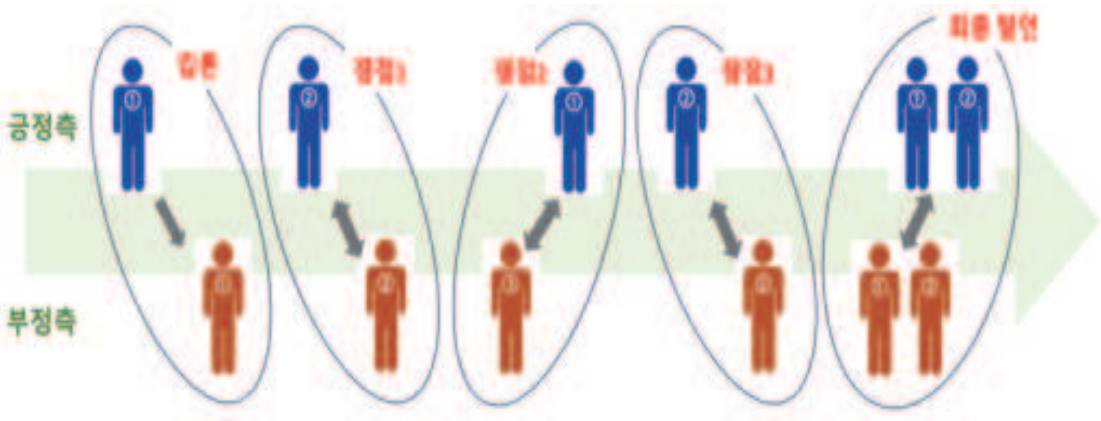


- ⑥단계를 시행하기 전에 찬반 양측이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토론 개요서를 수정 보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 ⑦단계에서 ‘합의’는 **대립된 의견을 절충하거나 어느 한편으로 수렴되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다수가 한쪽 의견으로 수렴하였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소수가 있는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처럼 **소수 의견을 합의문에 기록하면 좋다.**

3

토론 방법

- 공공포럼 방식을 변형하여 긍정측과 부정측 각 2명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각 발표는 2분 내외로 한다. 총 10번의 발표로 약 20분 내외
- 토론이 끝난 후 나머지 학생들이 양측 토론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입론은 논제에 대한 설명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론에서는 쟁점별 토론에서 언급할 내용은 피하고 논제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 최종 발언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추가하여 주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토론의 과정

가. 논제와 쟁점

1) 논제와 쟁점 파악

논제	경쟁은 필요한가?
핵심어	경쟁 :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 협력 :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쟁점	쟁점 1 : 경쟁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쟁점 2 :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쟁점 3 : 경쟁은 발전을 가져오는가?

2) 각 쟁점의 의미 파악

쟁점 1	경쟁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학교에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협력을 중시하며 교육의 기회 및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과 경쟁을 중시하며 공정한 평가를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쟁점 2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쟁이 만연한 현실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의 법칙은 경쟁이 본성적임 보여줌 경쟁의 극단은 공멸이므로 협력을 통한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함
쟁점 3	경쟁은 발전을 가져오는가? 경쟁이 개인의 성장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과 협력이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나. 읽기 자료 분석 및 요약하기

활동 설명

-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요약하며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텍스트를 통해 경쟁과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경쟁과 협력, 두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미국의 어느 학교에 인디언 아이들이 전학을 왔다. 어느 날 선생님이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칠 터이니 준비하세요”라고 말했다. 백인 아이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필기도구를 꺼내고 책상 가운데에 책가방을 올려 짝꿍이 엿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험 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인디언 아이들은 마치 게임이라도 하려는 듯 책상을 돌려 둥그렇게 모여 앉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시험 칠 준비하라고 그랬잖니?”하고 화를 냈다. 이에 인디언 아이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예전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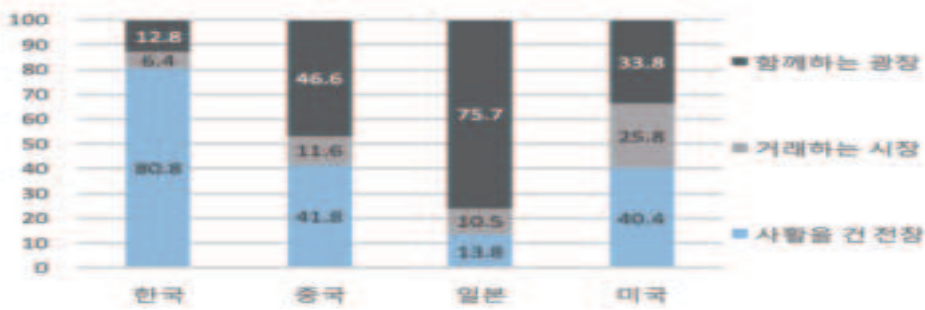
정혜규, ‘경쟁보다 협력을 말하는 교육, 불가능한가’, 한겨레신문, 2008.01.17.

(나)

“귀국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함께하는 광장: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 ② 거래하는 시장: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 ③ 사활을 건 전장: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한국 대학생 중 무려 81%는 고등학교가 '사람을 건 전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40% 남짓만 고등학교를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은 그 비율이 14%에 불과했다.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일본이 76%로 가장 높았고, 중국 47%, 미국 34%였고, 한국은 13%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교육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인식도 26%여서 다른 나라보다는 공교육에서도 시장 중심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역시 한국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내신등급을 위한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 경쟁이 치열한 한국 교육 현실에서 형성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다.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06, 65-66쪽.

(다)

학교 현장에서 경쟁은 이점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점은 동기부여다. 사실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경쟁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며, 결과적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도록 만든다.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적 이점은 경쟁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일반적 요소이며, 일상에서도 경쟁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즉, 경쟁은 인간에게 보편적 현상이며,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경쟁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경쟁적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쟁은 구조적으로 스트레스, 상실감, 압박감 등을 학생들에게 주게 되는데, 학교에서 경쟁을 미리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연습이 된다.

경쟁이 학생들의 학업적 성과(performance)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교육적 경쟁에 대한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경쟁 상황에서 과제를 더 빨리 수행하며, 과제 수행과정에서 실수를 비교적 덜 한다. 특히, '모둠 간' 경쟁 구조를 활용하면 '모둠 내' 협력을 유도하여 평균 성적을 끌어올리고,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경쟁은 학생들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경쟁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쟁이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경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 경쟁은 즐거운 경쟁이 아닌 불행한 경쟁이 된다.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은 경쟁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학생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학생들은 경쟁학습이 친구 간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은 경쟁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경쟁학습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한솔·김현옥, 「경쟁에 대한 교육적 고찰」, 『교원교육』 39(2), 2023, 192~194쪽.

(라)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 오늘날까지 눈부시게 변화·발전해온 것은 치열한 생존경쟁과 진화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 혹은 존속과 확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쟁(競爭)을 할 수밖에 없다. 동물들은 물, 먹이, 짝짓기를 위해 이종(異種)간 혹은 동종(同種)간 자연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인간도 물, 먹이, 짝짓기 이외에 부와 권력, 명성 등을 얻기 위해 상호 간에 경쟁을 하는 본성(本性)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경쟁과 게임(Game)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종의 존속과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경쟁은 자연선택(自然選擇)과 진화의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해진다. 인류는 수렵-채취시대부터 먹이를 얻기 위한 경쟁과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을 계속해왔다. 더 넓혀 말하면, 필요하지만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여 왔다. 개인간 경쟁, 씨족이나 부족간 경쟁을 거쳐 부족연합이나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민족과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통해 승부를 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경쟁을 하게 된 이유는 희소성(稀少性) 때문이다. 존속과 확산에 필요한 가용(可用)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게 된 것이다. 경쟁은 종국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비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인간행동(人間行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바로 이러한 희소성 때문이다.

경쟁은 최적자(最適者)를 가려내어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개인이라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국가라면 영토를 확장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부와 노예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이라면 시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강철규, 「경쟁과 협력」, 『경쟁저널』 149, 2010, 2쪽.

(마)

우리는 경쟁사회(競爭社會)에서 살고 있다.

경쟁이란 “서로 앞서거나 이기려고 하는 다툼”이라고 국어사전은 풀이 하고 있다. 경쟁은 그 경쟁해야만 하는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한정된 목적을 쟁취하거나 좀 더 많이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경쟁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략>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그 경쟁의 목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힘과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경쟁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승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한정된 목적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다보면, 때로는 그 경쟁이 과열되거나, 비상식적인 현상이 생겨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 경쟁 자체를 혐오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경쟁에는 경쟁 규칙이 있어서 그 경쟁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선의경쟁(善意競爭)”이라고 말한다. 큰 봉사의 꿈을 꾸는 자일수록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라. 진실은 모든 일의 바탕이요, 정직은 모든 문제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들 삶에서의 경쟁은 상대방을 직접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력을 길러서 경쟁하는 모습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을 직접의식하고 대결하면서 하는 경쟁이 있다.

첫째 상대방을 직접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길러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예컨대 학생이 학업성적으로 우위를 경쟁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자들을 비방하거나 무력화 할 수가 없다. 오직 자신의 노력여하에 의해 경쟁의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설령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누군가에 선두자리를 내주었다면, 다음 기회에는 더 노력해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선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경쟁”이 아닌가 싶다.

둘째 상대방을 직접 의식하면서 비교우위 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공직선거의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이 이에 해당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에서 자신의 이런 장점으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설득해서, 승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행태가 너무도 많다. 이에 더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상대방의 약점으로 포장해서 비방을 일삼는 자들도 많다. 그러나 그 짓은 오히려 경쟁에서 자신의 패배를 불러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성과 능력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은 현란한 순발력 보다는, 진정성과 정직성을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착한 경쟁으로 이긴 자나 진자가 “공존공영(共存共榮)하며,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경쟁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남윤봉, '경쟁사회의 모습', 과산타임즈 2022.06.13.

<http://www.goes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5>

(바)

사회가 발달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국위 선양이 국가 자부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젊을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적 특수성도 눈에 띈다. ‘한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역동적이다’(25.8%)도 있었지만 ‘경쟁적이다’(36.5%) ‘복잡하다’(17.7%) ‘피곤하다’(16.3%)는 답변이 많았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강박이 사회 불만으로 표현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실패한 사람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내 삶이



고달픈데 국가의 성공에 긍지를 가질 여유가 있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배경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인의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동아일보 2023.05.13.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512/119270390/1>

(사)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기준에서 누군가 나보다 낮다/높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갖는 세상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어렵다. 내 자녀가 어떤 옷을 입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다 주변의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부분이 자녀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진입 가능한 생애과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청년층에게 나타나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자녀를 낳고 싶다는 '완벽한 부모 신드롬'. 이는 비교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자녀 출산을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자녀의 행복을 담보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경쟁사회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고도의 압축적인 근대화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교육적 지원과 기대로 우수 인력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다양해지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질적인 성장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모든 직업은 다 가치가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사회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기여하기 때문이다. 삶의 다양한 방식들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선택의 결과이므로, 타인의 시선으로 판단 받기보다 존중받아야 한다.

처음에 열거한 모든 초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대안들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심리적 경쟁감을 유발하는 국내 사회문화에 대한 변화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모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흥미를 지닌 분야는 있을 것이다.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녀의 적성을 찾도록 도와주고,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자녀출산으로 인한 비용만 줄어든다고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회 제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극도의 학업적 스트레스와 비교로 위축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옆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다양해지는 사회, 옆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존중하는 다소 이상적인 사회문화를 지닌 대한민국을 꿈꾸어본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출산은 지금보다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영미, '획일화된 경쟁사회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 노컷뉴스 2024.05.27.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166>

다. 쟁점별 긍정측과 부정측의 근거 정리하기

활동 설명

- (가)~(사)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쟁점별 찬반 근거를 찾아 정리하는 단계이다.
-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

■ 쟁점 1 : 경쟁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 경쟁은 비교육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공정한 평가가 학생들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경쟁을 통해 학생들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여 발전할 수 있다. 성적이나 입시와 같은 외적 보상이 있으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경쟁은 성취 지향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 경쟁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적응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실제 사회에서도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을 경험하고 이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모둠 활동을 통해 과제를 해결할 때처럼,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집단적 목표를 이루고, 이를 통해 개인도 성장한다고 본다.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의 지식 축적이 아니라,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 협력적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이 배우고,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 경쟁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은 학습의 즐거움을 잃게 만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쟁점 2 : 경쟁은 피할 수 없는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세상에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를 한꺼번에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재화도 없고[자원의 희소성], 또 인간에게서 남을 이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기적 욕망을 완전히 떼어 낼 방법도 없다. 따라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 경쟁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를 유지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며 경쟁적이다. 물론 경쟁은 부작용도 있지만 효과도 크다.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 현대 사회를 가리켜 ‘경쟁 사회’라 칭하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시대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거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인간의 세계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상반된 두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본래 모든 종은 서로 돕는 ‘상호적 이타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번성한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협력의 사회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인간은 극한적 상황에서 갈등과 경쟁보다 협력과 공감을 통해 공존을 모색해 왔다. 그 예로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에서 1914년 12월 24일 저녁, 독 일군과 영국군이 가졌던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짧은 순간이 있었다. 참호 속에서 대치하는 동안 시체와 오물, 쥐와 해충을 견뎌야 했던, 수만명의 군인들이 계급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상관없이 오직 포편적인 인간성에 기반해서 협력과 공감적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 쟁점 3 : 경쟁은 발전을 가져오는가?

가져 온다	가져오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독점이나 국가의 소유 운영 등은 비효율성과 낭비, 관료주의의 문제점 낳는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부당한 가격과 저질의 서비스는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은 필요하다. ● 경쟁은 개인에 있어서는 자발성, 자율, 자기실현과 발전을 위한 노력의 발로이며, 사회로서는 활력의 원천이고 합리적 조직의 기초다. 경쟁은 자애심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에 불을 붙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 경쟁은 또 자유의지와 결합해 사회에 활력과 효율을 보장하고 인습, 나태와 방종을 억제하고 진보와 혁신을 고취시킨다. ● 경쟁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기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혁신은 경쟁 상황에서 더 촉발되며, 이는 사회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은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예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추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은 실업과 빈부의 격차를 낳았다. 특히, 1990년대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 협력이 경쟁을 누를 수 있다. 음모와 조작을 부추기는 권모술수보다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오픈소스협력 체제가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리눅스(Linux)가 대표적인 경우다. ●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다 보면, 창의성이나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로 간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공동의 연구나 데이터 공유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라.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활동 설명

- 토론 활동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이다.
- 토론 개요서는 토론의 전체 열개를 보여주며, 찬반 양측의 근거를 동시에 보여주어 입장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토론 참관 학생들도 토론 개요서를 공유하면 좋다.

논제	경쟁은 필요한가?		
핵심어	경쟁, 협력		
쟁점	쟁점 1 : 경쟁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쟁점 2 : 경쟁은 피할 수 없는가? 쟁점 3 : 경쟁은 발전을 가져오는가?		
		긍정측	부정측
쟁점1	주장	경쟁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경쟁은 비교육적이다.
	근거	-	-
	예상 반론		
쟁점2	주장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경쟁은 피할 수 있다.
	근거	-	-
	예상 반론		
쟁점3	주장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경쟁은 궁극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근거	-	-
	예상 반론		

마. 토론하기

활동 설명

- 함께 만든 토론 개요서에 추가할 근거를 마련한 후 실제로 토론을 하는 단계이다.
- 토론에서 대립되는 두 입장을 잘 드러내는 입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최종 발언을 해야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지 논의한 후 토론을 진행한다.

	긍정측	부정측
발표자 1		
발표자 2		

입론	
----	--

↓
토론 개요서 및 쟁점별 근거 자료를 활용한 토론
↓

최종 발언	
-------	--

청중과 질의 응답	
-----------	--

바. 합의 시도 및 합의문 작성하기

토론의 목적으로 '시민적 합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아니라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의견과 근거를 존중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적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경청과 대화를 실천한 부분을 충분히 격려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안내서」, 17쪽

활동 설명

- '합의'는 대립한 두 입장 중 한 입장으로 수렴, 두 입장의 절충, 새로운 입장의 제안 모두 가능하다.
- 한 입장으로 수렴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 판결문에서 소수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을 활용하여도 좋다.

	내용	이유
합의한 것		
합의하지 못한 것		

5 자기 성찰지 기록하기

활동 설명

- 토론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배우고 느낀점을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다.
- 교사는 이를 토대로 수업을 재설계할 수 있다.

※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배움	<input type="checkbox"/> 토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갈등에 대한 찬성 반대 측 두 입장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토론 방법 및 지켜야 할 규칙이나 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가?

협력	<input type="checkbox"/>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데 모둠원과 협력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나와 다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구성원의 의견도 빠지지 않게 고려하면서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참여	<input type="checkbox"/> 찬성과 반대 자료를 읽거나 조사하면서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토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합의안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는가?

※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수업을 통해 얻은 것	
토론 과정에서 이쉬운 것	
토론을 통해 배운점	

6 참고 자료 및 참고 문헌

가. 참고 자료

〈영상 자료〉



- EBS 초대석 - 무한경쟁 사회에 협력을 기르는 방법_01 [20분]
<https://www.youtube.com/watch?v=reHzWHYuRRo&t=4s>
- EBS 초대석 - 무한경쟁 사회에 협력을 기르는 방법_02 [25분]
<https://www.youtube.com/watch?v=mDmSdLZgr0M&t=67s>



- 한국 사회 문제 원인은 한국교육? 김누리의 교육 혁명 제안 [23분]
<https://www.youtube.com/watch?v=5UaJywOO6Mk&t=7s>

나. 참고 문헌

- 강수돌,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 생각의 나무, 2009.
- 김누리,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해냄, 2024.
- 로버트 액셀로드,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
- 알피 콘, 경쟁에 반대한다, 산눈, 2009.
-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06, 2017.

A | 시 대

역

지

사

지



공

존



형

토

IV

론



[부록]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활용 주제와 쟁점 예

수

어



- 심화교재 -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이 존재하는가?



학교급	중학교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이 존재하는가?	
관련 교과	미술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수많은 디지털 이미지 등의 시각문화가 생산되고 있다. 기존 물질 예술 작품과 다르게 디지털로 생산된 이미지 즉 작품들은 ctrl+c, ctrl+v를 통해 무한 복제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파일로 생성되는 이미지들에 작품의 원본이 있을 수 있을까?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라는 유일무이성의 가치를 갖을 수 있을까? 또한 전기 전원의 기반인 매체를 필요로 산출(재생)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과거부터 생산된 물질 예술과 가치가 동일할 수 있을까?	
성취기준	중학교	[9미01-04] 삶과 미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연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미술	[9미02-05] 미술 표현 과정에서의 경험을 성찰하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9미03-01]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미03-02] 미술의 다원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술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고 공동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토론 주제	디지털 이미지의 '원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이 존재하는가? 2.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이 있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3. 디지털 이미지는 물질 예술과 가치가 같을 수 있을까?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의 발전에 따라 형식만 달라질 뿐 또다른 기술로 원본화 시킬 수 있다. - 오늘날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Non-fungible token)기술을 활용하면 원본 및 소유권을 저장할 수 있다. - 뒤상이 선택한 기성품이 작품으로 인정받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예술로 인정받은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도 작가의 예술성이 인정된다면 물질 예술의 동일성으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할 수 없다. - 디지털 파일은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하기 어렵다. - 디지털 파일은 매체 등이 고장났을 경우 소실 등으로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물질과는 전혀 다른 특성으로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합의 가능한 내용	<p>매체의 발전에 따라 예술 작품은 물질 예술과 비물질의 디지털 예술로 구별할 수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으로 블랙박스 안에서의 자동 생성된 작품까지 매체와 예술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다.</p> <p>매체의 변화와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예술 작품에 있어서도 원작자의 최초 산출 파일에 시대의 기술을 접목하여 원본과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업데이트 중이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을 반영하여 물질 예술작품으로서의 원본과 디지털 예술 작품으로서의 원본의 특성이 각각 다름을 이해하고, 가치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각자의 주장에 따른 논리와 근거를 살펴보고 다른 관점도 있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p>		



학교급	중학교	예술 작품에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을까?	
관련교과	미술	<p>예술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 고급 예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훌륭한 작품이라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오늘날 마주하는 예술 작품을 살펴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저게 위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지?' 하며 우리는 각각의 평을 내린다. 예술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미술작품을 인정하는 기준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맥락이 있었음을 탐구 및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보고, 오늘의 예술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공존을 위한 협의점을 찾아보자.</p>	
성취기준	중학교	[9미01-01] 감각을 활용하여 대상과 현상을 탐색하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다.	
	미술	[9미03-01]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미04-02]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9미03-03]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을 활용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		
주요 쟁점	1. 예술에 고급과 고급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2.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중 어떤 것이 더 훌륭할까? 3. 대중예술과 오늘날의 매체 예술(디지털 및 인공지능 아트)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할까?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에 고급과 고급이 아닌 것은 존재한다. 작가가 새로운 창작을 반영하여 이전에 없던 것을 제시하여 미술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예술의 가치가 인정되며, 고급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고급이라고 볼 수 없다. - 고급예술 즉, 엘리트 예술은 작가, 미학, 교육받은 감상자, 해설자, 미술계 등이 합의하고 인정하는 예술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는 덜하다. 따라서 고급예술은 명품처럼 이를 이해하고 있는 소수에 의해 감상되어야 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이로서 예술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예술과 고급이 아닌 예술에 대한 해석은 과거 예술 해석에 불과하다. - 과거 잭슨폴록 등 미술계가 인정하고 해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 고급예술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러한 사고에 반하여 앤디워홀의 팝아트인 대중미술이 등장했다. - 대중미술은 대중이 사회에 주요 권력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엘리트 예술에 반함을 목적으로 등장한 예술로 저급 예술이 아닌 또 다른 고급예술이다. - 따라서 예술은 시대의 창작과 함께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합의 가능한 내용	<p>예술 작품은 창작자와 매체, 감상자, 장소, 해설자, 비평가 등 미술계의 상호작용에 따라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는다. 또한 작품은 시대와 지역, 사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가치에 관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고급 예술이라고 지칭되었던 과거 엘리트 미술 또한 미술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며, 이에 대항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며, 특정 장소가 아닌 어디에서든 교육받지 않아도 감상이 가능한 대중미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술 작품에는 목적과 시대의 반영이 있음을 이해하고, 각각의 가치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작품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예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p>		

3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학교급	중학교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관련교과	국어	<p>학교 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학교 내 CCTV 설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설치로 인해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 역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 설치하는 CCTV는 인권 문제 및 학습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p> <p>이와 같이 학교 내 CCTV 설치로 인해 얻는 이득이 많을지,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을지 생각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p>	
성취기준	중학교	<p>[9국01-01] 듣기·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p> <p>[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p> <p>[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p> <p>[9국01-09]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p> <p>[9국01-10]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p>	
	국어, 사회	<p>[9사(일사)06-01]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탐구한다.</p> <p>[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 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p>	
토론 주제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CTV의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인가? 2. CCTV 설치를 통해 개인의 안전이 확보되는가? 3. 학교 내에서 안전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하는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관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CCTV의 목적은 안전을 위한 것이다. 2. CCTV 설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실시간 감시 등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3. 학교 내에서 안전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과 학교 생활을 잘 하게 하려면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CTV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안전이 아닌 개인을 위한 감시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CCTV 설치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이다. 3.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하면서 숨기고 싶은 것들도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며 CCTV를 설치한다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 가능한 내용	<p>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p> <p>첫째, 학교 내 CCTV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학생 사고 및 학교 범죄를 예방하기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공간에 설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운동장 등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우선시한다.</p> <p>둘째, CCTV 설치 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학교의 운영에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도록 CCTV 각도를 조절하여 설치한다.</p> <p>셋째, 소수의 나쁜 일들을 처벌하거나 확인하겠다고 다수의 인권침해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CCTV 설치를 통해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 해결하기보다는 CCTV 설치는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가치관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p>		

4

70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법제화해야 하는가?



학교급	중학교	70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법제화해야 하는가?	
관련교과	도덕		
성취기준	[0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09도03-04]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 하는 과정을 통해, 준법 의식을 길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토론 주제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1년 31,000건으로 2016년 24,000건에서 27% 늘어났다. 이는 비 고령자에 비해서 높은 수치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자진반납이 아니라 반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자의 연령과 사고 발생 비율은 상관이 있는가? 2. 고령운전자의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 3. 운전자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시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가 지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장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야 한다. - 다수의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 운전을 생업으로 하거나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운전자의 운전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 - 이동권,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운전 대신 이용 가능한 다양한 이동 수단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5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을 해도 되는가?



학교급	중학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을 해도 되는가?	
관련교과	도덕		
성취기준	[0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0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 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토론 주제	<p>남극 펭귄을 구하기 위해, 자연의 생태계를 거스른 다큐멘터리 감독, 결국..(https://youtu.be/Wb3rzN7yMI0)</p> <p>혹한의 추위인 영하 60도의 날씨에 남극의 펭귄들이 눈보라를 마주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 ‘린지 맥그레이’는 펭귄을 촬영하는 중이었다. 이들이 가파른 협곡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촬영팀은 개입할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인간 개입 불허’라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촬영팀은 결국 대자연의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펭귄들을 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결정에 동조하는 이들도 많지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 (서울신문, “동물세계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지만 펭귄을 죽일 순 없었다. 2021.03.31.)</p>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계 구성원(개체)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2. 생태계 및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가꾸고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 환경 보호의 시작이다. 고통과 감각을 가진 대상, 특히 내 주변에 있는 동식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다. -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여 이뤄낸 것들이 많다. 단지 소극적으로 인간이 환경오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라는 네트워크는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이 시스템을 다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여 생겨난 문제점은 무수히 많다. - 환경 오염은 인간의 개입으로 생겨난 문제이므로 자연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개입을 멈추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생명을 살리는 환경] 4.생태계복원 인간이 주도해야 하나-찬성, 2000.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서치페이퍼, 끊임없이 논란되는 자연보호주의, 2018.7.19.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생태계 보호 활동은 가능하다. - 불필요한 개입(그 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급	중학교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는 옳은가?	
관련교과	도덕		
성취기준	[09도-02-04]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0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09도 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 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토론 주제	서울경제, "고양이 밥 주는 게 왜요?"...캣맘은 어쩌다 '민폐의 상징'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2023.5.20.) '캣맘(Cat-Mom)'. 주인이 없거나 유기된 상태로 길거리와 들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2018년 4889건에서 지난해 40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캣맘 관련 민원 건수는 같은 기간 70건에서 13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캣맘 관련 민원 창구는 콜센터 외에도 시청, 구청, 경찰 등 다양해 실제 민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이 관련 직접 민원의 빈자리에 캣맘 관련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는 올바른가? 2. 동물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양이를 체계적으로 돌보는 것이 무분별한 번식이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길고양이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캣맘의 활동을 강제로 방해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다. - 칸트와 맹자의 경우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님에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캣맘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 질병 문제, 냄새 문제와 개인 사유지 혹은 공동 시설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캣맘의 활동은 이기적이다. -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생태계에 개입하여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동물과 생명체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 - 동물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규진(2024),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6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보, “하와이 '캣맘 금지법' 추진... 길고양이 증가로 토착생물 멸종 위기”, 2024.1.30.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은 소중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필요하다. -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비난의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7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학교급	고등학교	현안 :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관련교과	법과 사회, 통합사회2		
성취기준	법과 사회	[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통합사회 2	[10통사2-02-01]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구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토론 주제	<p>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 증가,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하여 최근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소년법을 통하여 촉법소년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나아가 청소년이 받는 특별한 보호와 제한이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p>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벌 강화가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가? 2. 촉법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3. 촉법소년 제도는 공정성을 저해하는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고 형법 처벌을 받게 한다면, 법의 엄중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켜 소년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다. - 촉법소년제도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면죄부를 주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 잘못했을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여 공정함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촉법소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 되기 전 짝힌 범죄자 낙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소년 범죄자를 대량 생산할 것이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을 강조하듯, 회복 가능성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촉법소년제도는 보호·상담·교육을 통하여 촉법소년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촉법소년은 범행 동기, 자제력, 가치판단 능력, 교화 가능성 등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고 가난·학대·폭력 등 환경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참고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호,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천개의바람, 2023. - 김성호,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천개의바람, 2023.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2022.10.26.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교정·교화 시스템 확충, 보호처분 종료 이후의 대책 마련 등 소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중한 범죄, 재범률에 따라서 형사 처벌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거나, 연령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협력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 가해자의 보호와 재사회화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8

사람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괜찮은가?



학교급	고등학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괜찮은가?	
관련교과	현대사회와윤리, 윤리문제 탐구		
성취기준	현대사회와 윤리	[12현윤03-03]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위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인공지능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윤리문제 탐구	[12윤탐03-03]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의하고,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토론 주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괜찮다.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인공지능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배분될 수 있다. 2. 초인공지능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3.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류는 일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후진국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듯이 초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바로 직전의 기술로 만든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 산업혁명 초창기에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했지만, 당시 마차를 끄는 마부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운전수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듯이 초인공지능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사람들은 일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져 자아실현할 수 있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혜택은 부자들에게 먼저 주어져 왔기에 초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은 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소수의 부자들만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육체적 노동 분야만이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급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기에 초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초인공지능은 기후 위기나 전쟁 등을 일으키는 호모 사피엔스 자체를 멸종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가능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이전의 인공지능 기술 제품의 가격이 떨어져 가난한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새로운 기술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서 그 혜택이 부자들에게 편중될 수 있다. -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그동안 존재했던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기업, 개인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 초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찾아봐야 한다. - 초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탐구하고, 그런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	고등학교	청소년 참정권은 지금보다 확대 보장되어야 하는가?	
관련교과	사회문제탐구		
성취기준	정치와 법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 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5-01]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폭력 및 신변안전)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토론 주제	한국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지금보다 확대 보장되어야 하는가?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들도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육성하는 것이 더 교육적일 수 있다.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은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교육,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정치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배운 후,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투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은 정치적 성숙도가 부족하여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성숙하지 않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은 청소년 의회나 대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정치적 의견을 이미 제시할 수 있다. • 법적으로 권리와 책임이 제한된 청소년은 투표 외에도 계약 체결, 음주, 흡연 등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법적 제한을 받는 나이에 투표권만 부여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일 수 있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기득권에 대한 불만으로 더 큰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사회적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사회에서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에게 지방선거 및 국가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만 16세 이상의 유권자를 두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충분히 자유의사를 가지고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청소년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10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군복무 형태가 더 정의로운가?



학교급	고등학교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군복무 형태가 더 정의로운가?	
관련교과	사회문제탐구		
성취기준	생활과 윤리	[12생윤06-02]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회문화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주제	현안 :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군복무 형태가 더 정의로운가?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복무라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상충 되는 경우에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군사적 위협을 받는 국가에서, 징병제를 통해 국가 방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모병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공존할 수 있다. 3. 징병제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모병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군복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토론 근거	징병제 찬성 근거		징병제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로 간주되므로 국민 모두 국가 방위를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징병제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함께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간주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지 않고 강제로 하게 되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징병제를 하지 않아도 국가와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연구, 기업 등의 분야에서 국가에 중요한 국민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현대 전쟁의 경우 모병제를 통해 군대의 전문성이 높일 수 있다.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훈련과 기술을 배우고,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에서는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전문 군인을 양성하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의무적으로 군에 배치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군인을 뽑는 모병제가 국가 안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형태로 국가에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대에 가고 싶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를 강제로 의무를 수행하게 하기보다는 국민복지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급	고등학교	현안 :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관련교과	통합사회, 인문학과 윤리		
성취기준	통합사회1	[10통사1-04-04]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인문학과 윤리	[12인윤03-02]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및 실질적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토론 주제	대학 입학 정책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 인종 학생이나 여성, 혹은 기타 취약계층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약 3.5%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에 비해 낮은 대학 진학률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대입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정하여 대입에서의 공정성, 대학의 목적, 개인의 권리 측면을 살펴보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공정성을 저해하는가? 2.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3. 대학 입학 전형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타고난 재능, 출생, 노력의 혜택에 따라 발생한 차별적인 보상을 사회적 소수자에게 분배하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가 될 수 있다. • 21세기 대학의 사명은 고등 교육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성 실현하며 동시에 차이와 다양성 대한 존중, 연대 의식, 공감,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대학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 입학 허가의 정당성은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학업 성취나 뛰어난 능력을 보상하기 위함이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다문화가족 학생이 겪는 차별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 수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 •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으로 학문적 역량을 학생들이 갖추었는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면 이들의 사회 공헌도는 뛰어난 학생들보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른 방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학업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4. •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능력만을 고려하여 대학 교육의 배분이 일어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교육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적용 시기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의무교육 기간에 생기는 학생의 인종, 사회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교육격차의 원인은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2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학교급	고등학교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	
관련 교과	통합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문제탐구		
성취 기준	통합사회	[10통사1-03-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안한다.	
	현대 사회와 윤리	[12현윤02-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현윤01-02] 동양 및 서양의 윤리사상, 사회사상의 접근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와 쟁점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윤리문제 탐구	[12윤탐04-01] 반려동물과 관련한 윤리문제, 동물 복지를 둘러싼 논쟁 등을 윤리적 관점에서 탐구하여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토론 주제	동물 가족으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비판할 수 있다.		
주요 쟁점	1. 비건 가족이 천연 가족보다 친환경적이다. 2. 동물복지가 패션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 균사체로 만든 콤부차 가족, 포도 부산물로 만든 비제야 가족, 폐기된 파인애플 잎으로 만든 피나텍스 가족 등 비건 가족은 천연 가족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다. • 동물 가족을 만드는 과정에 동물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경제적 활동이 더 요구된다. • 모피 코트 하나를 만드는 데 40마리 이상의 동물이 필요하다. 비건 가족으로 코트를 만들면 동물의 희생 없이도 충분히 패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기반 합성소재로 만든 비동물성 가족이 제조 과정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다이옥신 등을 발생시킨다. • 대량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천연 가족이나 비건 가족이나 비슷하다. •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패션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할 권리가 있다. • 데카르트나 칸트 등 인간중심주의 윤리학자들은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보다 인간의 자유 신장이 더 우선이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가능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이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비건 가족도 종류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비건 가족이건 동물 가족이건 대량 생산·유통·소비 과정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패션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가족의 친환경 제조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환경 오염 유발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과학적인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다. - 동물을 주산물로서 음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환경적으로 허용되지만, 동물을 부산물로서 의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도덕적/환경적으로 어떻게 정당화 가능한지 성찰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	고등학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가?	
관련 교과	통합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문제탐구		
성취 기준	통합사회	[10통사1-04-04]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현대사회와 윤리	[12현윤05-03] 다문화 이론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교 갈등, 이주민 차별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윤리문제탐구	[12윤탐02-04]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과 난민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토론 주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노동자는 GDP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2.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하기 싫어하는 3D업종 분야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GDP 향상에 기여한다. •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논문과 책이 다수 있다. •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 경쟁력 지수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다. (국민의 유연성·적응성 분야의 상승도가 높다.)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생산에 기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문화 활동가들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10%로 오를 때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1.4% 감소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내국인들이 꽤 많음을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를 통해서 보면 외국인들은 살인, 마약 등 중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3D업종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GDP가 증대된다. -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거주할수록 내국인들은 다양한 문화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이나 서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황을 분석한 논문이나 책, 혹은 뉴스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외국인 범죄가 실제로 많아지는지에 대해 엄밀하게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종류(예를 들면, 절도나 강도, 혹은 마약, 살인 등)도 함께 분석해야 일반인들이 두려워하는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학교급	고등학교	한국 사회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관련 교과	정치외법,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성취 기준	정치외법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계지리	[12세지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 주제	한국 사회는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주요 쟁점	1. 세계는 난민 위기의 시대에 이르렀다. 2.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에 나서야 한다.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들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국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난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연합(UN)은 난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으며 난민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적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 수용 과정에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사회 적응 과정에서 이질적 문화, 언어 차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 기존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테러 위험성, 강력 범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난민들이 저임금 일자리 등에서 현지인들과 경쟁하게 되어, 실업을 증가 또는 노동 시장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과 협약에 따른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난민법 등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 가짜 난민 등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절차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 인정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 등 장기적으로 난민의 안정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언어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교육 지원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난민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난민 수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난민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난민 문제는 일부 지역, 해당 국가의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미 세계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 사회 협력 및 난민을 수용하는 국제사회의 공조 시스템과 지원을 통해 각국이 노력해야 함을 인식한다. 		





학교급	고등학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은 중동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관련교과	세계사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세계사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정치와 법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토론 주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주요 쟁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으로 인하여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가? 2.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화해와 해결이 가능한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기간 주변 국가들과 분쟁을 겪은 이스라엘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해야 한다. • 하마스가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강경한 보복은 불가피하다. • 이스라엘은 강경정책을 통해 국경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있다.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질서와 폭력사태 소요가 계속되어 팔레스타인 내부의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강경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통해 이러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에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전쟁의 지속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중동 지역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구적 평화는 반복되는 보복과 폭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통해 상호 협력하며 재건할 수 있다.
합의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가능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오랜 역사적 배경과 상처가 얼얼져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강경 정책으로 인한 전쟁과 폭력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항상 전쟁과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지내고 있다.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 공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아이들이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전쟁이 계속 되더라도 인도적인 지원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더 나은 합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슬로 협정(1993), (1995) 준수 또는 적극적 이행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가자 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에서 행정과 경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중재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및 하마스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다. - 항구적인 중동 평화 이행을 위해 팔레스타인 정부의 자치 확대와 이스라엘 군의 철수를 통해 평화 협정이 완성되도록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학교급	고등학교	정당한 권력의 부당한 명령과 개인적 도덕성	
관련 교과	통합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정치, 법과 사회, 사회문제 탐구		
성취 기준	통합사회	[10통사2-01-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현대사회와 윤리	[12현윤04-02]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 필요성과 시민불복종의 조건 및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12현윤06-01]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을 실천할 수 있다.	
	정치	[12정치02-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법과 사회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4-01]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토론 주제	정당한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주요 쟁점	1.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 2.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 중 무엇이 우선인가? 3. 권위의 정당성과 명령의 정당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권력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를 따르는 것이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 개인이 부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과 명령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권력과 명령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개인의 판단이 전체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 특히 긴급 상황(전쟁 상황 등)에서는 명령체계의 신속한 작동이 중요하므로, 부당하더라도 복종이 필요할 수 있다. • 권위는 법적으로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다. 권위 있는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권력의 정당성을 존중해야 한다. • 권력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보다 부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권력은 항상 정의를 지킬 수 없으며,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명령에 따랐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의 변명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다. 개인은 권력의 명령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역사적으로 부당한 명령에 따라 행해진 비인간적인 행동(전쟁 범죄 등)은 명령을 따른 개인도 비난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 권위가 정당하더라도, 구체적인 명령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따를 가치가 있다. • 권위의 존재는 도덕적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명령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나치 독일에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보여준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명령을 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합의 시도 및 합의문 작성하기		내용	이유
	합의한 것		
	합의하지 못한 것		
	<p>〈합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주제 : 정당한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 합의 내용 : • 소수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는 대립한 두 입장 중 한 입장으로 수렴, 두 입장의 절충, 새로운 입장의 제안 등 모두 가능하다. • 합의문 작성 시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을 법원 판결문에서 사용하는 ‘소수 의견’의 형식으로 밝힌다. 예컨대 ‘일부는 ~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쟁점은 도덕적 의무, 법적 책임, 사회적 안정성, 개인의 양심 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 더불어 부당한 명령에 대처하는 방법을 시민불복종과 관련지어 의견을 나눠본다. -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 카스 R. 선스타인, 박지우, 송호창 역,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후마니타스, 2009. - 스테판 에셀, 임희근 역, 『분노하라』, 돌베개, 2011. 		



학교급	고등학교	시민 불복종과 시민 참여	
관련 교과	통합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정치, 법과 사회, 사회문제 탐구		
성취 기준	통합사회	[10통사2-01-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현대사회와윤리	[12현윤04-02]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 필요성과 시민불복종의 조건 및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12현윤06-01]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을 실천할 수 있다.
	정치	[12정치02-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법과 사회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4-01]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토론 주제	시민 불복종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주요 쟁점	1. 시민불복종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가? 2.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과 저항을 해야 하는가?		
토론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p>1. 정의의 수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법과 제도는 도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으며, 시민불복종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입니다.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 킹, 간디 같은 인물들의 시민불복종은 사회적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p>2. 민주주의의 건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 신호 역할을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정하게 만드는 평화적 압력수단입니다. <p>3. 비폭력의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불복종은 폭력적 저항의 대안으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불필요한 희생과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도덕적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하며 폭력적 방식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p>4. 도덕적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은 법보다 우선하며, 부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p>1. 법적 안정성 훼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치주의는 사회적 질서와 안정의 기반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이 허용되면, 사회는 무질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p>2. 주관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로운'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3. 대안적 수단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사회에서는 선거, 청원, 법적 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이를 무시하고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4. 사회적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교통 방해, 공공 서비스 중단, 경제적 손실 등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운동의 경우, 폭력적 상황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p>5. 공권력의 약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불복종을 허용하면 공권력이 약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용	이유
	합의한 것		
	합의하지 못한 것		
합의 시도 및 합의문 작성하기	<p>〈합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주제 : 시민불복종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 합의 내용 : • 소수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는 대립한 두 입장 중 한 입장으로 수렴, 두 입장의 절충, 새로운 입장의 제안 등 모두 가능하다. • 합의문 작성 시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을 법원 판결문에서 사용하는 ‘소수 의견’의 형식으로 밝힌다. 예컨대 ‘일부는 ~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 신념, 정의, 양심에 따라 정부나 법률의 특정 정책 또는 명령에 대해 처벌을 감수하며 의도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불복종하며 사회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함 -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862)가 1849년에 쓴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음 		

시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심화교재

■ 총괄·기획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진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지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이미선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최형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송민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 개발·집필

박봉정 | 전)신천중학교 교장
정미선 | 전)개원중학교 수석교사
이슬기 |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지광 |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상철 | 전)경희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
권화영 | 개포중학교 교사
박현정 | 개원중학교 교사
심새미 | 해누리중학교 교사
박범철 | 경문고등학교 교사
강방식 | 동북고등학교 교사
이춘명 | 보성고등학교 교사

발행인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발행일 | 2024년 12월 20일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이 책은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수업 이외의 무단 사용, 복제 및 변형과 배포를 금지합니다.

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심화교재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